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응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티드 플레이너 아이션과
함께 아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대표전화 : (703)281-9660 koreadaily.com

중앙일보

①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4 제 691475호

Monday, January 26 2026 A

워싱턴지역 항공편 약 9천여건 취소

24일(토) 밤부터 워싱턴 DC 지역에 내리던 눈은 25일(일)에 진눈깨비와 얼음비로 바면서 적설량은 예상보다 다소 적은 총 6~10인치(15~25cm)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오 무렵 기온이 10도대에서 영하에 가까운 온도로 오르면서, 가루눈이 진눈깨비 또는 얼음비가 섞인 형태로 변했다고 기상당국은 밝혔다.

25일 오전 현재,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면서 약 8~10시간 동안 겨울철 강수 형태가 지속될 전망이며, 얼음비로 인해 워싱턴 DC 지역에서는 노면, 나뭇가지, 전선 등에 0.25인치 이하의 얼음이 쌓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북쪽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눈이 내릴 것이라면서 많은 곳은 최대 적설량이 1 피트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현재, 미국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은 수년 만에 발생한 기록적인 겨울 폭풍(Winter Storm)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전역에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곳곳에서 교통사고, 긴급지원요청 쇄도
낮은 기온 지속…오는 28일 또 눈소식

버지니아주 경찰에 따르면 주 전역에서 약 17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북버지니아 지역에서만 최소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보고되었다. 그런가 하면, 메릴랜드주 경찰은 전날 밤부터 이날(일) 오전까지 약 400건의 긴급 지원 요청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또한 폭설과 결빙으로 인해 미국 전

역에서 약 70만~80만 가구가 정전되었는데,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포함한 중부 대서양 지역에서도 전력 공급 중단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설로 인한 정전사태는 대부분 얼음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신주를 덮치거나 가옥을 파손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워싱턴 DC 인근 공항을 포함해 미국 전역에서는 일요일 하루 동안만 약 9,6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었다. 도로 상황을 살펴보면 시간당 1~2인치의 집중적인 폭설과 진눈깨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1/4마일(400m) 미만으로 떨어져, 각 주 당국은 도로 주행 자체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워싱턴 DC 시장과 버지니아, 메릴랜드 주지사는 현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제설 및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겨울 폭풍은 26일(월)에 끝나겠지만, 찬 공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눈이 녹기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기상 당국은 전망했다. 27일(화)은 대체로 맑겠지만 매우 추울 것으로 예상되며, 기온은 평년보다 약 20도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8일(수)에도 맑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에는 다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기상청은 예보했다.

홍일봉 기자

오바마, 트럼프 이민정책 비판
“불의 맞서는게 시민이 할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5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이에 맞서 시위하는 미국인을 향해 공개 지지를 표명했다.

민주당 소속인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알렉스 프레티 살해는 가슴 아픈 비극이다. 또 정당과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에게 한 국가로서 우리의 여러 핵심 가치가 갈수록 공격받고 있다는 경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비롯한 연방정부 요원들이 “미국 주요 도시 주민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며, 도발하고, 위험에 빠뜨릴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보이는 전술”을 아무런 제지 없이 펼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미국인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미국인은 미니애플리스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평화 시위 물결을 지지하고 영감을 얻어야 한다”면서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기본적인 자유를 지키며, 정부에 책임을 묻는 일은 궁극적으로 시민인 우리 각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미니애플리스에서는 지난 7일 미국인 여성 군에 이어 지난 24일에는 미국인 남성 프레티가 이민 당국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행정부는 이들이 이민 단속 요원의 생명을 위협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으며, 굿을 이민 당국을 겨냥한 폭력을 조장하는 ‘좌파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두 사건 영상에서 행정부 설명과 사뭇 다른 정황이 드러난 이후 이민 당국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미니애플리스를 비롯한 미국 주요 도시에서는 강경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총기 소지했다고 사살?…보수진영도 시위대응 비판

미네소타주 미니애플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인 37세 남성이 사망한 사건의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 기반인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골수 보수 단체로 꼽히는 총기 소지 권리 옹호 단체들이 25일 잇달아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고 이 사건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전미 총기협회(NRA)는 공식 엑스 계정에 에세일리 검사의 글을 공유하며 “이

런 생각은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라며 “책임감 있는 공직자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을 악마화할 것이 아니라, 전체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네소타총기소유자 코커스도 공식 성명에서 “사망자가 요원들을 해칠 의도가 있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제시된 바 없다”며 “이에 우리는 주 정부와 연방 정부 당국 모두의 완전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9시 5분께 미니애플

리스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알렉스 프레티(37)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미 국토 안보부는 프레티가 9mm 반자동 권총을 지니고 미국 연방국경순찰대(CBP) 요원들에게 접근하고 요원들이 그의 무장을 해제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 언론은 이런 영상 등을 바탕으로 프레티가 사건 당시 총기를 꺼내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국토안

보부의 사건 경위 설명을 두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며 연방 정부가 사건 경위를 조작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화당 주요 정치인들도 이번 사건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대응에 쓴소리를 내놓았다.

빌 캐시디 연방 상원의원(공화·루이지애나)은 전날 엑스에 “미니애플리스에서 일어난 사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ICE(미 이민세관단속국)와 국토안보부의 신뢰성이 위태로워졌다”고 지적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센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 막스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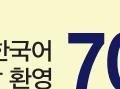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 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www.davidmarksllaw.com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트럼프, 북한보다 중국 견제…“한미동맹 성격 달라질 수도”

미국 전쟁부 새 국방전략 발표

“본토 방어 집중” 서반구 폐권 강조
북 위협에도 한국엔 제한적 지원
북 비핵화 빼자 핵보유 용인 우려

미국이 향후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이 주된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맡고, 미국은 중요하지만 제한적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support)만 제공한다는 전략을 공식화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 전쟁부(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전략(NDS)은 중국을 제외한 역내 위협은 이에 직면한 동맹국들이 각기 맡고, 미국은 미 본토 방어와 서반구에서의 영향력 재확대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NDS는 “한국은 미국의 제한된 지원하에 북한을 억제하는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 한국은 이를 수행할 의지도 갖추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NDS는 지난해 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 문서 격으로,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과 이에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법 등을 담았다.

NDS는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공동 방어의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며 “너무 오랫동안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우리가 그들의 방위를 보조하도록 내버려두는 데 만족해 왔다”고 했다. 또 향후 “미군은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NDS는 이스라엘을 “모범 동맹”으로 수차례 언급했다. 하마스의 재래식 공격을 자력으로 격퇴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같은 논리를 한반



자료: 미 전쟁부(국방부)

도에도 적용한다면 북한의 재래식 위협은 한국이 온전히 맡고,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확장억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누는 게 될 수 있다.

동시에 NDS는 북한의 핵 무력에 대해 “갈수록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고 있다”고 규정했다. 미 본토 방어에 우선을 둔 이번 NDS 내용

을 고려하면, 결국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위협에 빠뜨릴 것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에 미국이 ‘아니오’라고 답할 가능성이 커진 셈

이다. 한쪽이 공격받을 때 서로 돋는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미 동맹의 성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는 뜻이다. NSS에 이어 NDS도 북한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비핵화 목표가 허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물질이 해외로 반출 되지 않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익”이라며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로만

언급했다.

이처럼 한·미 모두에서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가 사라지는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보유를 용인받을 기회라고 오만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ICBM 완성을 주장하며 남한을 노린 전술핵 개발에 열을 올리는 김정은이 ‘한·미 동맹 갈라치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

NDS는 북·러 간 불법적 군사 협력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하나 이상의 잠재적 적국이 다양한 위협에 걸쳐 계획적으로 혹은 기회주의적으로 함

께 행동할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이다. 그마저도 “우리 동맹들이 적절히 국방에 투자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동시에 행동해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맥락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지출을 약속한 한국과 나토를 평가했다.

박인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돈로주’를 표방하면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책임을 분담시키는 건 북한의 직접적 위협을 받는 한국에 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며 군사적 위협을 높일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는 자칫 ‘서울-샌프란시스코 딜레마’를 심화시키는 동맹의 변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미국의 이런 한반도 관련 단기 전략 변화는 곧 대중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변경을 염두에 두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NDS는 “(한국의) 책임 분담 변화는 주한미군 배치 태세를 현대화하려는 미국 이익과 부합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정책과 맥이 달라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는 이제 정부가 임기 내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도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 X 계정에 NDS를 분석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자주국방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심석용 기자

‘앞마당’ 관리나선 미, 서반구 34개국 군수뇌부 호출

미국 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서반구(아메리카대륙) 우선 원칙을 재확인한 가운데 다음 달 서반구 34개국 군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해 회의를 연다.

미 전쟁부(국방부)는 댄 케인 미국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이 서반구 안보 협의를 위한 군사회의를 다음 달 11

일 열기로 하고 34개국 국방부 또는 군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미 전쟁부는 회의 목적과 관련해 “공통의 안보 우선순위 항목들에 대해 공유된 이해를 형성하고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회의의 의제로는 ‘마야 밀매

및 국제 범죄조직 대응을 위한 지역 협

력 강화’ 등이 거론된다. 미 전쟁부는 “범죄조직들과 테러조직들, 지역 안보와 안정을 훼손하는 외부 행위자들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파트너십, 지속적 협력, 단결된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북미 방어와 그린란드를 담당하는 미 북부사령부 사령관

그레고리 기요와 남미를 담당하는 미 남부사령부 임시 사령관 애번 페트루스도 참석한다. 전쟁부는 이번 회의에 초청된 국가들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서반구 국가들 뿐만 아니라 덴마크·영국·프랑스 등 서반구에 영토를 가진 국가도 초청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서반구에서 이 정도 규모의 군 관계자가 참석하는 군사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반구에 얼마나 큰 외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패권 강화 의도가 읽힌다”며 “미국이 자국의 서반구 전략에 동조를 요구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전민구 기자

워싱턴 날씨 (°F)	
	27일(화) 28-12
	28일(수) 25-10
	29일(목) 25-7

1월 26일(월) 28-7

①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3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3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교통 좋은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 홈	\$749,900
차고 2, 방 3, 화 3½	
	기차역 가까운 매나세스
3층 End 타운 홈	\$2,900
차고 2, 방 3, 화 2½	

GEICO is now available in our agency.

We're excited to offer our local insurance expertise along with the benefits of GEICO.



Competitive rates and savings



Outstanding claims experience



Easy access to great coverage

Locations are owned and operated by independent contractors/agents of the GEICO companies.

Call to get a GEICO quote today!

김원기 종합보험

(301) 962-8300

(301) 526-7000(c)

won@wkkinc.com



Get more with

GEICO®

워싱턴 '생명을 위한 행진' 대성황...트럼프 특별 메시지

전국서 수만여명 운집
한인 청소년 다수 참석

미주 최대 규모의 연례 낙태 반대 집회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이 23일 워싱턴DC 내셔널 몰과 연방의회 인근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특별 메시지를 통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지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인사회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생명을 위한 행진'은 1973년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학법상의 권리로 선언한 '로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이후 1974년부터 매년 1월 셋째 주 금요일 개최돼왔다. 해당 판결은 지난 2022년 6월 폐기됐다.

주위가 엄습한 이날 오전 11시, 워싱



'청소년 프로라이프 비전 캠프' 참가자와 지역 한인들이 현수막을 들고 워싱턴DC에서 행진하고 있다.

던DC 내셔널 몰에 걸집한 수만 명의 참가자들은 오후 1시까지 기념행사를 가진 뒤, 이후 2시까지는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선택의 자유는 거짓말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로 대웨이드 판결



이 뒤집혀 여러 주에서 생명 존중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됐지만, 전국에서 생명 문화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작업은 끝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작업은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궁극적으로는 낙태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넘치는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입양과 위탁 양육을 더욱 의미 있게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가족과 생명을 자랑스럽게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D. 밴스(사진) 부통령은 이날 집회에 직접 참석해 "가족을 지원하고 생명을 보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짐했다. 이 외에 마이크 존스 연방 하원의장과 주요 인사들이 연설자로 나섰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에서 특별히 워싱턴을 찾은 '청소년 프로라이프 비전 캠프' 참가자 30여 명과 다수의 한인들도 참가해 힘을 보탰다.

김성한 기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동부회 회계감사

2025년도 재정감사 완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회장 김인철)는 24일 자체 회계감사를 완료했다.

이날 오전 11시 김인철 회장을 비롯해 최민엽 재무부장 겸 회계사, 김덕만·김종준 감사, 이해월 상조위원장 등은 애난데일 소재 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2025년도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 회계장부 등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연례 감사를 마쳤다.

최민엽 재무부장은 감사에서 2025년 총 수입은 3만375달러이고, 지출은 2만



오른쪽부터 김종준·김덕만 감사, 김인철 회장, 이해월 상조위원장, 최민엽 재무부장.

8268달러로, 지난해 이월금을 합쳐 현재 잔고는 4389달러라고 설명했고, 이에 김덕만·김종준 감사가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하지가 없어 최종 서명을 했다.

김성한 기자

저렴한 주택 대기자 명단 등록 시작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재개발 및 주택청(FCRHA)은 '임대료 지원 시범사업(RAD)' 프로젝트 기반 바우처 프로그램' 신청 대기자 명단을 대달 2일부터 8일까지 접수한다.

이 프로그램으로 이용 가능한 주택

유형은 스튜디오 아파트부터 4베드룸 유닛 및 타운하우스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바우처를 소지한 가구는 일 반적으로 조정된 월 소득의 최대 35% 까지 임대료로 지불하며, FCRHA는

나머지 임대료 부분을 집주인에게 지

급한다. RAD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은 애난데일의 헤리티지 우즈, 세븐코너 그린우드, 폴스 처치 킹슬리 파크, 베일리스 크로스 로즈 데일 매너, 세븐코너 폴스 처치 등에 분포되어 있다.

신청서는 무작위로 등록되는데, 주

택 공실이 발생하면 대기자 명단에 있는 신청자들에게 연락하여 소득 수준, 가구 구성원 수, 임대 주택 규모 등을 기준으로 심사 후 입주자격이 결정된다.

신청자는 '세대주와 배우자가 62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세대주 또는 배우자는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 취업 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가구 내 유일한 성인은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며, 장애가 있는 미성년 부양 가족의 주된 보호자' 등의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Rent Cafe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는 703-449-9050이다. 또한 2일부터 '페어팩스 카운티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김성한 기자



서울대학교 국제하계강좌

SNU ISP |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SUMMER PROGRAM

2026 여름방학, 서울대학교 재학생과 함께 우수한 서울대 교수진 및 외국대학 해외초빙 교수진의 강의를 듣고 학점 취득을 비롯하여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최고의 기회

기간 2026. 6. 22(월) ~ 7. 25(토) (5주)

대상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학에 합격한 예비 대학생

교과목 인문, 사회, 경영, 경제, 공학, 한국학(한류 포함), 한국어 교육 등 70여개 과목

강의언어 영어(과정 완료 시 수료증 및 영문 성적표 발급)

- 장학혜택 (충복불가)**
- 조기등록(수업료 20% 할인/4월 5일 전),
 - 한국학 및 동아시아학 전공자(수업료 20% 할인)
 - 교환학생 협정 체결 대학(수업료 10% 할인)
 - 재등록자, 동문자녀, 형제자매 동반 등록자(수업료 20% 할인)
 - 미주동창회 장학금(SNUAA-USA Scholarship)

2026 하계강좌 세부 일정

4월5일 조기등록 마감

일정	내용
5월 8일	지원신청 마감
5월 13일	비용납부 마감
6월 24일	입학식 (기숙사 체크인(6월 22~23일))
6월 24-25일	오리엔테이션·환영이벤트
7월 22일	수업 종료 및 시험
7월 24일	졸업식 (기숙사 체크아웃(7월 25일))

2026 하계강좌 비용

구 분	금액 (₩)	금액 (\$)	비 고
필수	신청료 200,000	180 → 140	—
	1,200,000	1,080 → 830	1 course (2 credits)
	1,800,000	1,620 → 1,240	1 course (3 credits)
	2,400,000	2,160 → 1,650	2 courses (4 credits)
선택	2,790,000	2,511 → 1,910	2 courses (5 credits)
	3,348,000	3,013 → 2,290	2~3 courses (up to 9 credits)
현장체험	300,000	260 → 210	—
기숙사	1,100,000	900 → 760	Dormitory Lodging (No M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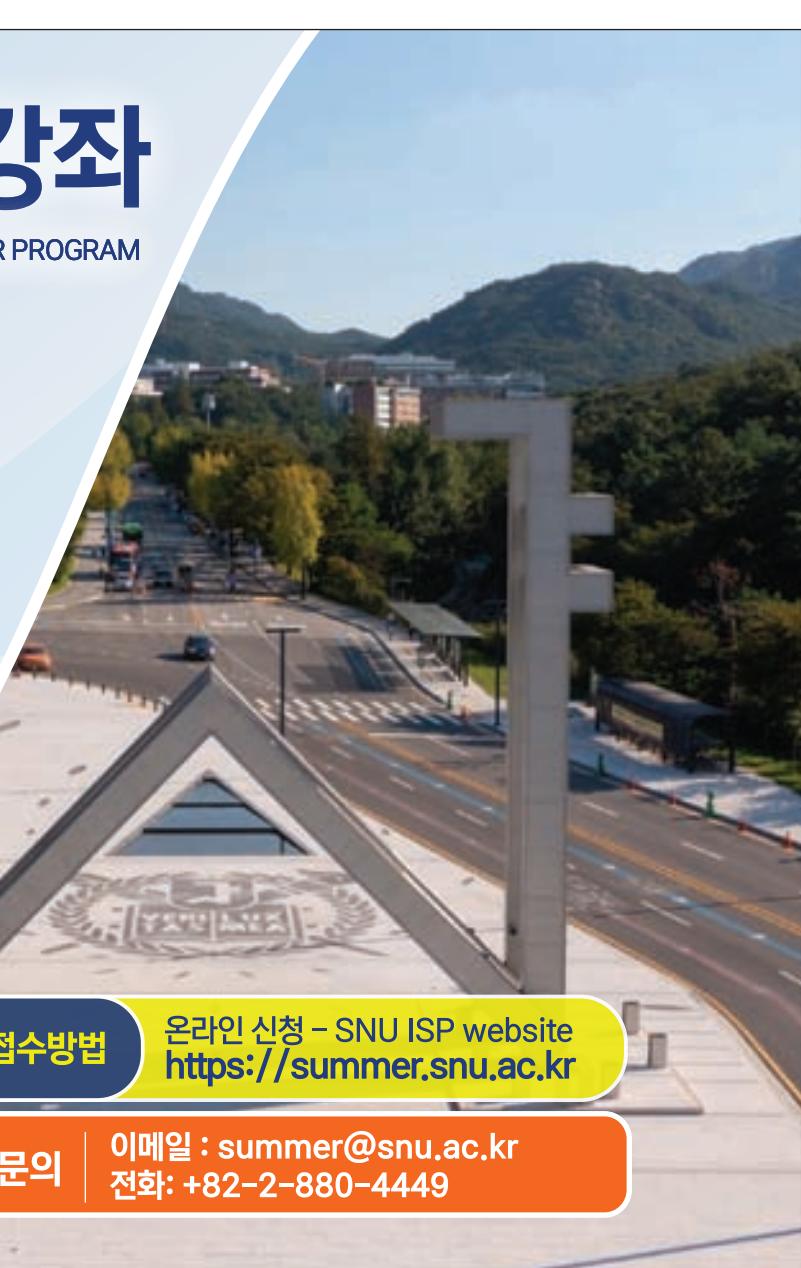
*USD 금액은 참고용으로 비용 납부는 원화금액기준으로 진행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 SNU ISP website
<https://summer.snu.ac.kr>

문의

이메일 : summer@snu.ac.kr
전화: +82-2-880-4449



라치몬트 성매매, 통제 불능 확산

“LA시 대책 없나” 비판 커져
반복적 민원에도 효과 없어
주거지까지 번진 치안 공백
순찰 안 돌아 주민들 자구책

LA의 대표적 부촌 주거지 중 하나인 라치몬트에서 성매매 문제가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지고 있다. 주민들의 반복된 민원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주거 안전을 지켜야 할 LA시 행정의 무능과 미온적 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라치몬트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밤 시간대 주택가 도로와 인도, 공공 벤치, 차량 안에서 성매매 행위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활동은 대부분 오후 10시 이후 시작돼 오전 5~6시까지 이어진다는 증언이 나온다.

현장에는 사용된 콘돔과 체액, 헬흔이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지역 주민 래리는 폭스 11과의 인터뷰에서 “정액이 묻은 콘돔이 길에 그대로 버려져 있고, 피가 묻은 흔적도 봤다”며 “집 앞 벤치에서 성 행위가 벌어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라치몬트 주택가 잔디밭 등에 설치된 경고 표지판.

[포스11캡처]

또 다른 주민 카렌은 등굣길과 일상 생활 전반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학교로 가는 길에 이런 장면을 마주해야 한다”며 “어린 아이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번 사안을 공중보건과 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주택가에서 반복되는 성매매 행위가 일상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 제기는 수개월 전부터 이어져 왔다. 주민들은 시의원실과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성매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

이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성매매 행위와 차량 접근을 막기 위해 집 앞에 ‘감시 카메라 작동 중’과 ‘정차 금지’가 적힌 표지판을 세우는 등 자구책에 나섰다. 행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주민들이 스스로 치안 공백을 메우고 있는 셈이다.

주민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인근 웨스턴 애비뉴 일대를 지목한다. 한 인터뷰를 관통하는 이 도로는 수년간 성매매와 인신매매 문제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LA시는 과거 이 일대에 심야 우회전 금지 조치를 시행했지만, 성매매 문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웨스턴 애비뉴와 한인타운 일대 성매매 논란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2022년 서명한 ‘도두를 위한 안전한 거리법 (SB 357)’ 시행 이후 더욱 거세졌다. 해당 법은 성매매 자체를 합법화하지는 않았지만, 성매매 목적의 길거리 배회를 비범죄화하면서 경찰의 현장 개입 범위를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본지 2025년 12월 17일자 A-2면)

주민들은 이번 사안 역시 웨스턴 애비뉴를 중심으로 형성된 성매매 활동이 인근 주거지역으로 확산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 차원의 대응은 체감되지 않는다는 게 주민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이에 대해 휴고 소토-마르티네즈 LA 시의원은 웨스턴 애비뉴 일대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태스크포스 (TF)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시 검사실과 법 집행 기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단체와 협력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과 장기적 해결책 마련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단속과 순찰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한 주민은 “결국 필요한 것은 순찰”이라며 “리소스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성매매에 연루된 인원 가운데 미성년자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성매매 논란이 주거지역으로까지 확산됐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즉각적인 치안 대응과 시의 정책적 접근 사이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반복되는 민원과 현장의 악화 속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서, LA시 행정 전반의 무능과 책임 회피에 대한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강한길 기자

ICE 피살 여성 머리 관통
부검 결과 최소 3곳 총상

미네소타주에서 이 민단속 요원에게 사살된 미국인 여성이 최소 3발의 총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르네 니콜 굿(37)의 변호인은 사설기관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21일 뉴욕타임스에 전했다.

굿의 시신에는 머리, 팔, 가슴 등 3곳에 상흔이 있었고 이는 종알에 맞았을 때 생기는 상처와 특징이 같았다. 세 발 중 두 발은 목숨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됐으나 머리를 가격한 한 발이 치명상을 입혔다. 해당 총알은 관자놀이 근처 왼쪽 머리를 뚫고 들어가 머리 오른쪽으로 빠져나갔다. 다른 한 발은 오른쪽 가슴을 파고 들었지만 주요 장기를 관통하지 않았고 마지막 한 발은 왼쪽 팔을 때렸다.

굿은 지난 7일 자신의 SUV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과 대화하다가 한 요원의 총격에 숨졌다.

목격자의 동영상을 보면 굿이 현장을 떠나려고 차를 움직이는 순간 차량 왼쪽에 있던 요원이 운전석 창문 너머로 권총을 수차례 격발했다.

미국에서는 이민 단속에 나선 요원이 무장하지 않은 자국민을 근거리에서 죽였다는 사건의 충격성 때문에 항의 시위가 촉발됐다. 시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국정 운영과 맞물려 발생한 참사라는 시각과 함께 전국으로 확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서둘러 굿을 ‘좌파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해당 요원의 총격이 정당방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정치적 편향 우려를 들어 미네소타 주정부를 사건 수사에서 배제해 논란을 부채질했다. ICE는 굿이 자기 승용차로 요원을 치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 진술이나 동영상을 토대로 한 다수 상반된 정황도 제기되고 있다.

미네소타주 당국은 ICE 요원들의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자체 수사에 착수했다. 굿의 변호인들도 공권력 오남용의 증거를 모으겠다며 민간 차원의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미네소타주 헤네핀 카운티에서 이뤄진 당국의 공식 부검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를 안보 위협으로 보고 전례 없이 강경한 단속에 나서면서 논란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인타운에 월드컵 응원 배너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LA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와 올림픽 놀라바드 교차로 모빌 주유소 인근 한인회관 건물 벽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응원 배너가 설치되고 있다. 김상진 기자

기내서 보조배터리 못 쓴다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사
반입 가능, 충전은 금지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사가 화재 사고 방지를 위해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한진그룹 소속 대한항공, 아시아

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26일부터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지 규정에 따르면 보조배터리

의 기내 반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내 반입 규정에 명시된 보조배터리 용량과 개수 제한(100Wh 이하·1인당 최대 5개)을 준수해야 한다. 또 항공기 탑승 전 보조배터리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비닐백·개별 과우치에 보조배터리를 한 개씩 넣어 보관하는 등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기내에 반입한 보조배터리는 승객 본인의 손이 닿는 곳에 직접 휴대하

거나 좌석 앞 주머니 또는 앞 좌석 하단에 보관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대한항공은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는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안내문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탑승구와 기내에서 지속적인 안내 방송을 실시해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림.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571-564-3282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속속 생기는 단속 카메라, 벌금 징수엔 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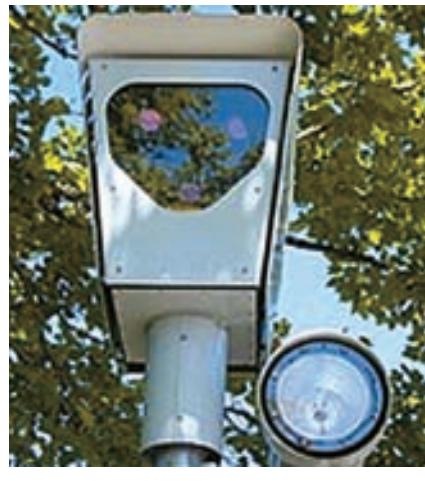
설치된 장비의 정확성 논란
대행업체 발부 방식도 문제

도로 위 무인 단속카메라(사진)에 의해 신호 위반 티켓을 받더라도, 가주에서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CBS뉴스는 최근 남가주 등에 서 증가하고 있는 무인 단속카메라 발급 티켓의 법적 효력을 취재한 결과, 가주 정부나 법원이 티켓 수령자에게 과태료 납부를 강제할 적법적인 제재 수단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LA 등 가주에서는 지난 2023년 제정된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법(AB 645)에 따라 주요 교차로 등 200곳 이상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됐다.

LA시 역시 지난해 9월 무인 단속카



메라 시범 설치 지역 3곳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125대 이상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LA시에 따르면 무인 단속카메라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하면 등

록 주소로 티켓을 발송한다. 벌금은 50~500달러에 이른다. 가주 내 다른 지방정부도 유사한 방식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법이 티켓 발송 뒤 수령자의 대응 또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빠약하다는 점이다.

과태료는 ▶단속 장비 정확성 논란

▶현장 목격자 및 경찰 직접 관여 부재

▶민간 대행업체를 통한 티켓 발부 구조 등이 이의 이유로, 납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돼 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전미자동차운전자협회(NMA)의 제이 비버는 CBS 인터뷰에서 “가주 정부나 법원은 티켓을 받은 사람에게 과태료 납부나 출석을 강제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이에 대한 대응이 없을 경우 사건은 추심업체로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심업체 역시 과태료 미납 사실을 신용평가 기관에 보고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도 CBS 측 질의에 “티켓에 안내된 법원 출석 기한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추심업체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CBS는 무인 단속카메라 티켓 발부가 계속되는 이유로 교통사고 예방 목적과 함께, 상당수 운전자들이 별도의 대응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는 현실을 들었다. 다만 티켓 수령자가 회신서를 제출하거나 이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CBS는 이 시점부터는 지방법원 관

할이 적용돼, 해당 운전자가 법원의 정식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가주는 지방정부가 무인 신호위반 티켓을 형사 위반 아닌 민사 위반(civil violation)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SB 720)을 시행했다. 이 제도를 선택한 지방정부는 위반 사실에 대한 형사 입증 절차 없이 차량 소유주에게 100달러를 부과할 수 있으며, 미납 시 가주세무국 이관이나 차량 등록 갱신 거부 등 행정 제재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무인 단속카메라 티켓의 법적 처리 방식이 지방정부와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티켓 수령 시 안내 내용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형재 기자

이민세관단속국 ‘셀프 영장’으로 주택 수색한다

판사 서명 없이 임의 발부
5세 아동 앞세워 부모 검거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판사 서명 없는 행정영장만으로도 주거지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단속 기조 속에서 미네소타에서는 5세 아동을 비롯해 등·하굣길 학생들까지 잇따라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21일 AP통신이 입수한 ICE 내부 메모에 따르면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에 대해 판사가 아닌 ICE가 발부한 행정영장만으로도 주택 진입과 체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행정영장만으로 주거지에 강제로 진입할 수 없었다.

메모에는 “헌법과 이민법 등에는 행정영장에 근거한 주거 진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지침은 ICE 신임 요원 교육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미네소타주 콜럼비아하이츠에서 ICE요원들이 5세 소년을 앞세워 아버지를 연행하던 중 아이도 함께 구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로이터]

실제 지난 11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ICE 요원들이 소총을 들고 한 주택의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했다. 당시 요원들이 소지한 것은 판사 서명이 없는 행정영장이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법조계는 행정영장만으로 주거 침

입을 허용하는 것은 수정헌법 4조의

핵심을 훼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민자 권리단체와 법률단체들이 수년간 주민들에게 안내해 온 ‘판사의 서명이 없는 영장에는 문을 열 필요가 없다’는 원칙도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단속 강화 방침 속에서 아동

체포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20일 미네소타주 콜럼비아하이츠 지역에서는 5세 남아가 아버지와 함께 연방 요원에 의해 체포돼 텍사스로 이송됐다.

지나스텐비 콜럼비아하이츠 공립학교 교육감은 이 과정에서 아이가 사실상 ‘미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요원들이 아이에게 집 문을 두드리게 해 내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가족은 현재 합법적으로 미국 망명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며, 추방 또는 출국 명령을 받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 교육구에서는 최근 몇 주 사이 등·하굣길의 학생 4명이 연이어 ICE에 체포됐다. 체포자에는 5세, 10세, 17세 학생이 포함됐다.

한편 미네소타에서는 연방 항소법원이 ICE의 시위 진압 행위를 제한한 하급심 결정을 일시 해제했다.

이에 따라 ICE는 시위대에 대한 체포와 최루액 스프레이 사용도 가능해졌다.

강한길 기자

하원 계류 예산법안 통과
상원, 30일까지 처리해야

연방 하원이 2026회계연도 예산법안 처리 마감 시한을 약 일주일 앞두고 계류 중이던 모든 예산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공은 연방 상원으로 넘어갔다.

연방 하원은 22일 본회의를 열고 2026회계연도 예산법안 12개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않았던 마지막 4개 법안을 모두 가결했다. 이 중 3개 법안은 하나님의 패키지로 묶여 표결에 부쳐졌다. 국방부, 교통부, 주택도시개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 주요 연방 부처 예산이 포함됐다.

현재 휴회 중인 상원은 다음 주 복귀해 이날 통과된 예산법안 4개와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예산법안 패키지 2개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상원이 지난해 11월 승인된 임시예산안의 종료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하원에서 넘어온 예산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다시 한 차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김경준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경!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마이클 장

맞춤형 풀인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701 Pender Dr. #16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이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료 체험 기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 마켓 안에 위치)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메가 부동산

문미애

대표 / CEO
Principal Broker

703.534.4989
megarealty@gmail.com

VA, MD, DC

Mega Realty & Investment, Inc.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퀄리티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미국조 을
웨일리노래방
300m
뉴타운총
40m
미국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은 뉴타운총
맞으면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시위대 쓰러뜨린 뒤 5초간 총탄 10여발… 트럼프는 “정당방위”

17일 만에 또… ICE 진압 논란 격화

시위 나선 37세 백인 남성, 총격 사망
국토안보부 “요원 위협에 방어사격”
미네소타 주지사는 “정부가 거짓말”



24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정부의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최루탄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에 반발하는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24일 또다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7일 백인 여성 르네 니콜 굿(37)이 이민단속국(ICE) 요원 속에 맞아 숨진 지 17일 만이다. 연방 법 집행요원의 과잉 단속 논란과 함께 시위대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7세 백인 남성이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유족 인터뷰를 통해 사망자 신원이 미니애폴리스 남부에 거주하는 보훈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라 고 보도했다. 프레티의 부친은 AP통신에 그가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에 분노해 시위에 참여해왔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글을 통해 “이날 오전 국경수비 대원들을 향해 한 사람이 9mm 반자동 권총을 소지한 채 접근했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사망한 남성을 “용의자”로 지칭하며 “대원들이 무장 해제를 시도했지만 무장한 용의자가 격렬하게 저항했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았다고 판단한 요원

이 방어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프레티가 소지했다는 권총 한 자루 사진도 공개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 발표를 놓고 현장 영상 속 정황과 배치된다는 분석이 잇따르며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총격 영상 자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망한 남성은 종이 아닌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며 국토안

보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NYT는 “연방 당국은 프레티가 무장했다고 주장하나 그가 무기를 꺼내는 장면은 없었다”며 “여러 요원들이 프레티와 몸싸움을 벌이다 길바닥에 쓰러뜨리고 제압했으며, 약 8초 만에 한 요원이 ‘그가 총을 갖고 있다’고 외친다. 이는 그가 땅에 쓰러지기 전까지는 무장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고 짚었다.

이후 다른 요원이 자신의 총으로 프레티 등을 겨누고 근거리에서 한 발을 발사했고, 프레티가 쓰러진 뒤에도 계속 총성이 들린다. 총 5초 동안 최소 10발 이상의 총탄이 발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CNN은 “영상 분석 결과, 한 요원이 프레티에게서 총기를 빼앗은 직후 다른 요원들이 그를 치명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프레티가 무기를 휘두르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요원들이 비무장 상태의 프레티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의미다.

팀 월즈 주지사는 사건 직후 국토안보부 발표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프레티 권총 사진을 트루스소셜에 올리고 “장전된 상태에서 발사 준비가 돼 있었는데, 경찰은 왜 ICE 요원들을 보호하지 않았는가”라며 요원의 총격이 정당방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인 민주당 소속 월즈 주지사를 향해 “거만하고 위험하며 오만한 언사로 반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형구 기자

‘영하 40도’ 미국 떨게한 ‘공포의 편지’, 트럼프도 초긴장

(전기요금 고지서)

미국 난방비 평균 8.7% 상승 전망
18개 주 비상사태에 사재기 현상도
중간선거 앞두고 지지율 타격 우려

미국 전역에 최강 한파가 닥쳤다. 극한의 추위에 치솟는 난방비가 11월 중간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 기상청은 24일 서부 및 남부 일부를 제외한 전역에 얼음 폭풍(Ice Storm), 극한 한파(Extreme Cold), 결

빙(Freeze) 등 한파 경보를 발령했다. 미국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인 미네소타주는 한때 수은주가 영하 40도 안팎까지 떨어졌다. 켄 그레이엄 기상청장은 “매우 위험하다”며 약 2억명의 미국인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했다.

연방 정부는 미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에게 외출 자체를 권고했다. 이날 18개 주(州)와 워싱턴 DC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텍사스주에선

얼어붙은 빙방울이 전깃줄을 끊어 5만 5000건의 정전 사고가 접수됐다. 뉴욕 타임스(NYT)는 “큰 눈에 도로 마비를 예상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다. 대형 마트 매대가 텅텅 비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파는 곧 난방비 상승을 뜻한다. 전미에너지지원이사회(NEADA)에 따르면 올겨울 평균 난방비는 1년 전보다 8.7% 오를 전망이다. 가구당 평균 난방비 규모는 941달러(약 140만원)로 예

측했다. 특히 전기로 난방하는 가구 난방비는 같은 기간 최대 14.2% 상승한 1189달러(약 174만원)에 달한다고 내다봤다. 에드 허스 휴스턴대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휘발윳값이나 전기요금이 오를수록 현직이 재선에 불리하다는 것은 정치권의 법칙”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인이 전기요금에 민감한 건 주거 구조와 부과 방식 때문이다. 미국 주택 상당수는 단독주택으로, 냉난방을

전기에 크게 의존한다. 여름·겨울철 전기요금 고지서가 미국 가정에서 ‘공포의 편지’로 불리는 이유다. 또 미국은 연방 정부 차원의 통일된 요금제가 없다. 주 정부와 민간 전력회사가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보니 주별로 요금차가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요금 급등은 급진적 환경주의 때문”이라며 대안으로 화석연료 사용 확대를 제시한다. 다만 다양한 요인이 맞물려 급등한 전기요금을 단기간에 끌어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WSJ은 짚었다.

김기환 기자

매각 시한 하루 남기고… ‘US 틱톡’ 분리독립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둘러싼 미·중 분쟁이 중국 모기업 지분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최종 정리되면서 일단락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한 매각 시한을 하루 앞두고 새 컨소시엄 체제에서 국내 사업을 이어가도록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22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틱톡의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미국내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새 합작법인 출범을 확정했다. 양국 정부 역

시 해당 거래를 승인했다고 한다. 로이터는 “이번 거래는 미국에서 2억 명의 사용자를 갖는 틱톡에 중요한 이정표”라며 “분쟁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20년 8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을 금지하려다 실패한 데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 확장을 견제해왔다. 2024년 4월 제정된 바이트댄스의 이른바 ‘틱톡 금지법’도

트럼프 1기부터 이어진 공방전
바이트댄스 지분 20% 미만 제한
새 합작법인 설립으로 출범 확정
‘미국내 중국 영향력 차단’ 이정표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 틱톡 금지법은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젊은 세대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개인 정보 탈취·해킹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이 소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초 틱톡 금지법이 설정한 매각 시한은 지난해 1월 19일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집행을 수차례 유예해 오는 23일까지로 협상 시간을 벌었다. 중국을 제외한 미국 등 글로벌

자본이 틱톡 미국법인을 사실상 소유하는 게 퇴출보다 더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번 거래는 모든 국가에 단일한 글로벌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는 ‘원 프로덕트’ 시대가 각국 규제 환경에 따라 재편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다.

향후 각 국가가 기술 장벽을 세우면서 ‘인터넷 분할’(스플린터넷, Splinternet)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스플린터넷이란 각국이 자국 내 데이터 주권, 보안, 콘텐트 통제 이슈로 글로벌 앱을 국가별로 분리하는 현상을 말한다.

김민지 변호사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현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외외고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崴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산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치료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 척추사랑

척발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챈들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타일 러웨이/한아일(H-mart)과 철밀리 러웨이에서 각각 5분거리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터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창문
WINDOW
SPECIAL**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센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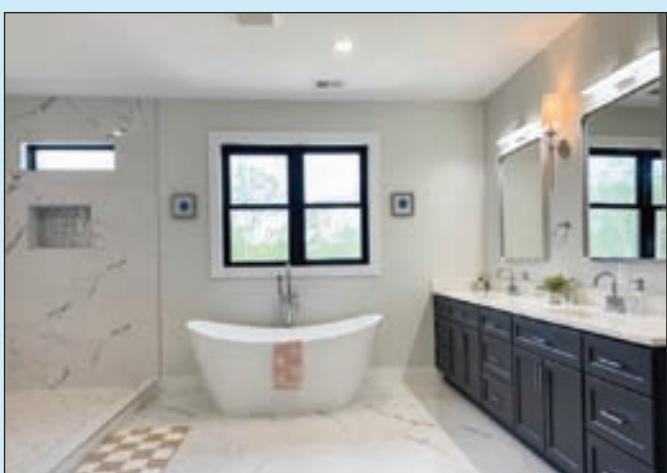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깜짝 발탁’ 28일만에 이혜훈 지명 철회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와대 “국민 눈높이에 부합 안해”
야당 “대통령, 검증 실패 책임져야”

이재명 대통령의 탕평 인사가 결국 국민 눈높이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실패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후보자 지명 28일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 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

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대립하며 인사청문회 자체가 불발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자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공정하다”며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그게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다.

25일 브리핑 직전까지만 해도 여당은 물론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 거취 결정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지난 22일 시작해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지 채 이틀이 지나지 않았고, 여당에서 취합한 의견도 청와대에 전달하기 직전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오전에만 해

도 “26일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되면 보고서를 보고 판단하고,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그만큼 이 후보자 지명 철회는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한 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전날 국민 여론을 여러 경로로 알아본 이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고, 이 후보자에게도 지명 철회 발표 전 알렸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사안이 며칠 더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어렵다면 빨리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그동안 이 후보자에겐 ▶보좌진 갑질·폭언 정황 ▶영종도 땅 투기 의혹 ▶서울 반포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인사청문회 예선 이 같은 의혹이 해명되기는커녕

외려 증폭됐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그 중에 청와대가 가장 민감하게 본 의혹은 반포 아파트 ‘로또 청약’ 당첨 의혹이었다. 가뜩이나 집값 상승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위법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까닭이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당시 두 사람(아들 부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며 “저희는 (아들 부부가)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으나, 여당의 분위기와 국민 여론은 냉랭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부정 청약 의혹 아파트를 포기할 것이라는 질문에 “수사 기관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법에 걸리면 형량과 상관없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탕평 인사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여권에선 “이 후보자가 출신 정당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낙마한 만큼 보수 진영 출신을 추가로 영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홍 수석도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기획처 장관이라는 자리에 한정된 얘기는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검증 실패의 최종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 비서실장 등 인사 검증 라인 전반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최보윤 수석대변인)고 했다.

오현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홍익표 정무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혜훈 장관 후보자.

장관하려다 되레 수사받게 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도마 오른 청와대 검증시스템

야당 “인사 실패, 대통령 사과하라”
여권서도 “의혹 소명 안돼 임명 불가”
국토부 “부정 청약 사실 땐 처벌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는 소식에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준으로 소명되지 못했다”며 “향후 더

욱 엄격하고 공정한 인사 기준의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 지명의 배경에는 국민 통합의 물꼬를 트고자 했던 이 대통령의 진심이 있었다”고 했다. “늦었지만 잘한 결단”이라는 게 여권의 대체적 기류였다. 지난 23~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여권에서 조차 이 후보자 낙마론에 힘을 신는 기류가 뚜렷했던 까닭이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부동산 부정 청약 의혹마저 아들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고 허를 찼다”며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장관직을 수행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도 “국민 정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입시, 갑질 의혹이 모두 나왔다. 청문회에서 거의 소명되지 않아 임명이 어려웠다”고 했다.

지명 철회를 요구했던 조국혁신당도 이날 “지명 철회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견에 맞는 철회를 선택했다. 질한 결단”(박병언 대변인)이라고 논평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인사 실패를 문제 삼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진즉에 지명을 철회했

어야 마땅한 사람을 20일 넘게 끌어온 데 따른 시간 낭비와 국력 소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며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재경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남 탓으로 일관했다”며 “이 대통령도 수준이 이 후보자와 똑같다. 후보자만큼 뻔뻔한 이 대통령과 청와대 아닌가”라는 글을 올렸다.

야권은 그간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 후보자의 서울 반포 아파트 부정 청약 문제에 공세를 집중해 왔다. 이준석 고혁신당 대표는 이날 “천하람 원내대표가 부정 청약 의혹의 핵심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국토교통부 종인으로부터 ‘부정 청약 소

지가 있다’는 답변을 끌어냈다”며 “이재명 정부도 심기일전하고 허술한 인사 검증 체계를 보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지명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니라 수사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18년 만에 새 출발을 알렸던 기획처는 첫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며 상처를 입게 됐다.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주요 현안도 줄줄이 정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편성 지침이나 재정전략회의 등 핵심 실무 준비 과정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 향후 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확정되면 주택법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찬규·강보현·김준영 기자

1. 센터빌 타운	\$650,000
	방3, 화2.5, 치고1 RT 28, 66 교통편리, 전부 업그레이드 <i>Under Contract</i>
2. 애쉬번 타운	SOLD \$660,000
	방 4, 화 3.5, 치고 2, 최고 학군, RT 267/7, 털러스 공항, 전부 리모델링, 새집 깔음

4. 스톤링 타운	SOLD \$645,000
	2014년, 방3, 화2.5, 치고2, RT 50/606, Dulles Airport, RT28
5. 게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너스 Stonewall Golf Club 내 렉서리 싱글
6. 빌더 새집 구매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Sold
	1. Haymarket 55+ Villa \$670,000 방3, 화3.5 치고 2 2. 매니시 2025 새집 \$670,000 방4, 화3.5, 2400sqft, 치고2 3. Bristow 55+ single \$750,000 방4, 화3.5 치고 2

7. 우드브리지 싱글	SOLD \$649,000
	1997년, 방4, 화3.5 치고1, 뒷습, 최고 학군, 전부 리모델링 포토백 블/RT 95, RT1, RT234, 디씨풀 펄리
8. 도미니언 빌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5.5 치고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인로우 스위트, 미니어처, 게임룸, 바포함, 최신 HVAC, 경수 시스템 아와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9. 알디 싱글	\$869,000
	2004년, 방4, 화2.5, 치고2, 전체마루, 굿컨디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 <i>Under Contract</i>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백성호 CPA, MBA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리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애년대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백성호 공인회계사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현지한 위치 (애넌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독점 Burke

싱글홈

방4, 화3½, 2 Car Garage,
집 전체 리모델링, 새 지붕, 새 HVAC 시스템,
새 창문, 새 DECK, 새로 단장한 고급 부엌,
모든 화장실 업데이트

\$975,000



Con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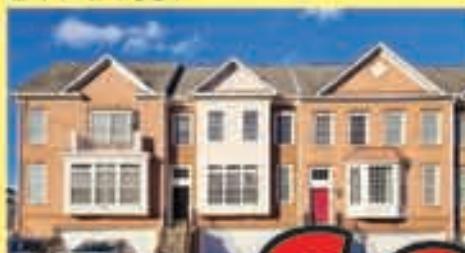
독점

Dumfries

타운홈

2005년 새단지, 2 Car Garage, 방3, 화3½,
Bay Window 2개, 편리한 턱트인 구조,
밝고 환한 집, 새 페인트, 잘 관리된 집,
업데이트한 주방용구

\$469,900



Sold



독점

Centreville 타운홈

방3, 화2½, 새로 단장한 고급 부엌,
Stainless Steel Appliances,
새 페인트, 집 전체 리모델링,
교통 편리

\$510,000



Con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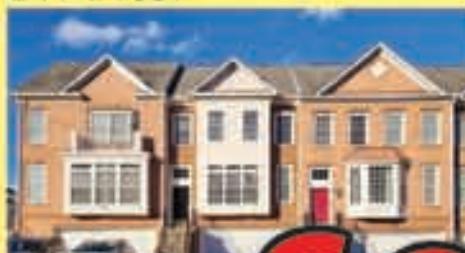
독점

Dumfries

타운홈

2005년 새단지, 2 Car Garage, 방3, 화3½,
Bay Window 2개, 편리한 턱트인 구조,
밝고 환한 집, 새 페인트, 잘 관리된 집,
업데이트한 주방용구

\$469,900



Sold



독점

Springfield 타운홈

방3, 화3½, 1 Car Garage
집 전체 업그레이드, 엔드 유닛,
새 페인트, 새 Deck,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최근 에어컨, 헤팅, 지붕, Appliances 모두 교체

\$699,900



Contract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대통령 “정부 이긴 시장 없다” 시장선 “문 정부 때 실패 정책”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시 강조
집값 대책 효과 없자 직접 등판
이 대통령, 문 정부 땐 유예 주장
전문가 “부동산 정책 일관성 의심
똘똘한 한 채 현상만 가중시킬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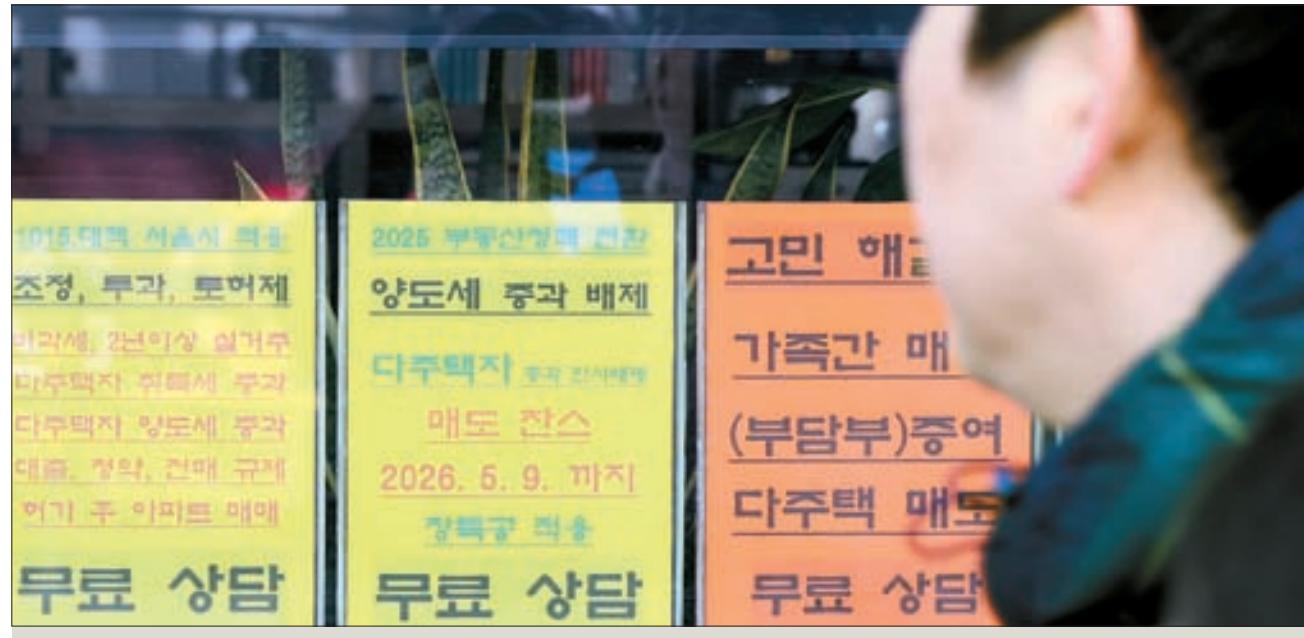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다시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 이 대통령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나온다. 그간 “세제를 시장 안정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지만, 사실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이라는 세제 카드를 꺼내든 셈이라는 평가다.

“팔 사람 이미 다 팔아 초거래절벽 우려”

청와대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계속 유예해 왔다”며 “이렇게 해서 집값이 절대 안 잡힌다. ‘유예는 없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기자회견 때 “부동산 세금 정책은 최후 수단”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아예 고려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그때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유예 기간 만료를 확정 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도 시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 포인트를 가산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자신의 X(아래 캡처)에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해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부동산에 붙은 양도세 중과 상담 안내문.



이재명 @Jaemyung_Lee · 7시간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서 이 같은 세율로 시행하다 윤석열 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 취지로 2022년 5월부터 1년씩 유예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이 대통령이 X에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부활을 공식화했고, 이날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못 밟았다. 지난해 6·27 대책, 9·7 대책, 10·15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이 세 차례 발표된 후에도 집값이 오르자, 이 대통령이 직접 강한 의지를 연거푸 내비친 것이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엔 “오는 5월 9일 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는 방안도 새로 제시했다. 토지거래허가제로 거래 기간이 늘어난 상황에서, 5월 9일까지 100여 일 안에 잔금 청탁까지 치르기가 촉박하다는 현장의 우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

※조정대상지역* 기준, 2026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기간

*양도세 기본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6~45%

보유 수	보유 기간	적용 세율
2주택	2년 미만	60% 기본세율 + 20%p ↗ 큰 세액
	2년 이상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	1년 미만	70% 기본세율 + 30%p ↗ 큰 세액
	2년 미만	60% 기본세율 + 30%p ↗ 큰 세액
	2년 이상	기본세율 + 30%p

‘1월 23일 현재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파주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자료: 국세청

가 제기되자 ‘계약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고 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 날짜 기준은 대금청산일(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시기로 정해지는데, 부

최 또는 특례 조항을 신설해 ‘계약일’을 양도세 과세 기준 날짜로 바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통상 계약부터 잔금까지 걸리는 2~3개월 가량의 시간을 벌게 되면서 매도 기간에 여유가 생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집값 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적이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단기간 급매물 몇 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지만, 이걸 공급 대책이라 부를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매물 잡김 현상이 예상된다”고 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수년간 ‘다주택자=투기꾼’으로 몰아온 터라, 다주택자 숫자 자체가 많지 않고 특히 핵심지는 팔 사람은 다

판 상태”라며 “지금까지 남은 다주택자 입장에선, 순회보면서 매물을 팔 이유 없고 베타거나 증여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 결국 시장은 ‘초거래절벽’ 사태를 맞는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잡겠다며 싸움 건 정책 늘 패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가중할 거라는 분석도 많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 남겨야 한다면, 누구나 상급지의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외곽 물건을 정리할 것”이라며 “무주택자들 역시 향후 집을 구매할 때 최대한 모든 자산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매수 방식이 일반화할 것”이라고 했다.

더구나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과 달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만 시행되고 보수 정부에서 유예 또는 폐지한 정책이라는 20여 년간 선례도 있다. KB부동산 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 때 39.07%, 문재인 정부 때 62.19% 폭등했다. 이명박(-3.16%), 박근혜(10.06%) 정부와 확연한 차이다.

문재인 정부 때 20대 대선(2022년 3월 9일)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청와대와 갈등을 벌인 일도 다시 회자된다. 이 대통령은 2021년 12월 12일 돌연 “다주택자의 매물 잡김 해소를 위해서(일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부동산이 급등하던 시기 성난 민심을 달래고 보수 표심까지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해 유예하겠다. 의명을 원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일관성이 의심된다며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며 싸움 거는 정책은 늘 패배했다. 집값 안정의 확실한 카드는 수요에 맞는 공급뿐”이라고 말했다.

김준영·오현석 기자

중·러 ‘북방외교’ 큰 역할 공로명 별세

초대 소련대사, 외무장관 역임
중국 민항기 납치 사건 해결
92년 한·중 수교 맺거름 마련



한·일 수교와 북방외교 등 지난 60여 년 간 한국 외교사에서 중요한 고비마다 현장을 지킨 공로명(사진) 전 외교부장관이 25일 94세로 별세했다. 고인이

다. 고인은 슬하에 아들들을 둘렀다.
1958년 외무부에 입부한 고인은 입부 직후 주미 대사관과 주일 대사관에

이끌었던 동아시아 재단 관계자는 이날 “오랫동안 병석에 계셨던 공전 장관이 오늘 오후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전했다. 고인은 슬하에 아들들을 둘렀다.
1958년 외무부에 입부한 고인은 입부 직후 주미 대사관과 주일 대사관에

서 근무한 뒤 외무부 동북아과장,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 외무부 아주국장을 지낸 뒤 90년 초대 소련대사로 부임했다. 92년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및 남북고위급회담 대변인을 지낸 뒤 93~94년 주일대사를 역임했으며 94~96년 외무부장관을 지냈다. 고인은 대일 외교와 대중 외교, 대리 외교를 두루 다루며 한국 외교의 중요한 분야를 모두 섭

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평화통일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하는데 그 전 단계는 남북한에 대한 교차승인을 이루는 것이고, 그에 앞서 중·소와 접근을 추진해야 한다”는 그의 정책 제언서가 북방외교의 단초가 됐다. 그는 이후 소련 초대 영사처장을 맡아 1990년 한·소 수교를 이끌었다. 공전 장관은 외교안보연구원장 재직 시절인 1990년대 초반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로서 반기문 부위원장과 함께 북한과 직접 핵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윤지원 기자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2025 A Return
T X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Penn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Periodontal Surgery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Veneer Lumineers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소중한 사람을 위한 선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온 **유파이낸셜그룹**이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유파이낸셜**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선물 1 “내년도 메디케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9월 15일부터 30일 사이에 ANOC 편지를 받으시면
반드시 가지고 저희 회사로 방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내년도 혜택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유파이낸셜이 정성으로 도와드립니다



선물 2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은퇴는 다가오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은퇴계획이 없거나 충분히 성장하지 않죠?
이번에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보세요.
집안과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 이제는 살아서 성장하는 자산으로 바꾸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혜택을 드리는 **유파이낸셜** 그룹입니다.

선물 3 “혹시 모를 사고, 준비되셨나요?”

미국에서 열심히만 살면 될 줄 알았지만 현명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노력해서 모은 것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때 누가 대신 병원비를 내줄까요?
장기간호가 필요할 때 누가 나를 간호해줄까요?
지금 준비하셔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유파이낸셜이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유파이낸셜 그룹

TEL. 703-961-8811

email: info@yoofg.com

5900 Fort Dr. Suite 407, Centreville, VA 20121

4년 전 윤 만난 신천지 근우회장.. “모든 문제 해결해간다”

〈이희자〉

〈신천지 핵심간부들 텔레그램〉

합수본, 윤·이희자 만남 사진 확보
 윤 대선후보 때 이 단골식당서 촬영
 신천지 전 간부 “이만희에 보고”
 합수본, 집단입당 대가 여부 수사
 이희자 측 “윤과 우연히 마주친 것”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신천지 전 간부로부터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이 만난 사진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밀접한 친분이 있던 이 회장이 윤 전 대통령을 만난 걸 계기로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이 본격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2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천지 전 핵심 간부인 A씨는 최근 합수본에 윤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2022년 1월 16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다. 사진이 찍힌 장소는 이 회장이 근우회 모임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주로 방문하는 곳이다. 합수본은 A씨의 노트북도 제출받아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22년 당시 신천지 핵심 간부 간 텔레그램 대화에선 해당 사진과 함께 “(이 회장이) 오늘 잘 만났다고 한다. 회장님이 하나 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대화가 이뤄졌다. 이 회장이 윤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은 이만희 총회장에게도 직접 보고됐다는 게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이 2022년 1월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 근우회는 윤석열 대선캠프와 신천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독자]

합수본 조사를 받은 신천지 전 간부 A씨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당시 서울 마포구에서 윤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성중 당시 서울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한 국민의힘 시당 행사가 있었다”며 “행사가 끝나고 조용한 장소를 찾던 윤 전 대통령 일행과 이 회장이 우연히 마주쳐서 다 같이 찍은 사진을 편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례

적으로 힘을 보태 달라는 정도의 대화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특별한 얘기는 없었던 거로 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를 비롯해 최근 합수본 조사를 받은 전직 신천지 간부들은 “이 회장이 신천지와 국민의힘 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2019년께 이 회장이 신천지에 포섭됐고, 이후부터 신천지는 근우회 행사에 인력을 지원하고 이 회장은 신천지

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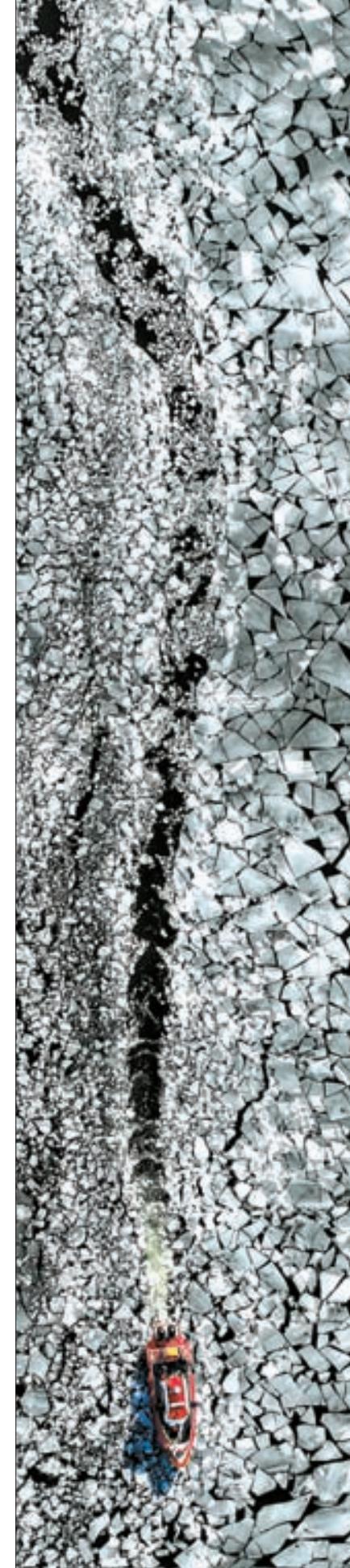
실제 신천지 2인자로 불린 고동안 총회 총무는 다른 신천지 간부와의 통화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이희자 회장을 통해 윤석열 라인도 잡고 가고 싶어 한다”고 언급했다. 2021년 5월엔 “이 회장이 선생님(이만희 총회장)한테 (전직) 대통령들하고 사진 찍은 걸 보여드리고 왔다”고도 말했다. 이 회장은 이 총회장이 구속된 2020년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 선생님(이만희 총회장)의 병보석을 이를 수 있도록 목숨을 걸겠다”고 자필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회장이 윤 전 대통령을 만난 직후인 2022년 1월 28일 고 전 총무는 총회 외교정책본부장으로 임명된다. 외교정책부는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등 외부 활동을 총괄한 조직이다. 2021년 신천지 일부 신도를 대상으로 암암리에 이뤄진 당원 가입은 이때부터 별도 조직을 구성해 본격화했다.

합수본은 이 회장과 윤 전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신천지 당원 가입과 관련한 대화가 이뤄졌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지난주 신천지를 탈퇴한 주요 간부를 대거 불러 신천지 조직 구성과 집단 당원 가입 정황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합수본은 구체적인 당원 가입 규모를 확인하고, 당원 가입을 대가로 신천지 측이 윤 전 대통령 측에 구체적 혜안을 청탁했는지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정진호·조수빈 기자



북극 아닙니다, 한강입니다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며 한파가 이어진 25일 오전 서울 광나루한강공원 선착장 인근에서 119수난구조대가 얼음을 깨며 출동로 확보 작업을 하고 있다. 26일에도 강추위가 이어진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중부 지방과 경북 내륙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강원 내륙·산지는 영하 15도)으로 예년보다 낮다.

“말도 잘 못하는 딸 예뻐했는데, 성폭행이라니 …”

강화군 색동원 피해자 어머니 오열
 딸 23세때 시설 믿고 16년간 보내
 “언론 보도 뒤 알았다, 인간 맞나”

“말도 제대로 못 하는 불쌍한 애잖아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딸한테 너무 미안해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한 40대 여성 이명신(가명)씨의 어머니는 지난 2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중 이같이 말하며 오열했다. 어머니 B씨(62)는 이씨가 23세 때인 2008년 그를 색동원에 보냈다. B씨는 “시설장이 유달리 명신이를 예뻐해 줬다”고 기억했다. 시설을 믿고 친구와 지인들에

게 색동원에 후원금을 보내 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그렇게 16년이 지난 2024년 7월 B씨는 딸을 집으로 데려왔다. 딸과의 생활이 차츰 적응돼 갈 무렵인 지난해 여름, 경찰이 B씨를 찾아왔다. 시설에서 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이후 심층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다”며 “내 새끼를 누가 때리기만 해도 화가 치미는데 성폭행이라니 정말 믿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1일부터 이틀간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이 진행하는 심층조사에 참여했다. ‘인천 강화군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엔 조사에 참여한 여성 장애인 19명 모두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과 더불어 시설 관계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이 담겼다. 이씨는 A씨가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폭행하거나 직원이 폭행했다는 내용을 조사 과정에서 연구팀에 알렸다.

그러나 강화군이 보고서를 비공개

하면서 어머니는 딸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최근까지 모르고 있었다. B씨는 “언론 보도가 나고서야 알았다”며 “말도 못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불쌍한 애들을 상대로 그런 짓을 하는 게 인간이 맞나”고 울분을 토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10년간 색동원을 떠난 장애인은 총 35명(남자 19명, 여자 16명)이다. 퇴소자 중 2명은 사망했으며, 나머지는 가정에 복귀하거나 다른 시설

로 옮겨졌다.

이번 심층조사에 참여한 퇴소자는 이씨를 포함해 2명뿐이다. 장종인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시설 직원들이 범행을 묵인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있는 만큼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보건복지부가 퇴소자까지 포함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색동원 사건 TF’를 구성하고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번 달 안으로 마친다는 계획이다.

변민철 기자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 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www.hyebanmd.com

KOREAN BBQ

HYEBAN



한국식 BBQ 구이 전통 한식



한식의 품격

4명의 셰프가 빚어낸
정통의 맛을 전합니다.

깊이 있는 정통 한식의 맛!!



정통 한식 구이의 불맛과
신선함이 만나는 곳,
엘리콧시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혜반(HYEBAN)”에서
완벽한 점심을 즐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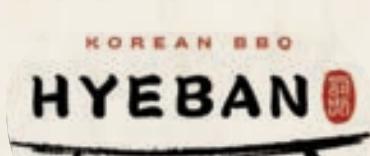
월, 화, 목, 일
수요일
금, 토

오전 11시 ~ 오후 10시
정기 휴무 / CLOSED
오전 11시 ~ 오후 11시

즉석 칼국수 신메뉴 출시!

Weekly Special

따뜻한 즉석 칼국수와 깊은 맛의 닭볶음탕
런치 뷔페에서 만나요.~



443.420.3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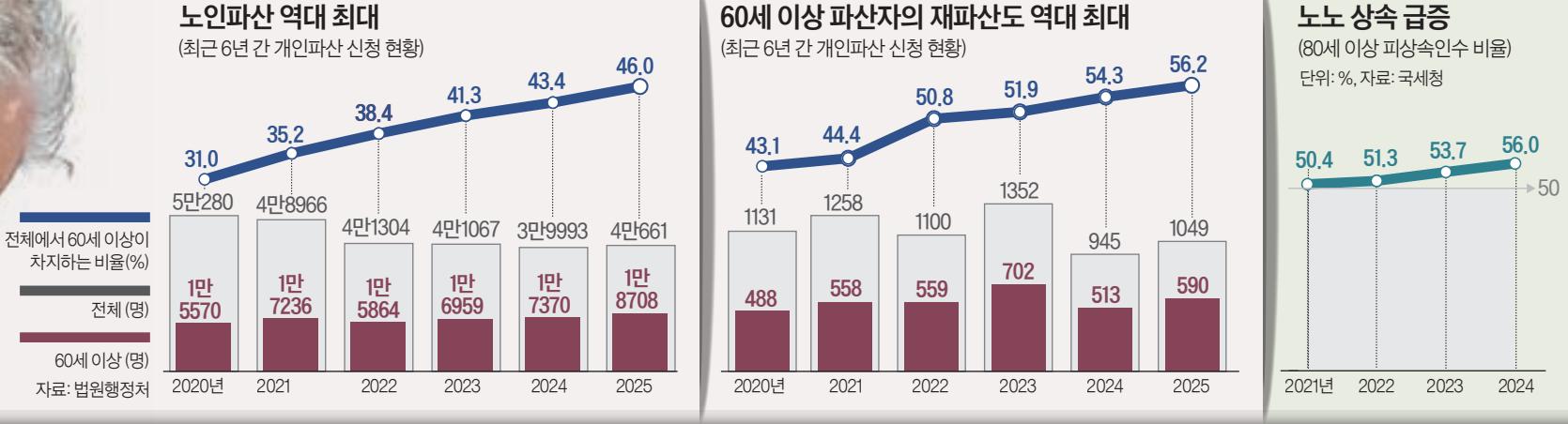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구 인

홀 서버 (Hall Server)

대한민국 ‘빛’도 ‘돈’도 늘어간다



‘망하면 재기 불가’ 파산신청 절반이 어르신 (60세 이상)

경기도에 사는 A씨(67·남)는 최근 개인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의 한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그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왔는데 지난해 11월 폐업하면서 냉장고 일자리를 잃었다. 월급 160만원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 조금씩 대출을 받아 보니 어느새 쌓인 빚은 원금 만 5000만원, 나이 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못 구하니 이자조차 감당하기 버거워졌고, 결국 파산을 택했다.

고령화·저성장에 ‘노인 파산’이 심화하고 있다. 2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파산 신청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46%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다. 파산 신청 한 2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이라는 얘기다. 노인 파산은 2020년 31%에서 35.2→38.4→41.3→43.4→4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파산 신청자 4만661명을 연령별로 나눠 보면 60대가 1만3231명으로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도 5477명으로 처음 5000명을 넘어섰다. 파산을 하면 면책 결정을 통해 빚의 높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재산이 압류되고 파산해도 국민연금 등은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월 185만 원까지 전용 통장(국민연금 안심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령일수록 재기는 어렵다. 과

35→38→41→43→46% 매년 급증
새 일 구하기 어려워 이자도 못내
“고령층 일자리·정년연장 논의를”

거 개인파산·면책 신청 후 다시 파산 신청을 하는 60세 이상 비중도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2020년 43.1%에서 지난해 56.2%로 5년 새 13.1%포인트 급증했다. 처음으로 90세 이상인 재파산 신청자도 1명 생겨났다.

이런 추세는 갈수록 심화할 전망이다. 김영룡 파산전문 법무사는 “평균 수명이 늘면서 일자리에서 밀려난 후 퇴직금 등으로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해 빚만 남아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이 가장 늙은 나아까지,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층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까지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 ‘기초연금 확대’식의 뺨질식 처방론은 한계가 있다.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생산적 정년 연장 논의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한국은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있어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힘든 경향이 더 심하다”며 “고령층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김경희 기자

상속의 56%가 ‘노노상속’…돈이 안 돈다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며 80~90대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역시 고령층에 속하는 자녀에게 상속하는 ‘노노(老老) 상속’ 규모가 급격히 늘었다. 소비가 활발한 젊은층으로 자산이 넘어가지 않고, 고령층에 머물며 돈이 돌지 않는 ‘자산 잡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속세 부과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의 나이가 80세 이상인 경우는 1만1875건으로 전체의 56%에 달했다. 이들이 물려준 상속재산은 24조4966억원으로 전체 상속재산액(44조4151억원)의 55.2% 수준이었다. 전년 대비 4조원 이상 증가했다.

피상속인이 80세 이상이면 주로 자녀인 상속인도 60세 전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파른 고령화로 사망자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상속 시점에 상속인도 노인에 속하는 ‘노노 상속’이 급증하고 있다는 의미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과거 젊은 세대로 상속 자산이 이전되던 때엔 신규 사업 등으로 활발히 재투자됐지만 고령자에게서 또 다른 고령자에게 이전되면 자산의 운용 성향도 보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회 전체의 부(富)가 젊은 세대에게 넘어가지

않고 상대적으로 소비가 활발하지 않은 고령층에 머물며 자산이 잡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자산 양극화와 소비 위축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59세인 A씨는 최근 85세 모친이 사망한 뒤 서울 소재 25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8억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여윳돈은 없었다. 결국 A씨는 거주하던 경기도 광명 아파트를 팔아 상속세를 내고, 상속받은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기로 했다.

한국은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상속자산 역시 유동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80세 이상 피상속인(사망자)

90대가 60대에 상속, 대부분 부동산
소비 위축·자산 양극화 심화 요인
“부담 큰 상속·증여세 제도 개선을”

이 물려준 상속재산 24조4966억원 중 10조8535억원이 아파트 등 건물이었다. 전체 상속재산의 3분의 2가 부동산이었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20%대에 올라선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36년 30.9%, 2050년 40.1%로 빠르게 증가한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노노 상속 규모 역시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 의원은 “상속·증여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부동산 세금 결국 꺼냈다

이재명표 부동산 세제의 윤곽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5월 9일이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밟았다. 23일 소셜미디어인 X를 통해서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부과하는 세금(양도세)이 올해 5월부터는 크게 오른다는 의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노무

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됐고 이후 중단되기도 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 강화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2022년 5월부터 유예 해 왔다. 이제명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 집값을 낮추기 위해 극약 처방을 내놓은 거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

라며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똘똘한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직접 살지 않는다면 무거운 세금이 매겨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주택 양도세 정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손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

면해주는 건 이상하다”며 “장특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 고 적었다. 집이 한 채고 보유·거주 기간이 길면 고가 아파트라도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이 제도가 오히려 ‘매물 잡김’과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 쏠림’을 불러일으킨다는 판단이 깔렸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헤해야 할 주제”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시장은 이미 술렁이고 있다.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

실무진도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에 관한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밝힌 만큼 정부도 여론을 살피면서 세제 개편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장특공제는 설계가 복잡하고, 무엇보다 시장 상황을 바꾸며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거주가 아니라면 투기”라는 이 대통령의 시각을 고려하면 장특공제 조정은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김경희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1961년생 메디케어 가입 상담 및 신청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정문기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에
먼저든지
전화 주세요.
집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한방에
속 시원히 답해드립니다.
집 미쁘게 수리하여
풀아드립니다.



비키리 부동산

전화 703-231-5572

메릴랜드, 디씨 임대 주택 면허,

주택검사 대행해 드립니다.

임대주택 관리, 귀중한 재산을 보호해 드립니다.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20년 연속 다이아몬드클럽 멤버

메릴랜드 주택 납 성분 검사 인스펙터



앤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독단적 합당 반대”…최고위원도, 초선도 정청래 때렸다

반청 최고위원 3인, 공식사과 요구
정청래 “충분히 공유 못해 송구”
친청 “선거 압승위한 결단” 두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틀째 몰아치고 있다.

이언주·황명선·강득구 등 반청(반정 청래) 성향 민주당 최고위원 3인은 23 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정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에 대해 “말로는 당 원 주권을 말하지만, 당 대표 마음대로 당의 운명을 결정해 놓고 당원들에게 O·X만 선택하라는 게 정청래식 당원 주권 정당의 모습이니. 민주적 당 운명 이 아니다.

당 대표의 명백한 윤리이며 직권남 용”이라고 주장하면서다. 이재명 대통 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정 대표 측의 설 명에 대해서도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 다.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충북 진천에 서 열린 협정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



황명선·이언주·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왼쪽부터)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현동 기자

했다.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역 시 이날 긴급 오찬 회동을 하고 합당 문제를 논의했다. 이들은 회동 직후 성명 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없는 독단적 합당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상언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3 당 합당”을 통해 거대 여당 ‘민주자유

당’이 탄생했다.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썼다.

과 의원의 장인인 노무현 전 대통령 이 과거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 주공화당의 3당 합당을 비판한 걸 떠 올리게 했다. 정 대표를 향한 비판이 확산하자 친청(친정청래) 의원들은 “정 대표의 방향성 제시가 매우 적절

했다”(이성윤 최고위원)거나 “지방선 거 압승을 위한 양당 대표의 정치적 결 단”(한민수 의원)이라며 엄호했다. 방 송인 김어준씨도 “아래로부터 중지를 모으는 방식으로는 이해당사자들의 물려설 수 없는 전장이 되기에 심상이다. 진도가 안나간다”고 했다.

온라인 공간의 지지층도 친청·반청 으로 양분된 양상이다. 김씨가 운영하는 딘지일보 게시판엔 합당 제안을 긍정 평가하는 글이 다수였다. 반면 신(新)이재명계 지지층이 모인 디시인사 이드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에선 비판론이 분출했다.

지도부 내 갈등이 공개 충돌 양상으

로 번지자 정 대표는 “여러 불가성과 물리적 한계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일각서 제기되는 자신의 대 표 연임을 위한 것이란 주장에는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당원의 이익으로 작동해야 한다. 전 당원 투표에 서 가결되면 가는 것이고, 부결되면 멈추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안팎에선 정 대표가 리더십

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 합당을 제안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더욱이 조국 조

국혁신당 대표가 입당할 경우 두 사람 이 옛 친문(친문재인)계 지지층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 대표가 ‘통합 대표’라는 상징성과 ‘지방선거 승리’라는 전리품을 얻어 연임 도전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라거나, 친명 우위 체제의 당내 저변에 변화를 주려는 시도란 시각이 있다. 수도권 의원은 “혁신당은 민주당보다 선명성이 강하다. 이는 정 대표 입장에서 본인의 지지 기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 통합이 더 어려워지는 만큼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광주시민단체 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어제(22일) 제안이 있었고 양당 모두 공적 절차를 거쳐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썸을 타자고 한 제안인데, 벌써 결혼해서 출산하는 상황까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며칠 전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우상호 전 의원은 “(합당) 준비하기보다는 합당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논의는 물밑에서 수개월간 진행돼 왔다”고 했다.

한영익 기자

장동혁 단식에도 국민의힘 지지율 22%…당대표 취임 후 최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 계이 트 및 공천 뇌물 특검, 이른바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8일간 단식 농성을 벌 었지만 당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 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말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은 쌍특 검 수용을 위한 대국민 호소 투쟁을 진행한다”며 “정치개혁의 시작은 쌍특검이고, 쌍특검의 또 다른 이름은 겸은돈 척결 특검, 정치개혁 특검”이라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국

민 여러분과 다시 투쟁을 시작한다”며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천만 서명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썼다. 장 대표의 투쟁 수위를 낮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 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 한 1월 4주차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2%로 지난해 8월 장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2%포인트 상승한 43%를 기록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지지

율(44%)이 국민의힘 지지율(13%)의 세 배였다. 전통적 지지기반인 대구·경 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의 절반 이하였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본격화 하는 국면에서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 갇히자 국민의힘의 위기감은 커지는 분위기다. 장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 국면이 여전히 현재 진 행형인 것도 악재로 꼽힌

6·3지방선거가 끝난 뒤에야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로 풀 이된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정 연연장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 었다. 이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다양 한 계층의 의견을 더 폭넓게 듣기 위해 약 6개월 정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청년 일자리가 줄 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입법 지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이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국노총

냐”란 글을 올렸다. 소통 플랫폼 ‘한컷’에 “24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리는 한동훈 징계 철회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에도 “고맙습니다” “힘내시죠” 등의 댓글을 달았다. 친한 계 인사는 “한 전 대표가 집회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지지자를 응원하는 의미”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제명을 하든 말든 뭔가가 빨리 결론이 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지도부 인사는 “내홍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외부 연대가 가능 하겠느냐”고 했다.

양수민 기자

민주당 ‘65세 정년연장’ 입법,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정년 논의’ 6개월 더 연장하기로 노동계 “무책임한 시간끌기” 반발 65세 정년연장(계속고용) 논의를 둘러싸고 여당이 6·3 지방선거 이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은 23일 열린 정년연장 특별위

원회 제2차 본위원회에서 항후 특위 운영 및 입법 계획을 제시했다.

여당의 로드맵은 ▶2026년 정년연장 특위 재편 및 논의 기간 연장(1~6월) ▶산업별 노사 간담회와 해외 사례 연구 토론회 등 다종적 공론화(2~5월) ▶정년연장 방안 집중 논의 및 법안 마련 (6월 이후) 등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청년 일자리가 줄 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입법 지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이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국노총

은 “무책임한 시간끌기”라며 “1~2개월 안에 집중 논의를 하면 지방선거 이전에도 입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명확한 입법 시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끄는 것은 기만”이라며 올해 상반기 내 입법을 요구 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특위에는 계속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노동계와의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재홍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6년 over 120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378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 Laser and Surger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홍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인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셔니스트/데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Participant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의)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1
Columbia, MD 21045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럭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1
Columbia, MD 21045

다카이치 16일간 초단기 전투... 희망은 자민당 단독과반

23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총리의 해산 결정에 따라 중의원(衆議院)이 해산됐다. 투개표일은 다음 달 8일이다. 해산부터 총선까지 16일로, 종전 이후 최단 기간이다.

1947년 시행된 일본 헌법에서는 총리에게 중의원 해산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세를 지켜보다가 언제든 해산할 수 있기 때문에 총리가 가진 가장 막강한 권력이지만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책임을 추궁당하는 ‘양날의 검’이다. 총리로선 최적의 해산 타이밍을 잡는게 중요하다. 의원 평균 재직 일수는 1022일(2년8개월, 임기는 4년)이다. 그래서 2년째로 접어들면 나가타조(永田町) 일본총리 관저와 국회 등이 있는 정치 중심지에서는 “언제 해산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긴장감이 고조된다.

23일 중의원 해산, 투개표는 내달 8일 이번엔 좀 빠르다. 현재의 중의원은 2024년 10월 27일부터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연내 해산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긴 했다. 그런 와중에 총리의 해산 방침이 9일 밤,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로 알려졌다. 이후 선거는 불과 한 달 만에 치른다. ‘조단기 결전’이다. 이번 중의원 재직 일수는 불과 454일. ‘내각 불신임 결의안 가결’에 따른 해산을 제외하면 이 또한 최단 기간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재 선거의 ‘은인’ 아소 다로 전 총리에게도 사전에 알리지 않았을 정도로, 극소수의 측근과 상의해 결정했다고 한다. ‘상재전장(常在戰場, 항상 전장에 있음)’에 익숙한 의원들도 동요를 감추지 못한 채 선거전에 돌입했다.

여기에 불과 3개월 전까지 자민당과 26년간 연립 여당을 구성했던 공명당이 야당 제1당인 입헌민주당과 신당 ‘중도개혁연합’을 22일 결성하기로 발표하는 등 다카이치 총리의 결정은 일본 정계에 격렬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번만큼 예측이 어려운 선거는 없다”고 입을 모을 정도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기자회견에 서 “여당으로 과반수를 목표로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결과에 대해 총리로서의 진퇴를 걸겠다”고 했다. 현재 자민당은 196석, 공동 여권을 구성한 일본유신회는 34석이다. 여기에 자민당에 협력하는 무소속 3석으로 범여가 과반(전체 465석 중 233석)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다카이치 총리가 ‘현상 유지’라는 무난한 목표를 설정한 듯 보일 수 있다.

멘토 아소 전 총리에도 ‘해산’ 안 알려
37석 더 늘려 국회 주도권 탈환 압심

지지율 67%로 높지만, 무당파 37%
중도개혁연합 신당 파괴력도 변수

정계에선 그러나 도전적 목표도 거론된다. 나카키타 코지(中北浩爾) 주오 대 교수는 “실제 승패 라인은 자민당의 단독과반”이라며 “그렇게 되면 다카이치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은 것이 된다.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자민당은 37석을 늘려야 한다. 중의원에서 단독과반을 하더라도 참의원에서는 여전히 과반 미달인 상태다. 이에 대해 나카키타 교수는 “(중의원에서 단독과반에 성공하면) 여론에 민감한 국민민주당도 다카이치 정권에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민주당의 협력을 얻으면 참의원에서도 과반수가 되므로 안정적인 정권 운영이 가능해진다. 나카키타 교수는 “내년 봄 지방선거까지 잘 넘기면 5년 정도 이어갈 장기 정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5년 반을 집권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도, 7년 8개월을 기록한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선거에서 계속 압승했었다.

현실적 목표도 있다. 여권이 모든 국회 상임위에서 위원장 자리를 독점하는 안정 다수(243석)다. 자민당은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패배로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중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에 빼앗겼다. 여당이 위원장이면 총리에게 리스크를 지우지 않기 위해 각료에게 답변을 요구하지만, 야당이 위원장을 잡으면 각료가 아니라 총리에게 답변을 요구한다.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상황도 그랬다. 야당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위원장이 답변을 요구하자 영겁결에 뒤어나온 ‘실언’이었다는 게 다카이치 총리의 비공식 해명이라고 한다. 해산을 서두른 이유에는 위원장 탈환도 있다 고 여겨진다.

다카이치의 승부수를 통할지는 결국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에 달렸다. 아사히신문이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각 지지율은 6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 자민당 정당 지지율은 29%에 머물렀다. ‘지지하는 정당 없다’는 37%로 가장 많았다. 무당파의 동향이 열쇠를 쥐고 있다. 요시다 도루(吉田徹) 도시사대 교수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세습도 아니라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총리가 23일 자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다카이치의 결정으로 중의원이 해산됐다.

[로이터=연합뉴스]

신선함이 호감을 사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고물가 대책에 대해 ‘책임 있는 적극 재정’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주가도 오르고 있다. 아직 실적은 없지만 무당파층은 이길 것 같은 쪽에 편승하려는 경향(밴드워건 효과)이 있다”고 말했다. 향후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 승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비교적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도 플러스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자민과 유신으로 과반 의석을 얻으면 다카이치 총리, 그렇지 않으면 노다(요시히코) 총리나 다른 분이 된다”고 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이례적인 호소였다. 공명당과 ‘중도개혁연합’ 신당을 만든 입헌민주당의 대표는 노다 전 총리였다. 과거 민주당 정권은 오키나와 미군 후텐마 비행장 이설 문제를 둘러싸고 미·일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든 적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민주당 출신들이 만든 입헌민주당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깊다.

하지만 불리한 요인도 있다. 우선

북일본이나 호쿠리쿠 등 폭설 지대에서는 선거 준비가 늦어지거나 투표하려 가기 어렵다는 점 등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대학 입시가 한창이라 선거 유세차에 의한 후보자 연호 등은 수험생에게 피해를 준다는 목소리도 있다.

‘중도개혁연합’ 신당의 파괴력도 변수다. 중의원에서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에 소속돼 있던 거의 모든 의원이 신당에 합류했다. 입후보자는 이미 227명에 달했다. 자민·공명연립 정권 시절에는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 후보를 공명당이 지원하는 대신, 비례대표는 자민당이 공명당을 지원하는 선거 협력을 했었다. 공명당의 모체인 창가학회는 선거구 당 1만~2만 표를 동원할 정도로 강력한 조직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소한 차이로 입헌민주당 후보자에게 이겨온 자민당 의원들에게 공명당의 이탈이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 급부상한 국민민주당이나 참

나카키타 교수는 “의석이 현상 유지 정도에 머물 경우 다카이치 정권은 지속되겠지만 총리의 구심력은 저하되고, 자민당 내 불만이 일거에 분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권이 과반을 밟을 경우엔 다카이치 총리가 사임하고 총재 선거를 거쳐 국회에서 새 총리를 선출하게 될 것이다. 신당이 악진할 경우엔 정권 교체 가능성도 있다.

나카키타·요시다 두 교수 모두 “어떤 선거 결과가 나와도 외교 정책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요시다 교수는 “대중 관계는 지극히 신중해지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중요성이 커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정권 교체가 돼도 여론은 양호한 한·일 관계 유지를 바라고 있어 큰 변화는 없다는 이야기다.

다만 자민당이 승리할 경우 ‘여론의 지지율을 얻었다’는 명분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국정 주도력을 높일 수 있다. 나카키타 교수는 “대미, 대중 관계를 고려해 당분간은 없겠지만, 언젠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요시다 교수는 “외교안보 정책은 현상 노선을 유지하는 대신, 내정에서 보수색 짙은 정책을 내세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외국인 정책 등을 한층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지지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클릭’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오누키 도모코 도쿄 특파원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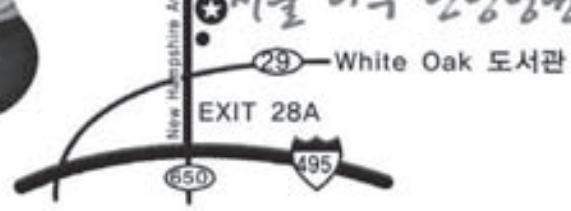
서울 미국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 임상경력 50년
- * 각종 보험 취급
- * VA, MD, DC 면허 소지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히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w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 예촌 앞 빌딩 3층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 (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쇼설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 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챔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우리말 바루기

'장꾸미' 와 '잔망미'

최근 들어 부쩍 많이 보는 용어가 '장꾸미'다. 무슨 뜻일까?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장꾸미 가득" "장꾸미 폭발" "장꾸미 넘친다" 등처럼 사용된다. 주로 연예인의 행동을 묘사하거나 야기 또는 강아지 등의 모습을 나타낼 때 쓰이는 신조어다. 무언가 감은 잡힐 듯하지만 정확하게 의미가 와닿지는 않는다.

알고 보면 별 대단한 말은 아니다. '장꾸미'는 '장난꾸러기'의 줄임말이고 '미'는 아름다움을 뜻하는 '미(美)' 자다. 여기에서의 '미'는 매력이나 끌림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내적으로 퀘감을 주는 감성적 무엇을 가리킨다. 그래서 '장꾸미'는 꾸밈없고 자유스러운 장난끼가 주는 매력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다. 더불어 '잔망미'도 요즘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용어다. '장꾸미'와 달리 '잔망미'는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여기에서의 '미'도 앞서 얘기한 '미'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잔망'이 생소한데 사실 이는 '장꾸'처럼 억지스러운 줄임말도 아니고 사전에 올라 있는 표준어다.

'잔망'은 알립도록 맹랑함 또는 그런 짓을 가리키는 말이다. "잔망을 떤다" "잔망을 부린다" "잔망스럽다" 등처럼 쓰인다. 언뜻 보면 그 사람의 속성을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말인 듯하지만 국립국어원은 딱히 그렇지도 않다고 해석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w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①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알벗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쇠귀(牛耳) 신영복(1941-2016) 선생으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배웠다. 물론 직접 모시고 배운 것은 아니고 책을 통해 얻은 가르침들이지만, 마음의 스승으로 모시고 즐겁게 공부했다.

동서고금의 고전을 넘나드는 그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가르침들은 은근하게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닌 향기롭게 농익은 삶의 지혜들…

신영복 선생의 10주기를 맞으며 선생의 책들을 찾아 다시 읽었다. 첫 책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부터 '마지막 강의'라는 부제가 달린 <남론>까지. 전에 읽으면서 밑줄을 그었던 문장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 시대의 스승' '평화와 공존의 참 의미 전달한 지식인' 등의 칭송을 새삼 실감했다. 선생의 책들은 읽고 또 읽어야 하는, 읽을 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는 참 선비의 글이다.

선생께서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완고한 인식들을 망치로 깨뜨리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며,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 가슴에서 발까지 가는 여행"이 공부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신영복 사상의 핵심은 쇠귀체, 민중체 등으로 불리는 붓글씨 작품에 잘 묘약되어 있다. 처음처럼, 손잡고 더불어, 여렷이 함께 가면 험한 길도 즐겁다, 돋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누구나 꽃, 더불어, 숲,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나리, 씨 과일은 먹지 않는다는 석과불식(碩果不食) 등 아름답고 깊은 울림을 가진 말씀들…

신영복 선생의 많은 가르침 중 내가 개인적으로 특히 마음에 새긴 것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 아름다움(美)에 대한 해석, 변방에 대한 이해 등이다.

선생께서는 통일(統一)보다 먼저 통일(通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자의 화동(和同) 담론을 한반도 통일론에 적용한 말씀이다.

"정치적 통일(統一)이 아니라 평화 정착과 교류협력을 통해 남과 북이 폭넓게 소통하고 함께 변화하는 화화(和化)로서의 통일(通一)이 돼야 한다." 억지로 하나가 되기보다 통일(通一)에서 통일(統一)로 가는 과정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것은 한민족만의 과제가 아니라 "21세기의 문명사적 과제"라고 했다. 이 말씀을 읽으며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미술 이론을 공부하는 나에게 아름다움에 대한 신영복 선생의 해석은 새로운 안목을 열어 주었다. 美라는 글자를 풀어보면 양(羊)이 크다(大)는 말이 된다. 양을 중요한 양식으로 삼는 유

목민들에게 양이 큰 것은 곧 아름다움이라는 설명이다. 삶과 아름다움의 관계를 아주 적확하게 일러주는 말씀이며, 삶과 동떨어져 혼자 우쭐대는 예술에 대한 경종이기도 하다.

신영복 선생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변방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실제로 한국의 변방을 찾아다니고 <변방을 찾아서>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문명은 늘 벼려진 땅 변방에서 일어나 꽂 피웠다는 성찰이다. 중심부는 기존의 가치를 지키는 보루일 뿐이지만, 변방은 늘 새롭게 열릴 가능성으로 가득한 역동의 땅이라는 가르침이다. 디아스포라의 가능성과 저력에 주목하는 가르침으로 읽을 수도 있다.

오늘날 한국의 모든 것이 K자를 달고 세계 구석구석으로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신영복 선생의 변방 사랑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제 나라를 떠나 남의 나라 한 귀퉁이 변방에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해외동포인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준다.

미국의 한인사회는 그동안 변두리 변방으로 푸대접받아 왔지만, 실은 세계무대를 향한 가장 앞자리에 있는 '전진기지'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자각과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때다. 그 큰 책무를 제대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매우 의문스럽지만…

이야침에

은빛으로 나를 세우다



엄영아
수필가

가슴이 서늘했다. 골밀도가 심하게 낮아졌다는 의사의 진단은 내 몸의 뼈가 성장이 멈춰버렸다는 경고였다. 자칫하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났다. 무엇을 먹으면 좋겠느냐는 나의 물음에 의사의 웃으며 '멸치 많이'라고 답했다. 익히 알고 있던 정답이었음에도 나는 의사의 처방을 듣고 돌아오며 열심히 먹어야겠다고 결심했다. 텅 빈 내 안을 채울 것이 이토록 작고 반짝이는 존재들이라니 웬지 모를 위안이 느껴졌다.

고추장에 찍어 먹을 생각으로 멸치를 볶았다. 열기에 몸을 달구며 내뿜는 고소한 향이 마늘과 청양고추의 알싸함과 어우러져 금세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갓 지은 밥 한 그릇이 순식간에 비워진다.

멸치의 눈과 마주치는 것조차 무서워 물먹이던 어린 날의 내가 문득 떠올랐다. 죽은 생명이 불쌍하여 젖가락을 내려놓던 그 여린 마음은 어느덧 사라지고, 이제 나는 나의 뼈를 세우기 위해 그들의 뼈를 빌리는 생의 엄숙한 순환 앞에 있다.

한 줌의 멸치를 가만히 들여다본다. 이 작은 몸

하나에도 세월의 무늬가 스며 있다. 먼 바다에서 길어 올린 눈부신 햇살과 거친 파도, 그물에서 멸치를 털어내던 일꾼들의 투박한 손마다가이 은빛 바늘 속에 춤출히 박혀 있다. 멸치는 비룩 작고 여리지만, 제 몸을 부수어 타인의 생을 단단하게 지탱해 주는 넉넉한 삶의 철학을 품고 있는 것이다.

어린 시절 엄마를 따라간 외가는 바다 냄새가 갓바람에 실려 오는 곳이었다. 장을 봐 오신 할머니와 친모의 밀걸음이 부엌과 광을 분주하게 드나들면, 소쿠리 속에는 시래기, 양은 바가지 속에는 은빛 멸치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물 밖으로 나와서도 한동안 파닥거리며 물비늘을 헐날리던 그것들은 바다의 윤슬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눈

부셨다. 할머니는 뜬배추를 말려 만든 시래기를 냄비 바닥에 넉넉히 깔고, 그 위에 멸치를 층층이 쌓으셨다. 된장과 고추장을 섞어 만든 비빔 양념장이 자박하게 끓어오를 때쯤이면, 집안 구석구석은 구수한 향기로 가득해졌다. 뚜껑을 여는 순간 피어오르던 그 따스한 김 속에는 남해의 파도 소리와 할머니의 정성이 함께 벼무려져 있었다.

때로는 귀한 죽방멸치가 선물로 들어오기도 했다. 손바닥 위에 올리면 매끄러운 은빛 광택이 흐르던 그 작은 존재들은, 바다를 고스란히 응축해 놓은 결정체 같았다. 짜고 단 것을 즐겼던 지난 습관을 떠올리면 이만하기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제 멸치를 통해 내 몸을 다시 세우려 한다. 멸치여, 너희들은 이제 내 안에서 부서져 나의 뼈가 되고 나의 별이 된다. 바다의 눈물 같은 그 은빛 뭉뚱이가 내 기억 속에서 오래도록 반짝이길 바란다. 설령 바다의 생명이 다하는 날이 올지라도, 내가 사랑했던 그 푸른 기억만큼은 은빛 비늘에 새겨져 내 안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쉬길 바란다.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기능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베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베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법원,

베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변호사 임종범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안,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치몬드
페닌슐라
상담환경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사무장 김진주



일등부동산

뉴스타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http://부동산학교.com> 5주 속성반
부동산 학교
2025년 9월 16일 (화) 개강
수업료: \$350 시작이 좋습니다.
(교재비: \$100) 뉴스타와 함께 성공하세요.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쪽집게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학격후 10주 실전교육 • 기본 컴퓨터 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파란만 모시면 100% 합격보장!!

리스팅 접수 **개런티**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공사전

공사후

공사전

공사후



모든
공사는
후불
(집 파신 후)

“그냥 팔지 마세요”

뉴스타에서 이쁘게 수리하고 꾸며드립니다.

- 수리 전 가격 : \$650,000
- 공사비(후불) : \$45,000
- 수리 후 가격 : \$750,000

수리 후 \$50,000 이상 이익

* 집마다 공사비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SOLD

Sold in 2 days
새로 다 꾸민 집.
\$985,000 → \$1,265,000
28만불 더 받고 팔림

SOLD

Sold in 2 days
새로 다 꾸민 집.
\$370,000 → \$388,000
\$18,000불 더 받고 팔림

버지니아



\$85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 4, 화장실 3+1, 치고 2
끝집, 아주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77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3
좋은 환경에 이쁘게 잘 꾸며진 집, 넓은 정원



\$785,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2+1, 치고 1
새로꾸인 부엌과 마루바닥, 편리한 교통



\$999,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4+1, 치고 2
넓은 구조와 잘 가꾸어진 집, 벽돌, 마루바닥



\$880,000
센터빌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치고 2
아주 잘 꾸며진 이쁜 집, 이쁜 뒷뜰, 수영장



\$1,05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치고 2
우드슨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많이 함



\$1,18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4+1, 치고 2
코스트코 근처, 벽돌집, 마루바닥, 환경좋은 고급 집



\$1,350,000
비엔나 싱글홈

방 5, 화장실 3+1, 치고 2
편리한 교통에 멋진 고급 집, 최근 몇 년 사이에 업그레이드



\$1,60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4+1, 치고 2
1년된 새집, 고급스럽게 잘 꾸며진 집, 좋은 학군



\$1,875,000
비엔나 싱글홈

방 6, 화장실 6, 치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1,98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5+1, 치고 2
새집, 우드슨 학군, 모던하게 아주 이쁘게 잘 지은 집



\$2,100,000
맥클린 싱글홈

방 5, 화장실 3+1, 치고 2
아주 크고 고급스러운 집, 넓고 방향적 장점과 이쁜 뒷뜰, 수영장



\$349,900
Nottingham 타운홈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625,000
Elkridge 타운홈

방 3, 화장실 2+1, 치고 2
아주 넓고 이쁜 집, 마루바닥, 1층에 안방



\$750,000
실버스트링 타운홈

방 3, 화장실 3+1, 치고 2
13년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 타운 홈, 넓고 잘 꾸며짐



\$1,275,000
N. Potomac 싱글홈

방 3, 화장실 3+1, 치고 2
아주 이쁘고 밝은 고급 집



\$1,075,000
포토맥 싱글홈

방 4, 화장실 2+1, 치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1,070,000
N. 포토맥 싱글홈

방 3, 화장실 3+1, 치고 2
아주 고급스럽게 잘 꾸며진 집, 넓은 뒷뜰, 우튼 고등학교



\$820,000
엘리컷시티 싱글홈

방 5, 화장실 3+1, 치고 2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넓은 뒷뜰



\$3,590,000
베데스다 싱글홈

방 6, 화장실 7+1, 치고 2
새집, 최고급 동네에 아주 넓고 이쁜 새 집

DC



\$950,000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

방 4, 화장실 4+1, 치고 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한 이쁜 집



\$1,425,000
NW 싱글홈

방 3, 화장실 2
체비체이스와 경제지역, 편리한 교통, 고급 동네



\$2,500,000
NW 싱글홈

아주 크고 고급스럽게 잘 꾸며진 집, 고급 동네



\$649,000
SE 타운홈

방 5, 화장실 3+1
새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이쁜 집

뉴스타부동산

VA 703-496-4989
MD 410-618-4989

8230 Leesburg Pike, Suite 650,
Tysons Corner, VA 22182
3444 Ellicott Center Dr. #105,
Ellicott City, MD 21043



내집 가격이 궁금하다?

컬러 사진으로 만들어진
집감정 리포트를 신청하세요.

1-800-406-4989

ASK미국 온·오프 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지식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조伊斯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Q 프리메드 유학생을 위한 영주권 전략

▶문= 프리메드 유학생들이 다른 전공보다 영주권 취득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프리메드 유학생에게 현실적인 영주권 전략이 있을까요?

▶답= 프리메드 유학생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은 다른 전공 유학생들에 비해 구조적으로 더 까다롭고 불확실합니다. 의대 진학과 레지던시로 이어지는 긴 교육 과정이 비자 신분 유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프리메드 유학생들이 학업 성취와는 별개로 체류 신분에 대한 불안을 동시에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프리메드 유학생이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 구조에 있습니다. 학부 과정부터 의대 진학, 레지던시까지 이어지는 긴 교육 기간 동안 대부분 F-1 또는 J-1 신분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안정적인 풀타임 고용이 어렵고, 영주권 스폰서로서 연결될 수 있는 고용 관계를 형성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졸업 이후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의료 관련 포지션은 H-1B 비자를 통해 취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H-1B는 추첨제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스펙이 뛰어나더라도 추첨에서 탈락하면 체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의료 분야는 고용

주가 장기적인 영주권 스폰서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레지던시와 펠로우십 계약이 단기 단위로 반복되다 보니, 고용주 입장에서도 영주권 스폰서십을 약속하기 부담스러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하이브리드 영주권 전략입니다. 하이브리드 영주권이란 현재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취업 비자와는 별도로 영주권 수속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H-1B라는 단일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비자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 영주권 우선일자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영주권 수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는 승인 시점이 아니라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우선일자 확보 시점은 향후 선택 가능한 이민 카테고리와 진행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이브리드 전략은 학업과 수련 일정이 길고 변수가 많은 프리메드 유학생에게 시간이라는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프리메드 유학생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 준비 없이 시간을 허비 보내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H-1B 결과만을 기다리기보다, 현재의 합법적인 신분을 활용해 영주권 수속을 병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방향입니다.

불확실한 H-1B 결과만을 기다리기보다, 현재의 합법적인 신분을 활용해 영주권 수속을 병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방향입니다.



박상현
노동법/상법 변호사

Q 고정 월급에서 급여 차감

▶문= 직장에서 고정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저에게 할당된 병가가 다 소진되었다면서 몇 시간씩 병원에 가는 시간을 월급에서 차감해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정 월급을 받는 직원의 월급도 차감 할 수 있나요?

▶답=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직원은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비면제직 직원으로 분류됩니다. 즉, 고용주는 직원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며, 해당 기록을 바탕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포함한 정확한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원을 면제직 직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주는 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고정된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을 지급받으면서 회사의 운영, 관리, 감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는 샐러리, 즉 고정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샐러리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해당 금액은 업무의 양이나 성과, 질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면제직으로 분류된 직원은 업무 수행의 많고 적음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고정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고정 월급에서 일부 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 제한적인 예외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나 장애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하루 이상의 근무일 전체를 결근한 경우, 또는 질병이나 장애로 결근했으나 고용주가 제공한 보험이나 보상 제도를 통해 해당 날짜에 상응하는 급여가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급여 차감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면제직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1.5일을 결근한 경우, 고용주는 1일에 해당하는 급여는 차감할 수 있으나 나머지 0.5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차감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병가가 소진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무일 하루 전체를 결근한 게 아닌 이상 급여를 차감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고정 월급에서 부당하게 급여를 차감할 경우, 직원은 미지급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해당 직원의 면제직 지위가 상실되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초과 근무 수당 및 휴식 시간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통증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인체의 생명 리듬을 정상화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정(精)·기(氣)·신(神)의 조화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채희동
상표/특허/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Q 상표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문= 상표 라이선스가 프랜차이즈로 인식되는 경우와, 그에 따른 법적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답= 상표 라이선스란 상표권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제3자에게 자신의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허락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반면 프랜차이즈는 계약의 명칭과 무관하게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성립하는 사업 관계입니다. 상표 사용권이 부여된 상태에서 상표권자가

사업 운영에 상당한 통제력을 행사하거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법적으로 프랜차이즈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는 프랜차이즈에 따른 자본 부담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상표 라이선스 형식을 취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이 프랜차이즈임에도 관련 등록이나 정보 공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법은 연방법과 주법으로 구성되며, 가맹점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미등록 프랜차이즈로 판단될 경우, 가맹점이 계약 취소나 이미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 제재나 형사 처벌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 라이선스가 프랜차이즈로 인식되는 전형적인 사례는 상표 보호 범

위를 넘어 사업 운영 전반에 개입하는 경우입니다.

운영 매뉴얼 강제, 마케팅 방식 지정, 교육 참여 의무화, 특정 공급처 강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여기에 로열티나 교육비 등 금전적 대가가 결합되면 프랜차이즈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상표 라이선스를 활용한 사업 모델을 계획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프랜차이즈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와 신중한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5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MERCY
CHIROPRACTIC

26년 임상경험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전문의 박종현

한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멀리 2층)



Little River Trpk.

한국일보

★



센터빌

703.830.0993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Lee Hwy.

한국일보

★



엘리콧시티

410.465.3221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Columbia Pi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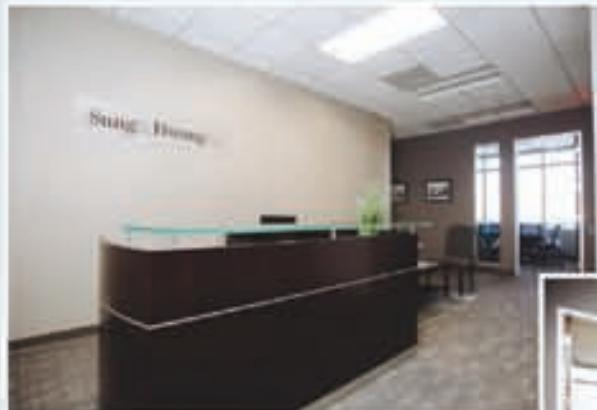
한국일보

★

SHK FIRM

ATTORNEYS-AT-LAW

합동 법률 사무소 MD·DC·VA



VIRGINIA
OFFICE

7353 McWhorter Place, Suite 202
Annandale, VA 22003



MARYLAND
OFFICE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완벽한 영어 와 풍부한 재판 경험 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 | | |
|----------------------------|-------------------|
|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 /휴직 보상 | • 손해배상 |
| • 민사소송 | • 의료사고 |
| • 비지니스 설립/매매/분쟁 |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 Liquor License |
| • 보험 | |

한국 비지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MD, DC, V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Baker Botts, LLP
NY, MD



폴 김 변호사
PAUL W. KIM, JD, MPH.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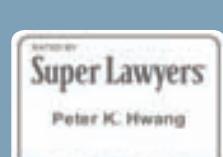
대니엘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 Clemson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Baltimore School of Law, JD

약력

Eccleston & Wolf
MD

SHK FIRM
ATTORNEYS-AT-LAW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지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wpk., #303, Annandale, VA 22003

경제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Monday, January 26, 2026 C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B UNIVERSAL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49% "정부 해결 최우선 과제"
수입품 선호에 관세 직격탄
의료비는 인종 불문 관심사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주재재판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95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5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프)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t.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아태계 소비자들이 생활비,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낙희 기자

최근 아태계(AAPI) 소비자들 사이에서 생활비와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공정책연구센터인 AP-NORC 가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태계 소비자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높은 생활비와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1년 전의 37%에서 12%포인트나 급등했다.

이는 같은 달 AP-NORC가 국내 소비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약 3분의 1(33%)이 물가와 경제적 걱정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목한 것보다 눈에 띄게 더 높은 비율이다. 즉, 경제적 스트레스가 인종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된 상황에서도 AAPI 집단에서 비용 부담에 대한 체감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관세 정책을 방어하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진정시키려는 메시지를 반복해 왔음에도 AAPI 소비자들이 이를 충분

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경제 전반의 불안이 AAPI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조사 결과에서는 AAPI 소비자의 약 20%가 주택 비용 또는 일자리·실업 문제를 정부 우선 과제로 꼽아, 전체 소비자 응답 경향과 대체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인종별 차이는 뚜렷했다. 흑인, 히스페니, AAPI는 백인보다 실업·일자리·주거비 문제를 더 우선순위로 언급하는 경향이 강했다.

AAPI 집단에서 생활비 불안이 커진 배경으로는 거주 지역 특성이 유역

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AAPI 인구가 가주와 뉴욕 등 생활비와 주거비가 높은 주 및 대도시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 분포 지역에 따른 높은 고정비가 생활비 체감 부담을 키웠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관세의 영향도 AAPI에게는 더 직접적으로 다가온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로 인해 전체 소비자 전체가 영향을 받지만, AAPI는 식료품·의류 등에서 특정 수입품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아 가격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티 라마크리슈난 UC버클리 연구

월은 지난해 관세가 본격화되기 전 일부 AAPI 소비자들이 소수계 마켓을 찾으며 '사재기(stockpiling)'에 나선 사례를 이유로 들었다.

한편 의료비 문제도 AAPI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로 나타났다. 44%는 올해의 정부 우선 과제로 의료를 꼽았으며, 이는 전체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조사에서는 AAPI 소비자 10명 중 6명이랑이 올해 의료비가 증가할 것을 '매우' 혹은 '극도로' 우려한다고 답했는데, 이 역시 전체 소비자 응답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치·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졌다. 설문에 따르면 AAPI 소비자들은 지난 2024년 대선 직후보다 정부가 주요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가 줄었다.

지난달 AAPI의 약 70%는 정부가 핵심 현안에서 성과를 낼 것이라는 데 '전혀 확신하지 않거나' '약간만 확신한다'고 답했다. 이는 2024년의 60%에서 상승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8일까지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계 미국인 소비자 102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우훈식 기자

올해 세금보고 우편 제출 요주의

우정국 처리 절차 변경 영향
지연·벌금 등 불이익 가능성

가주 세무국(FTB)이 연방 우정국의 우편 처리 절차 변경에 따라, 세금 신고서와 납부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납세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FTB는 최근 발표를 통해, 2025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된 우정국(USPS) 규정 개정으로 인해 우편물의 소인 날짜가 실제 우편을 접수한 날짜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본지 1월 12일자 A-4면)

USPS는 국내우편 매뉴얼에 새 조항 (Section 608.11)을 추가해, 기계 소인은 지

역 처리 시설에서 최초로 처리된 날짜를 기준으로 짹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우체국 창구나 우체통에 우편물을 넣은 날짜보다 며칠 늦은 날짜가 소인으로 짹힐 가능성이 생겼으며, 이 경우 법정 제출 기한을 넘긴 것으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USPS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소인 날짜가 실제 접수 날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우체국 창구에서 수동 소인을 요청할 경우 접수 당일 날짜로 무료 소인 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FTB 의장이자 가주 재무국장인 말리아 코헨은 "신고 지연이나 벌금을 피하기 위해 가능하면 전자 신고(e-file)를 적극 활용하고, 우편 제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우체국 창구에서 수동 소인을 요청하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성 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wpk., #310-B
Annandale, 22003

Ebenezer
Total Wedding Service
종례 결혼식 드레스 한복 예불, 예단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피로연 주례 사진촬영
7 Broad Ave STE 106, Palisades Park, NJ 07650
상담 및 예약 : 917.359.1578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ROWE WEINSTEIN & SOHN PLLC
로우 와이스틴 & 손로펌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사고가 나셨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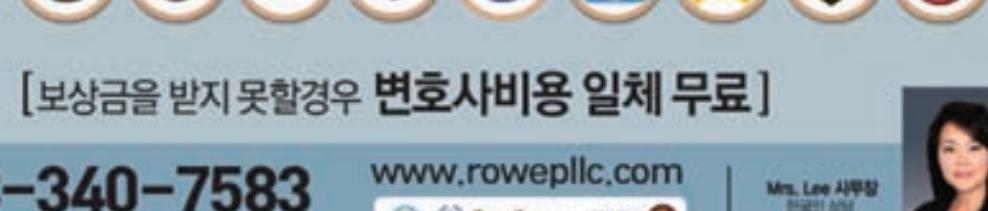
사고처리 INSTEIN & SOHN

형사처벌

- v 교통사고 직후 현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v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 v 접촉사고후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 v 목격자는 필요하나요?
- v 교통사고 후 구속되는경우
- v 음주운전 (DUI, DWI)
- v 각종 교통 티켓
-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 v 감옥형법 (Jail Penalty)



[보상금을 받지 못할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MD 301-770-4710

VA 703-887-1037

888-340-7583

www.rowepllc.com

Super Lawyers

Baltimore

ABC News NEWS 8PM

MICHAEL ROWE

로우 와이스틴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FAX 301-770-4711

Cell :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703-678-1037

원화값 10원 올리려면 … 대통령 나서야 하는 한국

(환율은 하락)



월 해도 잘 안 잡히는 환율

이 대통령 아래적 '구두 개입'에 달러 약세에도 밀렸던 원화값 진정 '원화=위험통화' 인식 해소가 관건 '환율, 주식과는 달라' 개입 우려도



21일 원화값은 달러당 1480원 선을 뚫고 추락하다(환율 상승) 방향을 틀어 장중 1460원대로 솟구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1400원 전후' 복귀 발언에 외환시장이 즉각 반응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환율이 1400 원 전후로 떨어질(원화값 상승)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가능 한 수단을 발굴하고, 환율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은 당장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미국 달러당 원화값은 1480.4원에 거래를 시작해 개

장 직후 1481.3원까지 하락했다. 장중 1480원 선이 깨진 것은 지난해 12월 24일(1484.7원) 이후 17거래일 만이다. 해외투자 열풍에 더해 미국의 그린란드 관세 보복 등 대외 변수가 겹친 영향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 원화값은 달러당 10원 넘게 급등(환율은 하락)해 1468.7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전 거래일보다 6.8원 오른 1471.3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

가 기준으로 원화값이 상승한 것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아래적 구두개입이 나온 이달 15일 이후 처음이

다.

시장에선 이날 대통령의 발언을 전혀 없는 구두개입으로 평가한다. 익명을 요청한 외환시장 전문가는 "과거 외환위기 국면 등에서 대통령이 외환시장의 전반적 상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거론된 적은 있지만, 특정 시기와 특정 레벨을 직접 제시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에 이어 추가적인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원화가치 하락 배경엔 한국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흐름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그린란드를 둘러싼 정치 리스크도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유럽연합(EU)도 통상위협 대응조치(ACI) 발동 검토로 맞섰다. 갈등 확전 가능성에 '웰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 우려가 커졌다. 20일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99.39)보다 0.8% 하락한 98.64를 기록했다.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지만, 원화는 위험통화 인식과 해외자금 이탈 영향으로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구조가 해소되지 않으면 외환시장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관리의지가 1차 저항선인 1480원에 맞춰져 있지만, 이 수준이 깨질 경우 1500원대 진입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은 주식처럼 정책 의지만으로 쉽게 움직이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특정 레벨을 언급했는데 실제 흐름이 따라오지 않으면 시장 신뢰가 흔들릴 수 있고, 현재 환율 불안은 수급 불균형이 주된 원인인 만큼, 이런 발언이 오히려 (달러 매수)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 기자

양도세 내는 서학개미 50만명 1인당 연간 2800만원 벌었다

해외장서 연 250만원 차익 내면 신고
지난해 신고 인원 1년 새 153% 늘어
해외주식에 투자해 번 돈(차익)으로 양
도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이 처음 50만



명을 돌파했다.

22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인원은 52만 3709명이다. 2023년 귀속 신고 인원(20만7231명)보다 152.7% 늘었다. 50만 명을 넘어서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갖고 있던 해외주식을 팔아 번 돈(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신고하고 양도세를 내야 한다. 연간 250만원까진 기본공제가 되고, 남은 금액에 22% 세금이 붙는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주식 투자 '열풍'

이 불면서 양도세 신고 인원 역시 빠르게 늘었다. 미국 증시 활황 덕분이다. 2024년 당시 1년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는 23.3%, 나스닥 지수는 28.6% 각각 상승했다.

2024년 이들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가 신고한 양도차익은 총 14조4212억원에 이른다. 2023년 3조5772억원의 약 4배 수준으로, 역시 사상 최대다.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2024년 기준 약 2800만원이다. 2020년 2100만원, 2021년 28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1100만원으로 줄었다. 그

러다 2023년 1700만원에 이어 2024년 다시 2800만원대로 올라섰다.

해외주식 투자 열기는 여전하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집계한 미국 주식 보관액은 2022년 442억 달러, 2023년 680억 달러, 2024년 1121억 달러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엔 더 불어 1636억 달러로 집계됐다. 인공지능(AI)발 미 증시 거품 논란, 원화가치 하락 등 부정적 요인에도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급격히 늘어난 해외 투자가 원화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

나라고 판단해, 이를 바탕으로 양도세를 불과하게 짏기 위한 당근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우선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매도금액 5000만원 한도에서 양도세를 공제하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올해 2월 중 출시한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성장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등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투자처를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종목형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검토 중이다.

장원석 기자

시리도 챗GPT처럼 … 애플, 대화형 AI 선보인다

"9월 출시 제품부터 새 버전 탑재"
독자적인 AI 모델 대신 구글 쓸듯
애플의 인공지능(AI) 음성 비서 '시리'(Siri)는 그간의 부진을 털고 설욕할 수 있을까. 'AI 지각생' 애플이 시리를 챗GPT와 유사한 AI 챗봇 형태로 개편

할 방침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 애플이 차기 스마트폰과 PC 운영체계(OS)에서 챗봇 기능을 갖춘 시리의 새 버전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캄포스'(Campos)라는 코드명이 붙은 이번

을 파악해 이용자와 보다 더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리의 성능은 과거 단답형 대화 수준에서 최근 문맥 파악 능력 등이 개선됐지만, 경쟁사의 AI 서비스보다 여전히 수준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애플의 이번 결정은 두고 시장 수요

에 맞게 서비스 전략을 바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애플은 그동안 오픈AI, 구글 등이 대중화 한 챗봇 방식의 AI 기능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크레이그 페더리기 애플 수석 부사장은 지난해 6월 "애플은 사용자가 한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채팅 창으로 이동하는 걸 원치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IT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챗봇 인터페이스가 익숙해지고, 주요 경쟁사들 역시 AI 챗봇을 운영체계 수준으로 통합하고 있어 애플도 전략을 선화한 것이다.

애플은 그간 독자적인 AI 모델을 개발해왔던 '폐쇄주의' 전략도 내려놨다. 새로 선보일 시리의 두뇌는 경쟁사인 구글이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강광우 기자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광고비는 쓰는데, 매출은 그대로인가요?"

구글에서 안 보이면, 고객은 오지 않습니다.

- 구글 검색 & 지도에서 고객이 먼저 찾게 만들고
- 광고비 낭비 없이 실제 문의와 방문으로 연결하고
- 매출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흐름을 만듭니다.

intelisystems
Think eMarketing

"2주 안에 새고객과 매출 향상을 경험을 하세요!"



구글 지도 랭킹,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소셜미디어, 유튜브 광고, 온라인 쇼핑몰,
www.intelisystems.com

지금 연락주세요 - 무료로 청와제팅 진행
(시운도자 회장)

571-506-0220

sales.intelisystems.com/k1

기아, EV5·6 가격 내렸다… 테슬라·BYD 저가공세에 맞불



가격경쟁 전기차 대전

테슬라 등 수입 전기차가 한국에서 '저가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산 전기차도 가격을 인하하며 대응에 나섰다. 올해 국내에 20종 이상의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이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기아는 22일 준중형 전기 SUV인 'EV5 롱레인지' 모델 가격을 280만원 내리고, 'EV6'는 300만원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V5 롱레인지 가격은 가장 저렴한 '에어' 트림 기준으로 4575만원으로 조정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적용하면 서울시 기준으로 3728만원 수준에서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EV6는 스탠다드 모델 4360만원, 롱레인지 모델 4760만원부터 시작하며, 보조금 등을 더하면 각각 3579만원, 3889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출시된 EV5의 기본형 모델인 'EV5 스텠다드'는 가장 저렴한 트림 기준으로 4310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돼, 보조금 등을 더하면 실구매가가 3400만원대로 낮아질 수 있다.

EV6 300만원, EV5 280만원 인하
보조금 더하면 EV5 3400만원대

테슬라 전기차, 한국서 유독 저렴
50개국 중 홍콩 제외하면 최저가

"현대차 독점구도 깨려 가격 낮춰"

(BYD) 등 생산거점이 중국인 수입 전기차 브랜드는 유독 한국에 초저가 전략을 쓰고 있다. 테슬라가 공식 진출한 세계 50개국의 '모델3 퍼포먼스' 차량 가격을 분석해보니 50개국의 평균 판매가는 원화로 환산했을 때 9120만원이었다. 그런데 테슬라는 한국에서 이 차량을 3000만원 넘게 싼 5999만원에 팔고 있다. 50개국

중 홍콩을 제외하면 한국이 가장 싸다. 미국(8053만원), 유럽(9880만원)은 물론 모델3 생산 공장이 있는 중국(7170만원)보다도 1200만원 가까이 싸다.

풀스타, 비야디 등 국내에 진출한 다른 전기차 브랜드도 비슷하다. '풀스타 4'는 미국·유럽에선 8000만~1억원 수준이고, 중국에서도 7000만원이 넘지만 국내선 6690만원에 판매된다. 비야

이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다소 출혈이 있더라도 가격 경쟁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업계는 해외에서 7000만~1억원 선에 팔리는 중국 지커(Zeekr)의 중형 전기 SUV '7X'가, 국내에는 올해 5000만원대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비야디도 한국에서 2000만원대 저가형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가격 경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현대차도 곧 전기차 구매 혜택 등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차 경쟁이 치열한 중국은 이미 지난해 내수 시장에서 크게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인하할 여지가 많다"며 "정부 보조금 지급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국내 브랜드도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기준 금리 대비 최대 -3.3%포인트
48개월 0.8% 60개월 1.1%

※M 할부 일반형(원리금균등상환)으로 구매시

EV3·EV4의 경우 할부 혜택을 늘렸다. 이들 모델을 M 할부 일반형(원리금균등상환)으로 구매할 경우 48개월 0.8%, 60개월 1.1%의 금리를 적용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가격 매력을 앞세워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EV5 롱레인지(에어)

수입 전기차에 대응하기 위해서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테슬라·풀스타·비야디



4855만원 → 4575만원
-280만원



4660만원 → 4360만원
-300만원

의료 AI 경쟁 점화… 오픈 AI 이어 아마존도 뛰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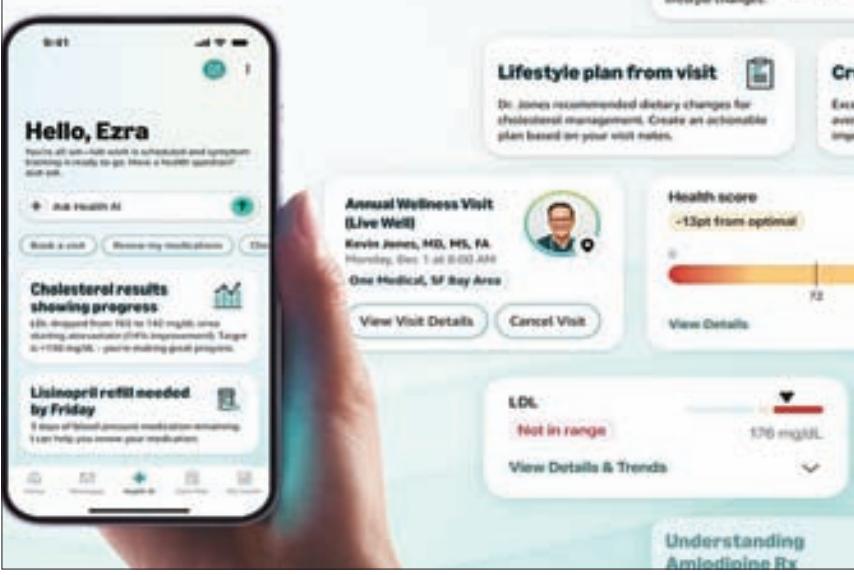
아마존 유료 서비스 '헬스 AI' 출시

아마존이 인공지능(AI)으로 이용자 맞춤형 건강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AI 챗봇에 건강 정보를 묻는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AI 기업들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아마존은 자사 유료 의료 플랫폼 '원 메디컬'(One Medical) 회원을 대상으로 AI 기반 의료 앱인트(비서) '헬스AI'를 출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헬스AI는 아마존의 LLM(대규모 언어모델) '베드록'(Bedrock)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의료 기록을 활용해 필요한 건강 정보들을 제공한다. 검진 결과를 해석하고 복용 중인 약물을 고려해 건강 지침을 내려주는 식이다.

아마존 외에도 최근 오픈AI·앤스로



아마존이 21일 공개한 건강 관리 특화 인공지능(AI) 서비스 '헬스 AI'.

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개인 건강 데이터를 의사와 공유할 수 있고, 의료진은 이를 토대로 진료 기록을 생성해준다. 앞서 오픈AI도 8일 비슷한 기능의 '챗GPT 헬스'를 내놨다.

AI 챗봇에 건강 정보를 묻는 이용자 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오픈AI에 따르면 챗GPT 주간 활성 이용자(WAU) 8억 명 중 2억3000만 명 가량이 매주 챗GPT에 건강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AI 기업들은 이 수요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 건강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시장을 선점하려는 것이다.

의료 데이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몸값도 치솟고 있다. 오픈AI는 챗GPT 헬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2일 미국 의료AI 개발사 '토치'를 1억 달러(약 1470억원)에 인수했다. 2024년 설립된 토치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 기록을 통합해 AI로 분석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미국의 의료 정보 AI 검색 스타트업 '오픈에이던스'도 21일 기업 가치 120억 달러를 인정받으며 2억5000만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I 챗봇이 제공하는 건강 정보가 아직 부정확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비영리 의료연구기관 ECRI(응급의료 연구소)는 21일 '의료 AI에 숨은 위험'이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의학계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AI 챗봇 오용'을 꼽았다.

ECRI는 보고서에 "이미 AI가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불필요한 검사와 품질이 낮은 의료용품을 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들의 AI 의존도가 커지면,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현우 기자

[사진 아마존]

피 등 주요 AI 기업들은 헬스케어 시장 을 겨냥한 신규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 하고 있다.

지난 11일 앤스로픽은 AI 챗봇 클로

드가 이용자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 는 기능을 추가하고, 건강 관리 특화한 서비스 '클로드 포 헬스케어'를 공개했

다. 2024년 설립된 토치는 여기저기 흩어져

REALTY ONE GROUP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koriny

승경호 부동산

사업체 & 상가 매물 안내

세차장 사업

메릴랜드/ 버지니아 주
구입하거나 매물 주시면 구입·매매 해드립니다
문의 환영합니다.

베데스타 샌드위치 샵

임대료 월\$5600, 가게 위치좋고 아담합니다

고급 사무실 임대

창고 자리 전문 | 식당/ 리테일 자리 전문

투자용 상가 건물

매매가: \$8,000,000 · 연 순수익: \$520,000 (Cap Rate 약 6.5%)
임차인: 총 7개, 모두 5년 이상 장기 계약 중

비엔나 NEW 상글

\$2,680,000
방 6, 화 5.5, 4218 SqFt.
아주 좋은 위치, 메디슨 학군

비엔나 NEW 상글

\$2,799,888
방 6, 화 6.5, 5133 SqFt.
비엔나 ES, 모던 럭셔리, 아주 좋은 위치

비엔나 NEW 상글

\$2,249,900
방 7, 화 7.5, 4425 SqFt. 2026 가을 입주
메인레벨에 풀베쓰와 방이있는 밝은 집, 메디슨 학군

비엔나 NEW 상글

\$2,499,900
방 7, 화 7.5, 5324 SqFt. 2026 가을 입주
수영장과 이웃도어를 위한 자리, 메디슨 학군

“신축 주택은 주거 성능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기성 주택보다 면밀한 관찰이 요구됩니다. 마감재 이면의 시공 상태부터 각종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까지, ‘새집’이라는 상징성보다 ‘건축물 본연의 완성도’에 집중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을 전문가보다 더 전문적으로
봐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언제, 어디서든
리스팅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면허 소지 VA Class A Contractor
Tech Pulse Korea 대표
Cloud Papyrus 대표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리얼티원그룹 슈나이더팀 대표
“내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703.928.5990
k@dwellwashington.com
승경호

www.dwellwashington.com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REALTY ONE GROUP
CAPITAL

상속법 / 저렴한 온라인 리빙 트러스트

정보·안전장치 누락 시 소송·분쟁 위험
초기 비용 아끼려다 장기적인 손해 커져

요즘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수 있다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몇 번 클릭하고 적은 비용만 내면 상속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하니, 곁으로 보면 꽤 편찮은 선택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저가형 트러스트 때문에 사망 이후 가족들이 훨씬 더 큰 비용과 문제를 떠안는 경우가 많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상속 견인 절차(probate) 같은 법원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트러스트는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가 트러스티가 더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대비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트러스티가 사망하거나, 건강 문제로 일을 못 하게

되거나, 아예 맡기를 거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예비 수혜자가 빠져 있는 경우도 자주 문제를 일으킨다.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보다 수혜자가 먼저 사망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다. 그런데 예비 수혜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산이 트러스트 밖으로 빠져나가 견인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단순한 누락 하나 때문에, 잘 준비했다고 믿었던 상속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한 트러스트 문서에서 자주 보이는 사소한 실수들도 실제로는 큰 문제로 이어진다. 이름이 문서마다 다르게 쓰여 있거나, 중간 이름이 빠져 있거나, 아예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불분명 한 경우도 많다. 이런 문제들은 자산 소



채재현
변호사

유권을 증명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결국 국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진다.

또 온라인 양식은 가족 관계나 배경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 왜 어떤 사람은 포함되고, 왜 누군가는 제외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보니 남은 가족들은 각자 추측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감정

이 상하고 갈등이 커진다. 이런 갈등은 종종 소송으로까지 이어진다.

소송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한 '노 콘테스트' 조항이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효력이 없는 식으로 작성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불만을 가진 가족 구성원은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쉽다. 근거 없는 소송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트러스트 자산은 빠르게 줄어들고 분배는 몇 년씩 지연될 수 있다.

상속 계획은 한번 만들어 두고 끝나는 문서가 아니다. 법도 바뀌고, 세금 규정도 달라지고, 가족 상황 역시 계속 변한다. 그런데 많은 온라인 트러스트는 한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남은 배우

자가 트러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상황 변화에 맞춰 계획을 조정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피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 문구가 애매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그 의미를 두고 법원의 해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가기도 한다.

제대로 만들어진 트러스트는 법원 절차와 불필요한 다툼을 줄여주지만, 비용만 보고 선택한 트러스트는 오히려 가족에게 더 큰 부담을 남길 수 있다.

상속 계획에서 초기 비용을 아끼는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비싼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경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결국 가족과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부동산 / LA 부동산 전망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증가 새 활력
2028년 올림픽 앞두고 투자자 몰려

2026년 LA 부동산 시장은 지난 수년간의 급격한 금리 변동성과 공급 부족 문제를 뒤로하고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 이는 단순히 주택 가격의 등락을 넘어 도시의 공간적 가치와 주거 형태의 근본적인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현재 LA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완만한 안정세 속의 질적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연방준비제도의 점진적인 금리 인하 정책이 실질적인 모기지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며 그동안 관망세를 유지하던 잠재적 구매자들이 대거 시장에 유입된 결과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의 회복이 곧바로 폭발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지난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며 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이 견고해졌고, 구매자들이 단순한 입지보다

는 매물의 상태와 에너지 효율성, 스마트 홈 시스템 구비 여부 등 실질적인 주거 가치를 더욱 면밀히 따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6년은 LA 시 정부가 추진해온 고밀도 주거 개발 정책인 TOC 프로그램의 결실이 가시화되는 시기다. 주요 메트로 라인을 중심으로 한 중급 규모의 아파트와 콘도 공급이 활발해지면서 만성적인 재고 부족 현상이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다. 특히 가주의 ADU(뒷채) 완화 법안의 영향으로 기존 단독주택 부지에 추가 주택을 건설하는 사례가 보편화하면서, 전통적인 단독주택 단지의 모습이 다세대 공존형 주거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임대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역별 편차는 더욱 뚜렷해지는 양



현호석
HK 메가리얼티 대표

상을 보인다. 샌타모니카나 베벌리힐스와 같은 서부의 전통적인 부촌 지역은 여전히 강력한 자산 가치를 유지하며 신고가를 경신하는 반면, 실버레이크나 에코파크와 같은 젠트리파크이션 이 진행된 지역은 젊은 전문직들의 선호도가 유지되면서도 가격 상승 폭은 둔화하는 양상을 띤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28년 LA 올림

픽을 불과 2년 앞둔 시점에서 임글우드와 사우스LA 지역의 기반 시설 확충과 상업적 개발이 정점에 달하며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이 지역으로 쏠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단지의 활성화는 주변 주택 수요를 폭증시켰으며, 이는 저평가되었던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경우 오피스 부문의 부진은 계속되고 있으나, 이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직응형 재사용'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다운타운의 스카이라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과거의 낡은 오피스 빌딩들이 현대적인 디자인의 로프트나 마이크로 유닛 아파트로 탈바꿈하며 도심 거주 인구를 늘리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 내 소매업과 서비스업의 부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결론적으로 2026년 LA 부동산은 금리의 하향 안정화와 공급 체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동력을 바탕으로 과거의 투기적 과열에서 벗어나 실수요 중심의 건강한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 구매자들은 높아진 선택지 속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차익보다는 올림픽 특수와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겨냥한 장기적 관점의 자산 배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비록 저렴한 주거 비용 문제는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으나, 다양해진 주거 형태와 혁신적인 개발 방식의 도입은 LA가 대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MNT REALTY

MD 자이언트
No. 1
에이전트

주택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퀘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사업체·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밍 구합니다.



443-759-9798

국가와 사람 분리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지난해 '해방 80년'과 '수교 60주년'이라는 역사적 분기점을 지난 한·일 관계는 그간 한국 정치에서 가장 예민한 뇌관이었다. 새로운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지금, 4선 의원을 거쳐 문재인 정부 마지막 주일 대사를 지낸 '일본통' 강창일 전 대사가 그 굴곡의 역사를 짐대성해 신간『한·일 관계 80년사』를 폐냈다. 지은이 강 전 대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024년 동국대학교에서 진행했던 강의를 지난 1년 간 시간을 쏟아 책으로 압축했다"라며 "역사적 과오에 대한 냉철한 관점과 경제·안보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은 이제 마땅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라고 밝혔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 냉·온탕을 오갔던 대일 외교의 궤적을 비판적으로 담은 이 책의 차별점은 이승만부터 윤석열 정권까지 종 열차례의 정권 교체와 일본 내각의 파별 변동이 시시각각 맞물려 관계를 요동치킨 과정을 입체적으로 복기했다는 점이다. 기존 관련 서적들이 피해와 가해, 혹은 갈등과 협력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치중해 온 것과 궤를 달리하는 대목이다. 우선 지은이는 1965년 한·일 협정을 냉전 구도 속에서 양국 집권층이 각자의 이해를 맞고 환한 '전략적 약합'이라고 규정했다. 경제 재건의 종잣돈을 확보한 공(功)만큼이나, 과거 청구권을 모호한 외교 문제 속에 유예시킨 과(過)가 오늘날 양국 관계를 훼드는 구조적 결함이 됐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특히 지은이의 시선은 문재인 정부의 '원칙론'과 아베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경제 보복이 정면으로 충돌했던 지점에 머문다. 위안부와 강제 동원 배상 문제로 파열음이 거셌던 양국 관계



1 1996년 '2002년 월드컵 한·일 우호협력' 축구공을 교환하는 김영삼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2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 3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4 2015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중앙포토, 청와대사진기자단]

해방 이후 양국 관계 80년사
정권·파별 흐름과 함께 복기



한·일 관계 80년사
강창일 지음
한울아카데미

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로 돌이킬 수 없이 악화했다.

지은이는 이를 '대일본 제국' 부활을 지향한 아베 신조 정권과 '투트랙 외교'를 실천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맞물린 비극으로 규정한다. 갈등이 절정에 달했던 2021년, 그는 주일 대사로 발탁됐다. 당시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으로부터 제안을 받자 "나는 문대통령의 원칙론 기조와 맞지 않는 실용주의자임을 알지 않느냐"라며 당혹감

을 표했다고 한다. 그의 발탁은 그만큼 문재인 정부 대일 외교의 '출구 전략' 성격이 짙었다.

현장에서 겪은 외교 비사들은 역사서라는 장르의 무게를 덜어내는 요소다. 주일본 대사 시절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등 당국자들로부터 겪은 훌대와 달리, 아소 다로 전 총리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환송식을 열어준 대목은 그의 두터운 지지(知) 인맥을 실감케 한다. 일본 당국자들의 결례에 대해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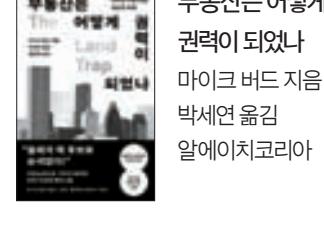
졸하고 협량하다고 웃어버렸다"고 비판하는 대목은 호쾌하기까지 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조기 귀국 요청을 받은 일화도 흥미롭다.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방일을 앞두고 지은이와의 동행을 꺼끄러워해 조기 이임 결정이 내려졌다는 진상을 알게 되자 그는 "헛웃음이나울 따름이었다"고 책에 적었다. 지은이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과거사를 성급히 봉합하려 한 '굴종 외교'라고 냉담한 평가를 내렸다.

그가 제안하는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의 종착지는 '국가와 사람의 분리'다. 일본이라는 국가의 과오는 따지되, 개개인을 향한 혐오는 멈춰야 한다는 주문이다. 과거사의 실타래는 민간의 연대로 풀어가되, 국가 차원에서는 한·중·일 협력을 통해 외교적 영토를 넓혀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의 신간인 이 책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년이나야 할 좌표를 가리킨다.

그의 비판적 성찰은 책 밖에서도 현재진행형이다. 강 전 대사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주변의 감정적 반일주의자들을 캠프에 들이지 마시라"는 고언을 전했다고 한다. 그가 당시 우려를 표하며 구체적으로 거명했던 인물들은 실제로 이재명 정권 출범 초기에 나돌았던 술한 하마평이 무색하게도 아직 쓰임이 없다. 현재 그는 한·일 포럼의 한국 측 회장으로 한·일 우호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일 포럼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족한 양국 간 민간 고위급 대화 채널이다.

윤지원 기자

불평등 심화 부른 '부동산의 빚'



10여 년째 적자에 시달려온 뉴질랜드 경상수지가 1989년 흑자로 반전됐다. 수출호조 때문이 아니었다. 일본 도쿄의 뉴질랜드 대사관 옆 테니스장 부지 를 판 덕분이었다. 테니스장 부지 가격

(오늘날 가치로 3700억원)이 경제지표에 영향을 미칠 만큼 비싸다는 것은 정상일 수 없다. 결국 거품은 꺼졌고, 일본 경제는 30년 넘도록 수령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경제 전문기자인 저자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자산인 토지가 세계 금융시스템의 핵심축이 되는 과정을 3세기에 걸쳐 추적한다. 식민지 시대 미국의 투기적 땅따먹기 부터 오늘날 중국의 부동산 위기까지, 토지라는 기반 위에서 부가 어떻게 쌓이고 무너지는지 예리하게 보여준다.

토지는 늘어나지도 움직이지도 상하지도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완벽한 담보 자산이 됐다. 오늘날 전 세계 신용을 뒷받침하는 최대 규모의 단일 자산이다. 그러나 보니 토지 붐은 흔히 거대한

은행 레버리지를 수반했고, 거품이 끼지면 그 어떤 자산보다도 치명적인 경기침체를 유발했다.

거품이 꺼지기 전에도 토지와 금융의 강력한 연결 고리는 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왜곡한다. "토지 소유자에게 더 많은 자원이 집중되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이들은 기회를 더 많이 빼앗긴다." 이것이 바로 책의 원제이기도 한 '토지의 빚(the land trap)'이며, 전 세계 경제가 그 빚에 걸려있다는 게 저자의 시각이다.

저자의 분석 중에 홍콩과 싱가포르의 예가 두드러진다. 토지를 공공재로 삼는 출발점은 비슷한데 결과는 사뭇 다르다. 홍콩은 정부 재정 확대를 위해 고지가 정책을 유지하다 살인적 부동산 가격과 함께 리자청 같은 개발업자

들 배만 불렸다. 반면 싱가포르는 지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99년 동안 임차해 자녀 상속도 가능한 임대아파트 중심의 주택 정책을 펼쳤다.

21세기 접어들 무렵 홍콩과 싱가포르의 가구 소득 수준은 비슷했지만 지금은 싱가포르가 홍콩보다 70%가량 높다. 중국은 덩샤오핑 집권 이후 싱가포르 모델에 관심을 가졌지만 권력의 흐름이 홍콩 모델을 따르게 했다.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빚에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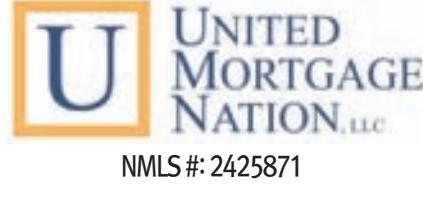
저자는 오늘날 포퓰리즘 정치가 득세하는 이유도 토지의 빚에서 찾는다. "소외된 주택 시장이 소외된 정치운동의 온상이 됐다"는 것이다. 20세기 후반 이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다. 미국과 영국,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국가들이 주요

분석 대상이지만 우리에게도 소구하는 바가 크다. 결국 같은 빚이다.

치밀한 분석에 비해 대안은 소략하다. 주택과 인프라 공급 확대, 온전한 형태의 토지가치 세 도입 정도다. 그래서 선지 저자는 아일랜드 우스개를 슬쩍 꺼낸다. 한 여행자가 농부에게 도시로 가는 길을 묻는데 농부가 "음, 나라면 절대 여기서 시작하지 않을 거요." 토지의 빚에서 빠져나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 한국은 아직 일본만한 재앙에 이르지 않았다고 썼다. 하지만 시한폭탄을 해체할 때처럼 세금이나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중 뭐든지 자칫 잘못된 선을 자른다면 재앙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를 완곡하게 한다.

이훈범 기자



NMLS #: 2425871

Happy New Year
2026

새해 복 많아
받으세요!

꿈을 현실로 만드는 융자 회사!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 다양한 사람, 다양한 서비스, 수십년의 경험

- 일반 융자
- 정부 융자
- 군인 융자
- 재융자
- 캐쉬 아웃 융자

- 최소 다운페이
- 최소 크레딧 점수
- 외국인 융자 프로그램
- Bank Statement 프로그램
- 투자자 대출 프로그램

- Direct Lender
- Competitive Rates
- Low Closing Costs
- Same Day Pre-approval
- 14 Days Closing Possible



Bryan Park
703-727-9730



Daniel Myungchul Kim
703-283-4828



Joon Joshua Han
703-268-3954



Chris Park
703-899-8660



Youngjean Lee
703-596-5409



Shane Lee
703-899-8876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30096

예금 깨고 주식 투자… 은행 대기자금 올들어 32조 썰물

(5대은행 요구불예금)



대출금리 상승 불똥 트나

요구불예금 보름 만에 4.8% 감소
정기예금도 6000억 넘게 빠져나가
투자자예탁금은 연말대비 3.4조 ↑
“자금 부족한 은행, 이자 올릴 수도”

코스피 5000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에서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하는 ‘머니 무브’ 현상이 더 심해졌다. 예금자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돈을 뜯는 요구불예금에서 새해 들어서만 32조원 넘게 빠져나갔다. 정기예금 잔액도 6000억원 넘게 줄었다. 반면 언제든 주식을 살 수 있는 증시 계좌에는 같은 기간 역대 최대 규모인 92조원 규모의 뭉칫돈이 몰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을 포함한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 16일 기준 641조8816억원이다. 지난해 12월 말(674조84억원)에서 약 보름 만에 32조 1268억원(약 4.8%)이 줄었다. 새해 첫 영업일인 지난 2일에 15조여 원이 빠져나간 데 이어 다음 영업일(5일)에도 11조원 가까운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요구불예금은 당좌·보통 예금 등으로, 이자는 적은 대신 예금자가 언제든 돈을 넣고 뺄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선 적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다. 은행의 핵심 자금 조달처인 정기예금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해 12월 5대 은행의 정기예금이 32조7034억원 감소했고, 올해 들어서도 6000억원 넘

게 더 나갔다. 정기예금은 미리 정해둔 예치 기간(만기) 전에 인출하면 이자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요구불예금보다 유동성이 떨어진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정기예금에서도 돈을 빼냈다.

금융권에선 이렇게 은행을 빠져나간 금액이 주식 시장에 몰리는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언제든 주식을 살 수 있게 미리 계좌에 넣어둔 돈인 투자자예탁금은 16일 기준 91조218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말 87조8291억원에서 보름 새 3조3891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초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코스피가 급상승하며 전에 없는 속도로 주식 시장에 돈이 쏠리고 있다”며 “나만 소외됐다는 ‘포모(FOMO)’ 영향으로 비교적 높기 쉬운 여윳돈에 손을 대는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이 앞다퉈 내놓은 종합투자계좌(IMA) 영향도 있다. IMA는 증권사가 부도·파산하지 않으면 원금이 사실상 보장되고, 은행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아 투자 수익 기대가 큰 상품이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달 내놓은 1호 상품에 출시 나흘 만에 1조원이 넘는 개인·기관 자금이 유입됐다. 미래에셋증권의 1호 상품에도 약 5000억원이 몰려 완판됐다.

이런 머니무브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코스피 5000이 임박하면서 증시를 향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서다.

은행권은 시름이 깊다. 비교적 이자가 낮은 요구불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은행채 발행이나 고금리 예금 확대 등 비용이 높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

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하면 건전성 관리에도 경고등이 들어올 수 있다.

결국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상 카드를 쓰면 대출금리도 덩달아 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지난달 평균 연 2.816%로 나타났다. 전월 평균(연 2.568%)보다 0.248%포인트 오른 수치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도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은행권 조달비용이 높아지는 요인들로 대출금리가 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단 전망이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도 끝났다고 보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대출금리가 더 낮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현대글로비스, 머스크의 ‘스타링크’ 도입

빠른 전송 속도의 위성 통신 서비스
선박 45척에 장착, 안전 체계 강화

현대글로비스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도입한다. 스타링크는 일본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

X’가 만든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데, 빠른 전송속도를 앞세워 해운업계를 속속 파고들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19일 자동차운반선·별크선 등 자체 소유 선박 45척에 스

타링크를 도입하고, 올해 국내 입항하는 선박부터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정자궤도 위성은 지상 3만6000km 상공에 있지만, 스타링크는 상대적으로 낮은 550km 고도를 도는 소형위성으로 구성돼있다. 지상과의 거리가 가까워 정자궤도 위성통신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른 게 장점이다. 예컨대 대양 항해 중에 1.4GB(기가바이트) 영

화 1편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정자궤도 위성은 15분이 걸리지만, 스타링크는 2분이면 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스타링크 도입을 계기로 해상 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통신 범위와 속도를 확보해 선박 고장이나 기상악화 등 해상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육상과 즉각적인 소통·대응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원양 항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상 상황 대응 체계도 고도화한다. 이밖에도 선박 자율운행 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정비 등 차세대 스마트 해운 기술 도입 기반을 마련해, 대용량 데이터 송·수신이 필요한 ‘해운 디지털 전환’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고석현 기자

원조 일본은 불황에 ‘잿데리아’ 새 간판… 한국은 활활



한·일 롯데리아 ‘희비’

일본 롯데리아가 ‘잿데리아(Zetteria)’로 간판을 바꿔 단다. 원조가 이름까지 버리며 불황과 싸우는 사이, 한국 롯데리아는 해외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2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롯데리아 운영사인 젠쇼홀딩스는 3월을 목표로 일본 내 롯데리아 매장을 순차적으로 폐점하고 젯데리아 브랜드로 통합할 계획이다. 1972년 도쿄 니혼바시 다카시마야 백화점에 1호점을 연 이후 54년간 이어온 일본 롯데리아는 역사로 사라진다.

잿데리아는 롯데리아 대표 메뉴인 ‘젤풀(ZEPPIN) 버거’의 ‘ZE’와 ‘카페테리아(CAFETERIA)’의 ‘TERIA’를 결합한 이름이다. 햄버거 업계 최신 경

적자 시달리던 일본 롯데리아 54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 한국은 8년만에 매출 1조 눈앞 미국 1호점 오픈, 해외 진출 속도

롯데리아를 ‘잿데리아’로 바꾼 일본 매장. 대표 메뉴인 ‘젤풀(ZEPPIN) 버거’에 ‘카페테리아’를 붙여 만들었다. [유튜브 캡처]



향인 패스트푸드와 카페의 중간 지점을 지향한다. 던킨도너츠가 2019년 기업명에서 ‘도너츠’를 삭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도 닛케이는 “외식 시장 경쟁이 치열해져 패스트푸드도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브랜드 개명은 예고된 변화였다. 젠쇼홀딩스는 2023년 일본 롯데리아를 인수한 뒤 같은 해 9월 도쿄에 젯데리아 1호점을 열고 기존 매장을 단계적으

로 바꿔왔다. 이후로 매장 수가 빠르게 재편됐다. 2023년 1월 358개에 달한 일본 롯데리아 매장은 지난해 6월 기준 222개로 줄었다.

반면 젯데리아 매장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롯데리아 106개, 젯데리아 172개로 집계됐다. 맥도날드·모스버거·버거킹에 이어 일본 햄버거 업계 4위 규모다.

한국 롯데리아의 뿌리가 일본이다. 하지만 현재는 운영 주체가 갈라져 남남인 브랜드다. 한국이 원조보다 더 성공한 독특한 구조다. 일본 롯데리아가 적자에 시달리다 편드에 매각했지만,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국내에선 맘스터치에 이어 매장 수 2위 규모다. 맥도날드·버거킹·KFC 같은 글로벌 브랜드 매장보다 많다.

운영사인 GRS에 따르면 한국 롯데리아는 지난해 1~3분기 누적 매출 8221억 원, 영업이익 536억 원을 기록했다. 연간 실적은 매출 1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김기환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NVAR Top Producer
Zillow Premier Agent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버크 타운홈

\$565,000
방3 / 화3.5 / 퍼킹2
부엌, Bath 등 전체수리한 집
Walk-out, 펜스, 덱 & 페티오

비엔나 콘도

\$325,000
방1 / 화1+ Den, 굿로케이션
전체마루, 넓은 데크
가스, 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매나사스 콘도

PENDING
\$200,000
방1 / 화1
쇼핑 근처
New Water Heater & Appliances

COMING SOON

센터빌 타운
\$600,000
방/화2.5, 카고1

페어팩스 싱글홈
\$980,000
방4, 화3.5, 카고2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정승욱
연방세무사**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돋웁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사업체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비영리 단체 설립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김영선
연방세무사**

IRS 감사
세무탕감 전문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개인 세금 보고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최백호 24일부터 데뷔 50년 콘서트

“50년 세월 다 기억납니다. 서러울 때도 있었고, 상 복도 없었고. 후회한 적도 많죠. 강박적으로 (노래를)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가면 노래를 했을 거 같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데뷔 50주년을 맞아 전국 투어 콘서트를 여는 가수 최백호(76)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며 이렇게 말했다. 소탈한 고백을 앞세우는 그의 얼굴에, 머리 칼처럼 새하얀 웃음이 번졌다.

가수 최백호가 오는 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을 시작으로 제주·경기·대전·경남에서 50주년 콘서트 무대에 선다. 공연 제목은 ‘낭만의 50년, 시간의 흔적을 노래하다’. 최근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사옥에서 만난 최백호는 ‘낭만가객’ 별칭에 대해 “낭만적이지도 않고, 그저 운 좋은 사람”이라며 멋쩍게 웃었다.

-어떻게 지냈나.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작업실서 곡 쓰고 노래 부른다. 콘서트 앞두고 목소리를 열심히 다듬고 있다.”

-좀 아팠다.

“비결핵성 항산균이라는, 아주 독한 약을 써야하는 병에 걸렸었다. 약을 먹었더니 두 달도 안 지나 15kg이 빠지더라. 이제 완치는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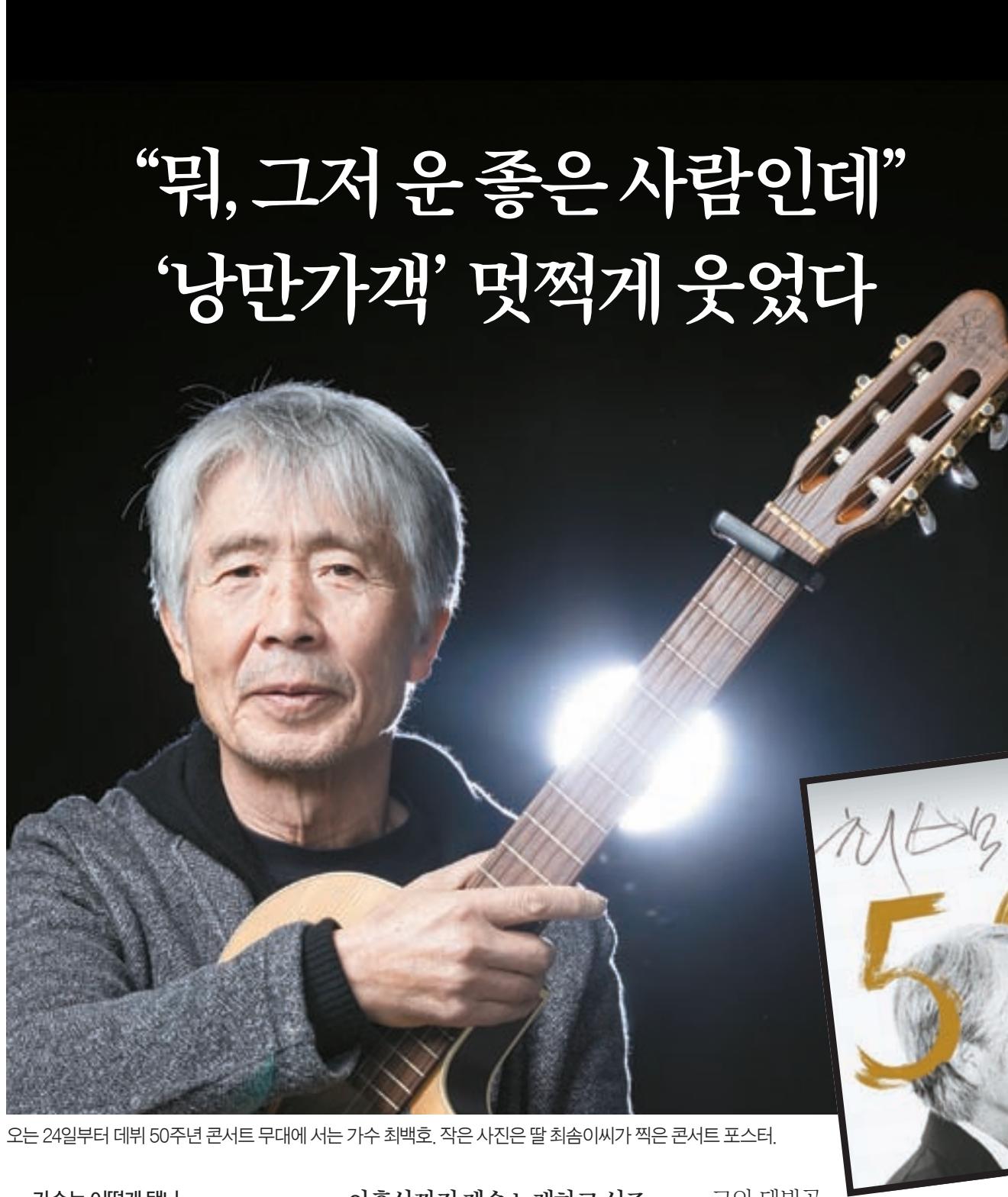
-목은 괜찮나.

“고음이 좀 떨어졌고, 대신에 거칠었던 목소리가 묘하게 변했다. 가능성도 조금씩 된다.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는 되는 것 같다.”

50년 전 그는 서울 청파동의 친구 집에 앉혀 사는 ‘기장(부산) 춘놈’이었다. 친구의 매형이 운영하던 부산의 호프집에서 돈 받고 노래하다 상경한 직후였다.

-원래 노래하는 걸 좋아했다.

“스무 살,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극장 간판 그림 그리며 전전하던 시절 유일한 나이 친구와 기타 치며 노래 부르는 일이었다. 그런데 친구 매형이 월 3만원 줄테니 자신의 호프집에서 노래하고 권했다. 골목에서 딩동대던 생초보 실력으로 무대에 섰다.”



오는 24일부터 데뷔 50주년 콘서트 무대에서는 가수 최백호. 작은 사진은 딸 최솜이씨가 찍은 콘서트 포스터.

-가수는 어떻게 됐나.

“그 호프집에 들른 부산 MBC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진행하던 배경모 PD가 ‘더 큰 데서 노래해보겠냐’고 권했다. 부산 ‘틴 클럽’을 소개해줬고, 거기서 가수 하수영씨를 만나 친해졌다. 하수영씨가 서울로 올라가 데뷔한 후 나도 서울에 와 서라벌레코드에서 오디션을 봤다.”

-첫 방송 무대 기억이 나나.

“1977년 TBC의 버라이어티쇼 ‘쇼쇼 쇼’였던 것 같다. 그날 입고 나갈 양복이 없어 친구 옷을 빌려 입고 나갔는데 바지도 길고 소매가 맞지 않았다. 담당 PD가 내 모양을 보더니 드럼통 하나 가져오라고 해서 그 위에 웅크리고 앉아 노래하게 했다.”

아흔살까지 계속 노래하고 싶죠

그때 “나 죽거든 박수를” 부를 것
첫 사랑에 대해 쓴 ‘낭만에 대하여’
아내 “덕분에 돈 벌어” 괜찮다 해

송창식·나훈아·조용필도 50년

그들 노래도 무대서 들려줄 계획

그의 데뷔곡

은 ‘내 마음 갈 곳을 잊어’다.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라는 첫 소절로 유명한 발라드다. 연인을 향한 절절한인줄 알았는데, 실은 사모곡(思母曲)이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

“세상에서 제일 씩씩하고 멋지고 예뻤던 분이셨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어머니는 종종 시도 쓰셨다. 그 영향 때문인지 나도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 ‘내 마음…’ 가시도 작고한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끼적인 글이 우연히 작곡가 최종현을 만나 노랫말이 됐다.”

-아버지(최원봉 제2대 국회의원)도 대단한 분이셨다.

“6·25 전쟁 중 어린 나를 보러 오시다

튀르키예군 트럭에 치여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고생하셨겠다.

“어머니가 사태 딜린 학교에서 근무하며 우리 남매(1남2녀)를 키웠다. 전장으로 쥐가 몰려다니는 곳이었지만 행복했다. 누나들이 학교 가면, 나는 어머니 교실로 쫓아가서 수업 하는 어머니를 창문 너머로 들여다봤다.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어머니가 전근을 가며, 작은누나와 나는 할아버지 집에 맡긴 적이 있다. 얼마 못 가 엄마를 보겠다며 누나 손을 잡고 철길 따라 걸어 가출을 했다. 엄마를 보자마자 엉엉 울고 드러누웠다.”

최백호의 인생에서 어머니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내 손소인씨다. 그는 “아내가 없으면 지금쯤 술 마시다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히트곡 ‘낭만에 대하여’는 아내를 보며 ‘첫 사랑도 저렇게 어디선가 저렇게 살고 있겠지’라 생각하며 쓴 노래다.

그는 “다른 여자 떠올렸다고 기분 나쁠 법도 한데, 아내는 ‘덕분에 돈 벌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번 공연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노래가 있나.

“우리나라 가요계에서 50년 간 활동한 사람이나 말곤 송창식, 나

훈아, 조용필 정도다. 그래서 이들의 노래를 50주년 무대에서 들려드릴 계획이다. 행복하게 노래하는 76살 가수의 노래를 들으러 오시라. 여러분도 행복하게 해드리겠다.”

-평소 ‘아흔 살까지 노래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부를 노래도 정해놨다. ‘박수’라는 노래인데, ‘나 죽거든 박수를 쳐주오, 삶의 시간들 칭찬해주오, 행복했으므로’ 이런 내용이다.”

-죽음에 대해서도 고민하나.

“나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며 죽고 싶단 다른 가수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침대 위에 누워 잔소리 다 하고 죽고 싶다.(웃음)”

최민자 기자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갤럭시부동산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일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은 환경과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택 매매 및 렌트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주소	가격	설명
1465 Hampton Hill Cir, McLean, VA	COMING SOON	\$1.25M	로리가 Hampton of McLean에서 가장 많이 거래를 한 에이전트고 소문이나서 본인 친도 페어 달라고 연락 옴. 2/6 마켓에 올라올 예정
5280 Jule Star Dr, Centreville, VA	UNDER CONTRACT	\$689,000	손님이 꼭 원하는 지역의 차고 1 타운 홈, 경쟁률 높고 득템, Buyer So Happy 12/22 세일먼트 예정
8110 Squirrel Run Rd, Springfield, VA	SOLD	\$625,000	셀러가 원하는 조건으로 페어 45일 무료 Rent Back은 보너스. 로리는 피는 것도 잘 함. Seller So Happy. 11/24 세일먼트 원료
1477 Hampton Hill Cir, McLean, VA	SOLD	\$1.32M	복수 오피 반기 경쟁사 케리스팅 가격보다 2만불 더 받음. Seller So Happy 10/24 세일먼트 원료
6758 Brook Run Dr, Falls Church, VA	SOLD	\$775,000	집 시자마자 주차원 장기 렌트 원료 10/21 세일먼트 원료
16309 Sandy Ridge Ct, Woodbridge, VA	SALE	\$970,000	Woodbridge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에 있는 잘 생긴 싱글홈
사업체 매매	델리삼(DC)	\$150K	DC 내 위치 좋은 장사질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차례 짚 실 때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일년에 80~100여 주제의 렌트 구해 줌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지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챕터 7·챕터13·학자금융자 감면
서브챕터 5·챕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다신 어이없는 공 안 치겠다” 1000번의 다짐

지중해와 맞닿은 포르투갈 남부 알가르브의 하늘은 맑다. 숨이 막힐 정도로 투명하다. 12년째 이곳을 찾았다는 임영희 TY스포츠 대표는 “먼지가 거의 없어 세탁소와 세차장을 열면 망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했다.

하늘이 맑으니 저녁 노을은 강렬한 오렌지빛으로 타오르고 해가 지평선 아래로 몸을 숨긴 뒤에도 어운은 오래 머물렀다. 그 주황빛 잔상 속에서 프로 골퍼 박현경(26)은 땀을 흘렸다. 매일 밤마다 거르지 않고 줄넘기 1000개를 한다. 이후 빙스윙을 하고서야 숙소로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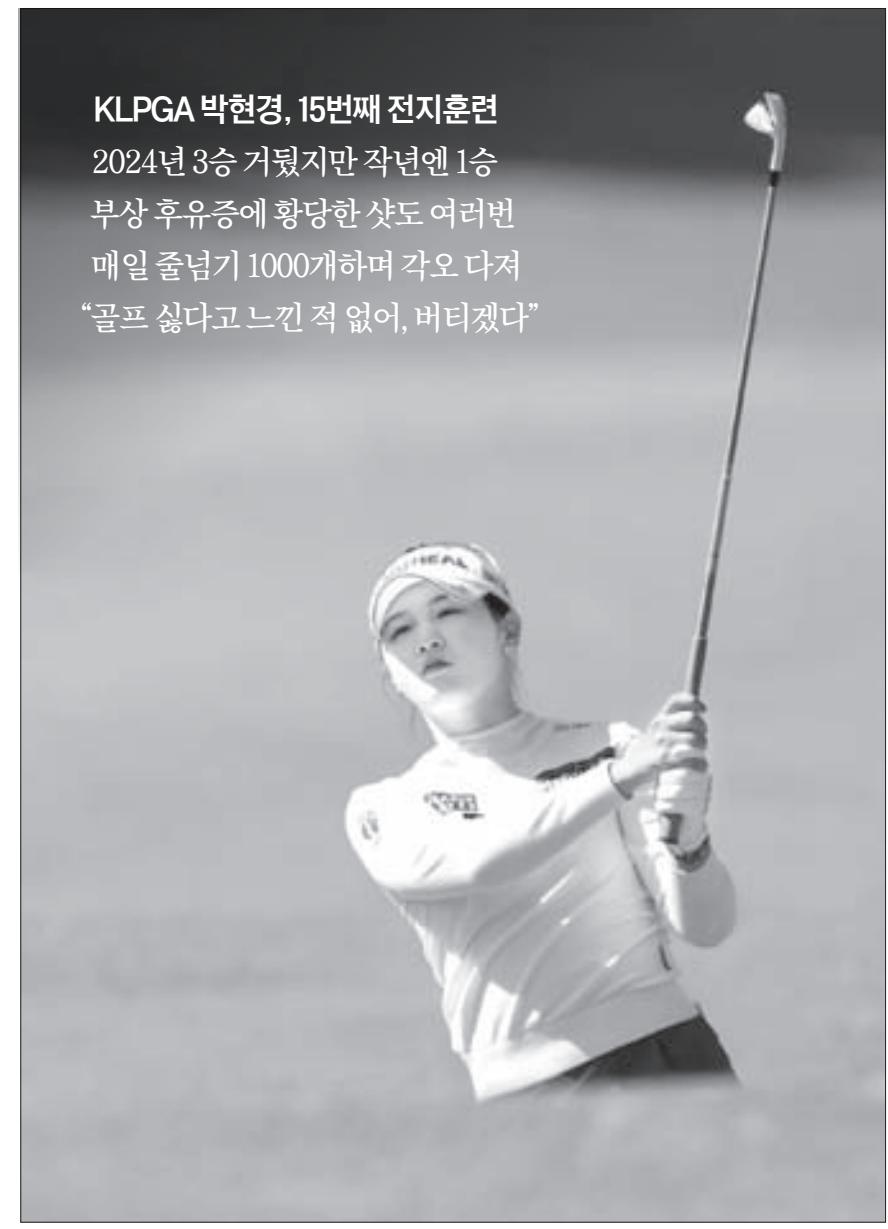
올해는 박현경의 15번째 전지훈련이다. 수많은 기억 중에서도 머릿속에 선명히 각인된 장면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와 함께했던 두 달 간의 훈련이다. KPGA 투어 프로였던 아버지 박세수씨는 해저드나 OB, 스리퍼트를 할 때마다 벌칙을 주고 버디를 하면 하나씩 감해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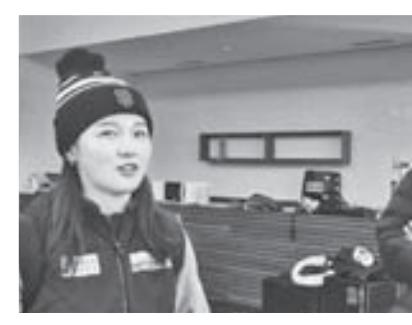
박현경은 악착같이 공을 쳤다. 그가 두 달 통틀어 받은 벌칙은 단 두 번 뿐이었다. 박현경은 이 전훈을 통해 실수하면 안 된다는 진리를 일찍 깨달았다. 14개의 클럽을 모두 능숙하게 다루는 선수가 되었고, 투어의 모든 통계 지표에서 상위권을 점령했다.

또 하나의 분기점은 세계 랭킹 1위 고

KLPGA 박현경, 15번째 전지훈련
2024년 3승 거뒀지만 작년엔 1승
부상 후유증에 황당한 샷도 여리번
매일 줄넘기 1000개하며 각오 다져
“골프 싫다고 느낀 적 없어, 버티겠다”



프로 8년 차 박현경은 ‘훌륭한 선수’를 넘어 ‘위대한 선수’를 지향한다. 작은 사진은 전훈지에서 만난 박현경.



진영과의 첫 전지훈련이다. 고진영은 박현경의 선망의 대상이자 완벽한 롤 모델이었다. US오픈에서 동반 라운드를 하며 친해졌다. 고진영이 배우는 이 시우 코치를 찾아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고, 클럽도 언니와 같은 것을 썼다.

무엇보다 큰 수확은 멘탈의 성장이었다. 그의 표현으로 “위기 앞에서 바사삭 부서지던” 마음은 2019년 고진영과 훈련하며 단단해졌다. 이듬해 친구들조차 “너 정말 고진영 언니 같다”고 말할 정도였다.

두 선수의 스타일은 닮았다. 타고난 장타자나 퍼트 천재는 아니지만 자신이 가진 자원을 100% 활용해 드라이버부터 퍼터까지 빈틈없는 골프를 구사한다. 특히 송곳 같은 아이언 샷을 앞세워 7년째 투어 최정상권을 지키는 박현경의 꾸준함은 고진영을 연상시킨다.

어느덧 8년 차가 되었지만, 열정의 온도는 식지 않았다. 박현경은 “공이 안

맞아 실망한 적은 있어도 골프가 치지 싫다고 느낀 적은 없다”고 했고 “골프가 안 될수록 ‘누가 이기나 해보자’며 오기로 버틴다”고 했다. 번아웃도, 기권도 그에겐 남의 나라 이야기다. 박현경은 “몸이 아픈 건 근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통증조차 운동으로 찌어 누르려 한다.

2024년 3승을 거두며 포효했던 기세는 지난해 1승에 머물며 주춤했다. 옆 구리 담 증세의 후유증으로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샷’들이 나오며 적잖은 충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포르투갈에서 다시 신발끈을 조여 맷다. “다시는 그런 어이없는 공을 치지 않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기본기를 다시 다지며 스윙을 가다듬고 있다.

메이저 2승 포함, 8승을 한 박현경은 이제 ‘훌륭한 선수’를 넘어, 시대가 기억하는 ‘위대한 선수’의 문턱에서 있다. 그문을 여는 열쇠는 KLPGA 대상이다. 단순히 트로피 하나를 더하려는 욕심이 아니다.

1년 내내 가장 성실하게, 가장 높은 곳에서 베린자에게만 허락되는 그 청호가 자신의 골프 인생을 증명해 줄 유일한 성적표임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 전훈이 중요하고, 박현경은 포르투갈에서의 이 시간들로 골프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전지훈련’으로 기록되길 바라고 있다. 성호준 골프전문기자

코르티나도 덜출다, 설 자리 잊은 동계올림픽

〈이탈리아〉

70년 전보다 2월 평균 기온 3.6도 ↑
적설량도 15cm 줄어, 인공눈 뿌려

2주 뒤 동계올림픽 설상과 썰매 종목을 치를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의 경기 환경은 70년 전 올림픽을 개최할 당시와 비교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여파로 이전에 비해 춥지 않고, 적설량도 크게 줄었다.

가장 우려할 만한 변화는 기온 상승이다. 처음 올림픽을 치른 1956년과 비교하면 대회 기간인 2월의 평균 기온이 섭씨 3.6도 높아졌다.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미국 클라이언트럴에 따르면, 1956년부터 10년

간 이 지역 2월 평균 기온은 영하 7도

안팎을 유지했다. 2016년부터 2025년 사이엔 영하 2.7도까지 치솟았다. 영하권 기온을 유지한 날 또한 연간 41일이나 줄었다. 적설량 관련 지표도 비슷한 흐름이다. 코르티나 지역의 2월 평균 적설량(1971년~2019년 기준)은 이전과 견줘 15cm나 줄었다.

비단 코르티나만의 문제는 아니다. 역대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들도 추운 겨울이 짧아지고 눈이 예전만큼 자주 내리지 않아 관련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AP, CBC 등에 따르면, 기후 변화 영향으로 향후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도시가 급감하고, 심지어 개최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

온다.

수준급 동계 스포츠 인프라를 갖춘 전세계 93개 산악 지역 중 오는 2050년을 기준으로 동계올림픽 개최에 적합한 조건을 유지하는 장소는 절반 수준인 52곳에 불과할 전망이다.

2080년에는 30곳으로 더 줄어든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점은 영하의 기온과 적설량 30cm인데, 프랑스 샤모니와 러시아 소치도 2050년이 되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밴쿠버와 노르웨이 오슬로 또한 ‘위험’ 등급을 받았다.

동계올림픽 폐막 이후 3월에 열리는 패럴림픽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80년 개최 가능한 지역은 전 세계를 통틀어 4곳 정도에 불과할 전망이다. 국제올림

픽위원회(IOC)는 특정 지역 순환 개최 또는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2년 올림픽을 치른 중국 베이징은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아 100% 인공 눈으로 대회를 치렀다. 이번 올림픽도 240만m³ 가량의 인공 눈이 필요한데, 이를 만들려면 9억4600만L의 물이 필요하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380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동계올림픽이 물 부족 사태와 환경 파괴를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대회에도 프리스타일 스키와 스노보드 경기가 열릴 리비뇨의 슬로프에 인공 눈이 대거 뿌려졌다. 설원을 고속으로 질주하는 알파인 종목 선수들은 천연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단

한 인공 눈에서 넘어질 경우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어 노심초사다.

1924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초대 동계올림픽이 열릴 당시엔 거의 모든 경기를 야외에서 치렀다. 하지만 1980년 대 이후 아이스하키, 피겨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컬링 등의 종목들이 실내 링크로 옮겨졌다. 향후 ‘실내 경기’로 분류되는 종목의 수는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박린 기자

**중앙일보
구독 문의
703.281.9660**

REALTY MARYLAND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추천 부동산 리스팅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Realtor **지니 죄** 301-318-4242 Jinny1961@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집을 예쁘게 단장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llicott City \$705,000	 Silver Spring 화2.5	 Laurel \$705,000	 Glen Burnie \$582,000
 Elkridge \$479,000	 Ellicott City \$450,000	 Hanover \$450,000	 Rosedale \$329,000
타운홈 방3, 화2.5, 차고1	타운홈 방3, 화3.5	타운홈 방2, 화2.5, 차고1	타운홈 방4, 화3.5

««« 렌트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Potomac 월 \$4,200	 Hanover 월 \$3,300	 Laurel 월 \$3,000	 Hanover 월 \$3,000	 Severn 월 \$2,700	 Columbia 월 \$2,600
싱글홈 화5, 화4.5	타운홈 방4, 화3.5	타운홈 방3, 화3.5	타운홈 방3, 화3	타운홈 방3, 화2.5	타운홈 방4, 화3.5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자동차 사고후유증 손, 발 통증 및 저림
- 척추디스크통증 어깨 결림 및 통증
- 두통, 목, 허리 통증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임기)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과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카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카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난데일 703-354-1515
2층 소룹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부모님이 좋아하실 선물은 역시 세라젬!! 디자인 OK 성능도 OK 기쁨 더~더욱 OK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스페셜 SALE

풀무원 김치 냉장고 런칭 기념 세일!

내 공간에 딱 맞는 김치냉장고
바쁜먹거리를 담는 바쁜 솔루션

풀무원 김치냉장고 120L

PULMUONE KIMCHI FRIDGE 120L

SPECIAL
OFFER

\$1,399

\$999

흙표 흙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크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 су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 한 흙표 흙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대(竹) 자리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흙표흙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딘 지정 대리점

월딘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짜맞춤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하노기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 명품



오래되고 잣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HOT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1월

구

인

광

함께 성장할 회사 임원(Director)을 찾습니다.

미국 FDA에서 정식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과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 사업을 펼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회사 임원(Director)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성장과 베네핏을 함께 나눌 비전과 열정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편리한 시간에 미팅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을 환영합니다

- 미래를 준비하며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잠재력이 큰 일을 찾는 분
- 미국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전환점을 만들고자 하는 분
- 역량에 따라 무한한 수의 창출이 가능한 기회를 원하시는 분
-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향, 성실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분
-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신 분
- 나이, 성별, 이중언어 여부 무관
-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 가능자는 추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 본인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애난데일, VA (P & A USA Inc)

mydexa21@gmail.com / 571-668-0805 (문자요망)

바른 기사만 담겠습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성공 비지니스...
시작이 중요합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 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향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 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옵니다"

구인

Home Improvement

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우·도어

경력자 구함

합법 신분자



703.944.8433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会社

571-239-6054

구인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마케팅 세일즈 직원 모집

- 영어/한국어 가능
- 출장 업무 필수
-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301.468.8949
www.onnaturalusa.com

금매

Korean BBQ
& Hot Pot
케이터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매매

확실한 순익보장 데리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 연간 수익 15만불 이상 (주매상 만불)
-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 저렴한 렌트비 (\$2700/월)
- 오랜 경험의 믿을만한 직원 2명
- 주 5일 (6am ~ 3pm)
- 공실위험 없는 건물

703.300.7207 (텍스트)

관심있는 분만 연락주세요

데디케어

정문기 · 정선회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 & B

Universal, Inc.
히팅·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 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색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메릴랜드 봉고메리몰 시계 및 쥬얼리샵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학생 환영
301-365-7794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직원 모집
마케팅 세일즈 분야, 영어/한국어 가능
출장업무 필수,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분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문의 : 301-468-8949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옴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경
험자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
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니
쉬)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
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
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
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 모집
업무: 주방 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 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세탁/이미용/기타

업소용 중고 주방용품 매매합니다.
1. 스시용 밥기계(일본제품) 6,000불
2. 육구 버너 350불

3. 튀김(덴뿌라) 기계 300불
4. 그릴스 몰 300불
5. 큰 버너 200불
571-501-4780 (문자요망)

95년형 벤츠 300, 18만마일, \$3,000
703-966-9597

강아지 분양합니다. 순종 품산개, 1월 중순
703-868-6114

2018년 포드 트렌짓 250, 인슬레이션된
클러 밴, 차고지 MD
201-681-4470

OK 택시 엘리كت시티, 락빌, 애난데일
장거리 업가로 어디든 가능,
병원/공항/카지노, 24시간 가능
571-332-3987

글렌버니 리커스토어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유경험자, 파티임
443-262-1813

DC-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티임(6am-2pm) \$18/hr + tips
703-785-8763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세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드
리겠습니다.
703-869-5919

PG 카운터 리퀴스토어 라리스탁 하실 분
2-9pm 일하실 분 구함(금, 토 포함)
301-336-2500

손사이딩 울드하우스 메캐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토요 핸디맨 (전기, 목수, 타일, 배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전화 메세지 주세요)

엘리콧시티 혜반 한국 식당에서 홀 서버 하실
분 구합니다.
▶443-420-3096

영어 가능한 딜리 매니저 구합니다.
DCSW(월-금, 6am-3pm)
703-300-7207 (문자)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널심홍. 나이, 학력, 경력, 성
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싱글/타운 방 렌트

포토 맥 싱글 험 렌트 \$4,000
방3, 화2
▶301-399-0140

메릴랜드 엘리콧시티에서 15분 거리
큰 싱글지하 전체 렌트, 간이 주방, 큰
거실, 큰 욕실, 주차 가능, 유포 \$1,200
703-231-5572

엘리콧시티 롯데 5분거리, 밝고 깨끗한 싱글
하우스 워크 아웃 지하 렌트
방2, 욕실, 취사 가능
443-630-2322

조용/교통 편리한 위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
로 근처 싱글 험 방하나 렌트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환영
301-655-3248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 험 2층 렌트
유포, 직장인, 잠만 주무실 분 \$700
240-393-3615 (문자요망)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 험 방렌트 합니다.
욕실, 주방,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2, 부엌, 욕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
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 험 방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사업체 매매

메릴랜드 솔로몬 아일랜드안에 위치한
한식당 매매합니다. \$300,000
최적의 위치, 좋은 수익, 저렴한 렌트비
804-519-1918

DC 백악관 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5일, 좋은 수익, 은퇴 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 & 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굿파킹
2. 주 5일 Deli & 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 식당, 패어엑스 \$250,000
7,000sf/180석/연회 전문/굿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00,000
리퀴라이센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계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6.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7. 일식집, GMU 근처 15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8. DC NW 잘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20만
9.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10. 치킨 프랜차이즈 3곳, VA & MD
11. 쿵후티, Bakery 등 다수 리스팅 보유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험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703-928-5990

델리샵(DC) \$150K
DC 내 위치, 장사 잘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애난데일에 위치한 보험회사에서 일하실
풀타임 사무직 직원 구함
Kmw122@gmail.com
703-750-2205

Email :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러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
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 / IRA 혜택 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홈케어(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thco.com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 있으신 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o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 근무 가능하신 분
▶연락처 703-712-7089

Fairfax 풀/파티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버스 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센터빌, 챠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 담당자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금구, 센터빌/챈들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티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활동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 병원 Front Desk(레스룬/타이스슨)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Part Time
No exp. require 이중언어,
▶tys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 담당자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업소용 중고 주방용품 매매합니다.

1. 스시용 밥기계(일본제품) 6,000불

2. 육구 버너 350불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2023 Little River Tpk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 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

브래드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신경치료
- 교정
- 발치
- 크리운
- 임플란트 틀니
- 충치치료
- 전체/부분 틀니
- 일반치과
- 미용치과
- 잇몸치료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 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 담당자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Fair Oaks Mall 내 New Macy's 옆에 위치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 개인렌트 유료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중앙일보

식당/식품

RT-1 콘티코 근처 편의점에서 신원 확실한 남자 경력자 구함. 문자 연락 요망.
443-618-7141

애난데일 한식당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트임)
703-712-7417

애난데일 명품 게장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 웨이터 구합니다.
703-398-2226

애난데일에 위치한 제과점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캐쉬어풀타임(유/무 경험자)
제빵사풀타임(유경험자)
703-625-8525

DC-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트임(6am-2pm) \$18/hr + tips
703-785-8763

우드브리지 캠퍼스 부대안에 있는 일식당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구합니다.
신분 확실하시고 영어 가능하신분
703-640-7488/443-978-0900

영어 가능한 멀리 매니저 구합니다.
DC SW(월~금, 6am-3pm)
703-300-7207 (문자)

Hashi Sushi 일식당에서 서버, 어시스턴트 매니저 구합니다.
영어 필수, 경험자 페이 우대
703-628-9168 (문자)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톤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셔,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합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사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파트임
▶ 571-991-4172

이미용

매나사스 파크 바바샵에서 함께 일하실 바바 구함. 일주일에 3, 4일 일하실분
703-473-9771

세탁/얼터레이션

알링턴 DC 지역 세탁소에서 직원 구함
풀/파트임 카운터 보실분
풀/파트임 얼터레이션 하실분
571-455-3609

알렉산드리아 테일러샵에서 바느질 하실분
모십니다.

3일 파티임 가능하신분
703-328-3064

자동차/정비/바디샵

풀스쳐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경험자 구합니다.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곳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기타 구인

맥클린 한국 학교에서 교사 모집
어린이를 사랑하시는분
571-235-8997 / 703-505-5760

손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홈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
703-944-8433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센터빌)
▶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애난데일 타운홈 렌트 \$3,400
방3, 화 3.5, 최신식 최고급으로 업그레이드된 집, 화려하게 잘 꾸며 놓은 부엌과 화장실, 집 전체 나무 마루, 넓은 데크, 워크 아웃 베이스먼트, 모델 하우스 보다 더 예쁜 집, 교통 편리, 즉시 입주

▶ 703-477-3114

1. 매나사스 타운 \$3,400
(2025년 12월 새집) 2,700 sq, 방4, 화3.5, 로프트(오피스), 2/4층 택, 차고 2, 모던 오픈 스타일 키친, 234/66/GMU 근처, 이노베이션 퍼블리 쇼핑몰 인근, 교통 편리, 센터빌 10마일 2. 브리스토 타운 \$3,200

방4, 화3.5, 차고 2, 전부 마루, 모던 오픈스 타일 키친, Patriot High 최고 학군, 234/Sudly manor, near Costco

▶ 571-239-6054

1. 게이더스 버그 타운 \$3,300
방4, 화장실 2

2. 제섭 타운 \$2,800 방3, 화장실 3

3. 얼리 컷 시티 타운 \$2,750
방3, 화장실 2.2

4. 피파데나 타운 \$2,600
방3, 화장실 2/2

5. 풀리비아 싱글홈(반지하) \$1,500
방2, 화장실 2

▶ 301-318-4242 / 443-668-0453

스프링필드 타운홈 렌트 \$3,000
방2, 화2.2, 2 Assisted 주차, 밝고 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 편리

▶ 703-919-0472

1. 센터빌 타운홈 렌트 \$3,300

방3, 화3.5, 주차 2, 즉시 입주

2. 센터빌 타운홈 렌트 \$3,500

방4, 화3.5, 주차 2, 즉시 입주

3. 패어팩스 타운홈 렌트 \$3,600

방3, 화3.5, 주차 2, 2월초 입주

▶ 703-863-0321

매나사스 기차역 가까운 타운홈 \$2,900

방3, 화2.5, 차고 2, 앤드 유니

▶ 703-489-6926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전체 렌트

방4 화3.5 \$3,200 or 일부 방3 화2.5

\$2,200

470-485-1875

센터빌 H마트에서 10분 거리 타운홈

\$2,350 (유틸리티 별도)

방3, 화장실 1.5, 뉴리모델링, 개 고양이 가능

등, 단기 렌트 가능

571-345-6667

콘도 렌트

센터빌 콘도 렌트 \$2,200

방2, 화2, Top Floor, 밝고 환한 콘도, 업데이트한 부엌(Granite Counter Tops, 고급 캐비넷, 고급 SS 주방용구들)

넓은 리빙룸, 넓은 밸코니, 마트 근처, 집 전체 잘 관리된 예쁜 콘도

▶ 703-477-3114

비엔나 메트로 근처 콘도 렌트 \$2,700

방2, 화2, 차고 1, 수영장, 휴트니스 센터, 물값 포함

571-271-2457

알렉산드리아 콘도 렌트 \$1,750

방1, 화1, 주차 2, 모든 관리비 포함

▶ 703-863-0321

센터빌 롯데 근처 콘도 전체 렌트합니다.

방2, 화2.5, 교통 편리, 즉시 입주 가능

\$2,180

301-466-1646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 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현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고 1, 이노베이션 메트로 역도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사이언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요지

▶ 571-239-6054

방 렌트

스프링필드 싱글하우스 1층 큰방 렌트,

가족같이 지내실 여자분 환영

703-517-9108

로튼(스프링필드 근처) 주택가 렌트

넓은 1층 같은 워크 아웃 전체

방 3, 인터넷, 냉장고, 세탁기, 주방, 유트리티 포함, 출입문 별도

571-488-5860

Fairfax/Burke 지역

노바, 조지메이슨, 버크 H 마트 10분 거리

인터넷, 취사, 유포, 여자분 환영 \$650

571-214-0188 (문자요망)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하우스

2층 옥실 딸린 큰방 렌트합니다.

571-970-8048

애난데일 시루앞 방 하나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703-973-8123

애난데일 예촌앞 타운하우스 마스터 배드룸

또는 작은 방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703-622-2033

센터빌 H마트 5-10분 거리, 싱글하우스 밝고 조용한 윗층방, 마루, 유포, 교통 편리, 여자분 환영

571-345-8879 (문자요망)

페어팩스 조지메이슨 & 노바 대학 근처 방 렌트, 금연자, 즉시 입주 가능

703-472-2295

게인스빌 타운홈 베이스먼트 워크 아웃 방 하나 렌트합니다. 거실/화장실/세탁실/침실 주무실분

703-732-1246

챈들리 롯데 근처 싱글하우스 위층방 렌트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애난데일 원룸 스타일 방 렌트합니다. 방안에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등 갖추어져 있고 깨끗합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H마트 옆 밝고 조용한 콘도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326-5605 / 301-266-1858

애난데일 큰 싱글하우스 밝고 환한 콘도 렌트합니다. 교통 편리 롯데 1분 한강식당 1분 거리, 입구 별도, 주차 넉넉

703-395-4380 / 703-965-2343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한 싱글하우스 방 렌트, 간단한 취사, 가구 완비, 인터넷,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스프링필드(Backlick & Braddock이 만나는 곳) 조용한 싱글하우스 방 렌트, 워크 아웃, 간단한 취사, 교통 편리, 주차 넉넉, 남자분 환영

703-750-2795

GMU 근처 조용한 동네 싱글하우스 옥실 딸린 방 하나 렌트합니다.

남자분 환영,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일보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2. 포토맥 싱글홈 \$1,075,000
방4, 화장실 2+1, 치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 410-417-7080

메릴랜드 랜행 싱글홈 \$700,000
1991년, 방4, 화3.5, 치고 2, 지하을수리, 업
그레이드, 넓게 확장한 거실
▶ 703-863-0321 / 301-399-0140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홈 \$749,900
방3, 화3.5, 치고 2, 교통 편리
▶ 703-489-6926

우드브릿지 싱글홈 \$970,000
Woodbridge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에 있는 싱글홈
▶ 703-622-0312

센터빌 타운하우스 \$499,900
방2, 화3.5, 1,740sqft, 지하full bath, 워크
아웃, 브래더/28,66,29 교통요지, 2017 리
모델링
▶ 517-239-6054

1. 센터빌 타운홈 \$600,000
방3, 화2.5, 치고 1
2. 센터빌 타운하우스 \$700,000
방3, 화2.5, 치고 2
3. 비엔나 콘도 \$325,000 방1, 화1
▶ 703-919-0472

알디 싱글하우스 \$869,000
방4, 화2.5, 치고 2, 전체 마루, 굿 컨디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
▶ 517-239-6054

엘리엇 시티 싱글홈 \$749,000
방4, 화3.5, 치고 2
▶ 301-318-4242/443-668-0453

1. Elkridge 타운홈 \$625,000
방3, 화장실 2+2, 치고 2, 아주 넓고 이쁜 집,
마루 바닥, 1층에 안방
2. 실버스프링 타운홈 \$750,000
방3, 화장실 3+1, 치고 2
13년 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 타운홈,
3. 엘리엇 시티 싱글홈 \$820,000
방5, 화장실 3+1, 치고 2, 밝고 이쁘게 잘 꾸며
진 집, 넓은 뒷뜰
▶ 410-417-7080

1. 덤로링 메트로 앞 콘도 \$460,000
방1, 화1, 1/2층 오픈 LOFT 835 sqft,
전부 리모델링, 나무 마루
2. 맥클린 콘도 \$389,000
방2, 화2, 1,050 sqft Mclean High, RT495,
66/26/7 Metro, Tysons Galleria 옆
▶ 517-239-6054

도미니언 벨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 sqft, 방5, 화5.5,
치고 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
실, 드레스룸, 인로우스위트, 미디어룸, 게임
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야외 리
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 517-239-6054

사업체 매매

DC 백악관 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5일, 좋은 수익, 은퇴 예정
443-618-8100

1. 주5일 Deli & 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굿파킹
2. 주5일 Deli & 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 식당, 패어팩스 \$250,000
7,000sf/180석/연회 전문/굿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00,000
리워 라이센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계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6.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7. 일식집, GMU 근처 15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8. DC NW 잘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20만
9.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10. 치킨 프랜차이즈 3곳, VA & MD
11. 쿵후티, Bakery 등 다수 리스팅 보유
▶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샌드위치 샵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 703-928-5990

델리샵 (DC) \$150K
DC 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 703-625-9909

중고 매매 / 기타

업소용 중고 주방용품 매매합니다.
1. 소시용 밥기계(일본제품) 6,000불
2. 육구 버너 350불
3. 트김(멘뿌라) 기계 300불
4. 스몰 그릴 300불
5. 큰 버너 200불
571-501-4780 (문자요망)

95년형 벤츠 300, 18만 마일, \$3,000
703-966-9597

피아노 렌스 합니다.
초중고 및 입시반, 성인 취미반
Zoom & In-person
703-772-2987 (문자)

강아지 분양합니다. 순종 풍산개, 1월 충순
703-868-6114

2018년 포드 트렌짓 250, 인솔레이션된
쿨러 밴, 치고지 MD
201-681-4470

OK 택시 엘리كت시티, 락빌, 애난데일
장거리 염가로 어디든 가능,
병원/공항/카지노, 24시간 가능
571-332-3987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시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 드리
겠습니다.
703-869-5919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날씨,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 useb3.com
문의 이메일 : admin@eb3recruit.com
전화 : 571-546-8683
색소폰, 클라리넷, 헤론, 트럼펫, 트럼본, 플루
트 - 악기별 개인 맞춤 렌스
757-338-8496

건축/페인트/마루

손 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
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데크, 팬스, 지붕
제니얼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 571-213-8678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 하세요
▶ 703-835-0945

형제 건축 & 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 703-928-625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 일체
▶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 (In, Out), 데크, 인더너스 와 클리
닝, 샌딩, 파워 워시, 핸디맨 서비스
▶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

체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데크, 그외 모든 공사, 주
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 wani6811
▶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 240-687-5155

보험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메디케어에 많
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703-961-8811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
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안전한 미
래를 준비하세요.
703-939-2737

지금 연금, 정말 만족하십니까?

한번의 접경이, 내일의 차이를 만듭니다.
703-577-8181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
드립니다.
▶ 703-598-3316

온미화재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 보험
▶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보험
▶ 703-862-5395

조은혜 종합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 자동차 / 주
택 / 사업체 보험
▶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로리 문 맞춤형 연금 & 재정 관리
▶ 703-895-7648

제인 최용자 25년 경력 매입 / 재융자 / 특수
▶ 703-244-3453

マイ클 장용자 주택 / 상업용자 / 재정 상담
▶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 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 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 소지자
▶ 202-774-6554

냉동 / 히팅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 수리 전
문, 믿고 맡겨주세요.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 / 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 산업용
▶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 냉난방 TEACHER
▶ 410-370-8057

아라 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캐리어
온d, 냉동, 냉장, 워크인, 히트펌프, 정수장치 ** 연중 무휴 무료점검

▶ 443-850-3703 / 410-979-4242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풀러, 워터 히터
▶ 443-280-1873

정스 냉동 (가정용 / 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풀러밍,
워킹 풀러, 아이스 머신, 덕트 설치 & 크리너
▶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 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 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 매입
▶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
드, 친환경 원단, 하이컬러티, 무료견적, 최상
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단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
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 703-600-9031

토탈 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 가격 보장, 카펫 / 하드
우드 / 타일, 주거용 / 상업용 한 번 시공은 끝
까지 책임집니다.
▶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브레이크 크리닝, 최상의 트리 트리 퍼
스 팀 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쉬,
파워 플로우,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워크

▶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
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 교체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703-591-0009 / 703-537-9899



냉 · 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Lennox
전문설치

AWARDED

Porch Home Advisor BBB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오래되고 잊은 고장이 기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데크,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데크, 캐비넷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법양해운

귀국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탑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법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기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법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33-2033 051-469-4191 310-767-50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탑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귀국 이사 전문

신용 저렴

▶자체 창고 보관

신용 저렴

▶타주, 시내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귀국이삿짐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타주이사

100% 자체보험으로

해외이사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시내이사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위성통신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wpk., #310, Annandale, VA 22003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 톡

소통

JD Star Pest Control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듀 보석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다이아몬드
전문점

백금(Platinum)
K14, K18, Setting 전문
G.I.A.E.G.L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셋팅 전문
순금 아기들 반지 팔찌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각종 보석 긍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Elliot City, MD 21043
엘리ott시티 롯데플라자 내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응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테아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설 분, 경매)

Hyundai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핫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넥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① 위성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쌠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회장실, 부엌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 • 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야기 돌반자,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한국산 콤비, 룰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한국산 Smart Curtain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 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팎 물새는 것

703.499.5984

홈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수도꼭지 교체
- 싱크 / 디스포져
- 워터히터 / 물새는 것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펌프 교체

571.594.4080
VA A 라이센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 가능

DC, MD, WV 라이센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틴트

“100% 한국산 공장직영”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VA, MD, DC, PA, NC 전지역을 총괄하는 지사 오픈!!

한국산 지브라쉐이드, 전동블라인드, 룰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703.600.9031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Roberta: What are you doing today?

로버터: 오늘 뭐 할 거야?

Roger: I'm going to wash the car and then clean out the garage.

라자: 세차하고 차고 청소할 거야.

Roberta: The garage has needed to be cleaned for some time.

로버터: 차고는 오래전에 청소를 했어야하는데.

Roger: I know. What are you doing today?

라자: 알아. 당신은 오늘 뭐 할 거야?

Roberta: I'm going to get my nails done.

로버터: 손톱 다듬을 거야.

Roger: Anything else? 라자: 다른 건?

Roberta: (Looking at her wrist watch) Oh my God! It's

almost 1:00.

로버터: (손목 시계를 보면서) 어머나! 한 시가 다 됐네.

Roger: What's the matter?

라자: 왜 그래?

Roberta: I have to go to the bank. It closes in ten minutes. I have to run.

로버터: 은행에 가야 되는데. 10분 있으면 문 닫는단 말이야. 빨리 가야겠어.

Roger: Okay, I'll see you when you get back.

라자: 그래. 은행 일 보고 와서 보자고.

기억할만한 표현

▶*clean out (a space): 청소하다.

"I'm going to clean out the closets today."

(오늘 옷장 치울 거야.)

*for some time: 오랫동안.

"He's been living in Los Angeles for some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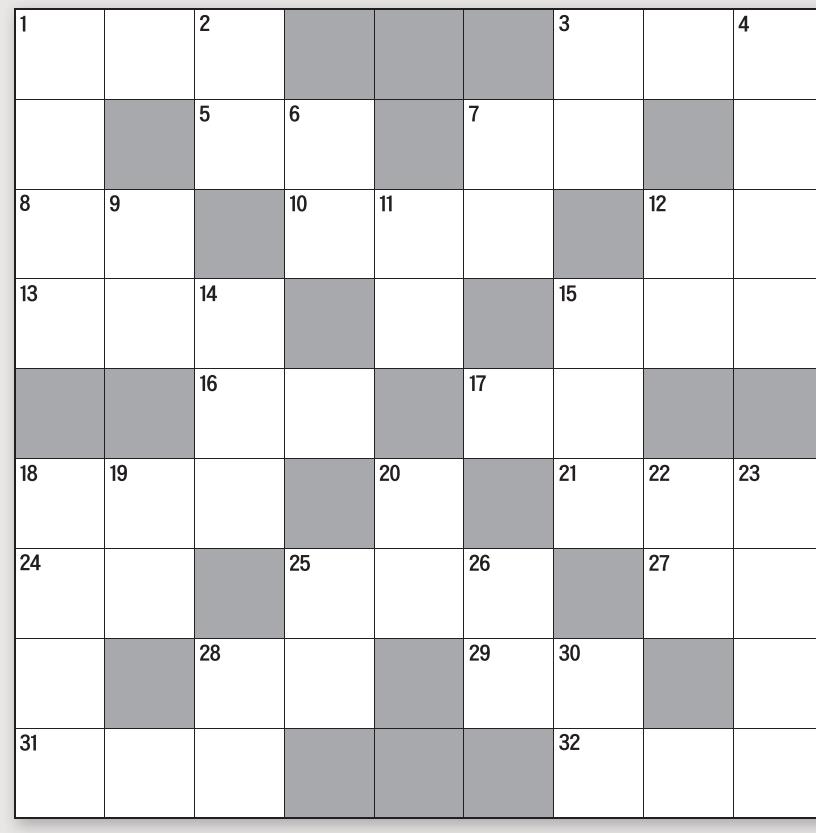
(그 사람은 LA에서 오랫동안 살았어.)

*(one) gets (one's) nails done: 손톱을 다듬다.

"She gets her nails done every Saturday morning."

(그녀는 토요일 아침이면 손톱을 다듬어요.)

날짜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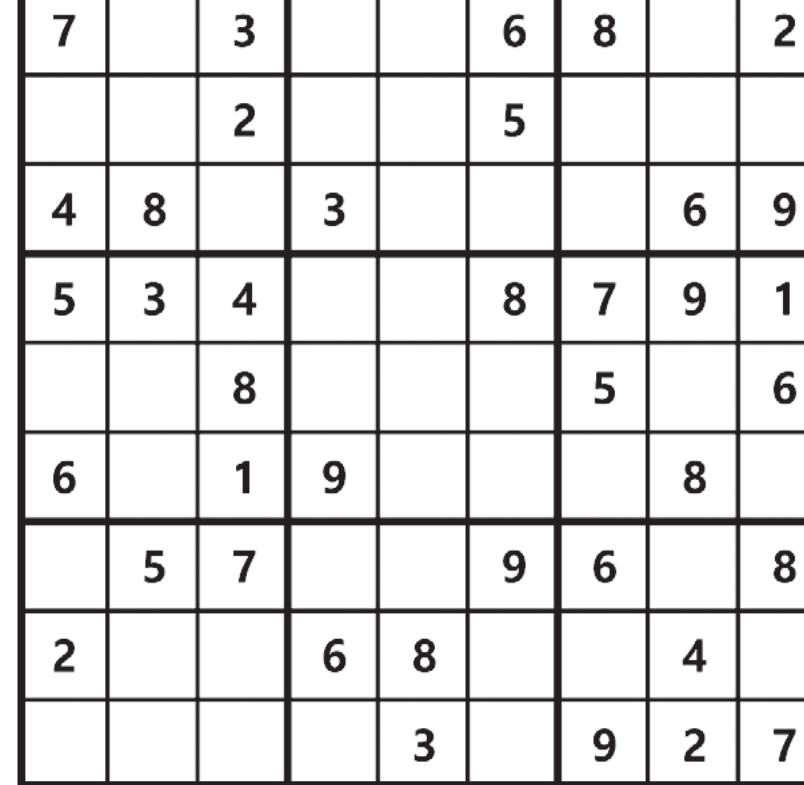
가로열쇠

(1)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제도나 풍속 (3)
넓적하게 벌어진 코. 그 애는 눈과 입은 예쁘지만, 코만 유난히 ~이다 (5) 상체를 굽혀 옆드린 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허리에서부터 목까지 물로 씻는 일 (7) 야구에서, 투수가 경기 중간에 교체되어 마운드에서 내려온 (8) 사람의 죽음을 알림 (10) 여름에 물과 경치가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발을 씻고 노는 모임 (12) 국수, 새끼, 실 따위를 둥그렇게 포개어 감은 뭉치 (13) 하나의 술잔으로 같이 마시는 술.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마시는 술 (15) 꽃과 함께 떨어진 어린 감 (16) 남의 노래를 흉내 내는 일 (17) 연예의 경쟁자 (18) 저고리 위에 덧입는 웃옷. 저고리와 비슷하나 깃과 고름이 없고 셀을 여미지 않는다 (21) 소리를 내어 슬퍼 우는 울음소리 (24)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 (25) 개구리밥. 물 위에 떠 있는 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 (27) 음식에 대한 값 (28) 큰 절에 팔린 작은 절 (29) 길을 가는 사람 (31) 어느 곳까지의 거리 및 방향을 알려 주는 표지 (32) 경사스러운 일과 불행한 일

세로열쇠

(1)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음. 주어진 일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데 몸을 사림. □□□ (2) 열기구의 원리를 이용하여 공중으로 띠우는 등 (3) 사방으로 펼쳐진 넓고 평평한 땅 (4) 뜰 콧물을 흘리는 아이. 철없는 어린아이 (6) 불공을 할 때 두드려 소리를 내는 기구 (7) 미나리, 과 파위를 데쳐 돌들 간에 조고추장에 찍어 먹는 음식 (9) 쓴 술이 듦 잔. 쓰라린 경험 (11) 발로 공을 차서 네트를 넘겨 승부를 겨루는 경기 (12) 자기 고을의 원(員)을 존대하여 부르던 말. ~의 흐령이 주상같이 펼쳐졌다 (14) 주장하여 어떤 일이나 음모를 꾸미는 사람 (15) 사격장의 표적 근처에, 종알이 표적에 맞았는지를 살피기 위하여 표적 밑에 파놓은 호 (18)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소년이나 남자 (19) 오염된 상처에서 나오는 액체 (20) 건물이 차지한 밀바닥의 평수 (22) 식량이 되는 쌀, 보리, 콩, 조 따위 (23) 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새, 짐승 따위의 소리를 흉내 내는 일 (25) 아버지와 아들 (26) 처음으로 강 (28) 뒷거래되는 표 (30) 통행금지를 알리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치던 종

스도쿠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2주 \$20, 월 \$3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Eng)	한글(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EXP. DATE: / CVS: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난 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iberty worldpay

www.meridianwish.com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Worldpay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 & Liberty Bankcard**

WORLDPAY와 함께한 30년의 신뢰

- 전 세계 175개국, 2M 가맹점 서비스
- 연간 550억 건 이상 거래 처리

**Worldpay는
현재 글로벌 1위 회사**

미전역
애이전트 구함

3대 핵심 서비스 제공

- 업계 최저·투명한 수수료
- 최신형 POS 단말기 무료 제공
- 최고 수준의 기술, 고객 서비스

**지금 전화하세요!
(424) 332-3779**

www.meridianwish.com Info@meridianwish.com
Powered by Worldpay 9465 Wilshire Blvd., Suite 300 Beverly Hills, CA 90212
Liberty Bankcard (MPS) is a registered independent Sales Organization of Worldpay ISO and Ecommerce, LLC, a registered ISO of Fifth Third Bank, N.A., Cincinnati, OH, USA

기타 지역

구인

스시맨 & 주방급구

알리스카, 숙식제공
성실하신분
(408)497-1540
메세지 남겨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중식쉐프 & 스시맨

알리스카, 취업결과자유업주
숙식제공 (858)337-0982

이민생활의 다큐판
중국일본
안내광고
(213)368-2525

문의 213.368.2525



Hello Town

미국 생활에 대한
고퀄리티 리얼정보와
미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All about US Life!

구인 RENT 자동차

미국
라이프의
모든 것

전문업체

부동산

렌트

부동산

자동차

구인

RENT

부동산

자동차

구인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카멕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멕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문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6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팔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CORE Integrative Care & Wellness

센터빌
챈들리
海淀

한국과 미국에서의 통증·재활 분야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양·한방 통합 치료로 집중 케어 해드립니다!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Kenzie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 치료
보바스 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 치료
한방 침 치료, 전기 치료
관절/근막이완 치료

메디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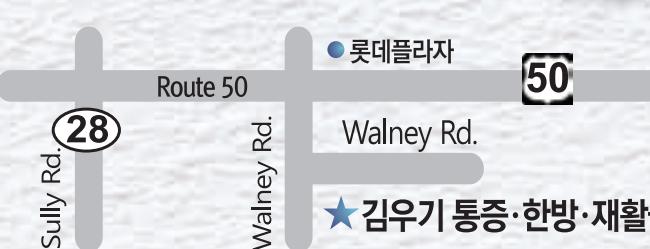
- 각종 의료보험
- 여행자 보험

교통사고

- 메디케이드
- 캐쉬플랜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
- 뇌졸중/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진료 과목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Licensed Acupuncturist

원장 김우기 DPT, LAc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받습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모바일 앱으로 손님 폰에 세일 광고 및 마케팅 문구 전송, 무제한, 무료”



- 멀티매장 + 창고관리
- 간편한 재고관리
- 고객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
- 모바일 앱을 통해 손님폰으로 세일 전송
- 기존 POS 시스템에서 재고 데이터 이전 가능
- 인터넷이 끊겨도 작동하는 오프라인 모드
- 100,000개 이상의 뷰티 아이템 데이터 내장
- 매장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가능

“모바일 앱 세일 광고 품목,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구매, 결제 가능”

“세일즈 에이전트 모집중!!
문의: hr@worldbankcard.net”



WBS

상담문의 환영 703-225-5500
WWW.WORLDBANKCARD.COM
WWW.IMIDUS.APP